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이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7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83 호

대선공약 이행 '다짐'

국민회의 사무총장, 월주스님 예방 농지법 개정등 밝혀

정부와 여당이 농지법시행규칙의 법제화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종교편향과 해불 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작년 대선 당시에 내놓은 대불교계 공약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 정균환사무총장은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해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불교계 공약사항의 이행과 종교편향 사례 해불사건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사무총장에 따르면 조규향 청와대사회복지수석과 이길용 종무실장, 정수부 법제처차장, 박항정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만나 6월 15일 법제처가 반려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법제화한다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이행 다짐 내용
- 농지법시행규칙 법제화
-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 국민회의 종교위원회설치
- 해불사건 강력 대처
- 불교방송 지방망 확충

이와관련 청와대 모임에 참석했던 이길용 종무실장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의견이 모아진 만큼 농림부가 다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면 법제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이끌어 낼 관련 자료들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측은 "법적으로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인정하는데는 여전히 법리상의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관련 정사무총장은 폐지의 당위성을 검토해 정부가 폐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사무총장은 또 정부 인사상의 종교편향과 거듭되는 해불사태에 대해 "당내에 종교위원회를 설치해 종교편향 인사를 억제 하겠으며 해불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교방송의 지방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4개의 지방국과 5개의 중계소 확충을 전향적으로 검토 정부가 인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월주스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불교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현안을 전달, 정부와 여당이 공약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일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인도에 한국 불교유치원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인도 보드가야 동계스와리 인근 11개 마을 어머니회를 조직 하고 10곳의 유치원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인도 수지타아카데미에서 법륜스님과 현지 어머니 · 학생들. <관련기사 23면>

국방부 종교화합 간담회 연다

'성경선서' 송파구청장 사과…강북구청장은 뻣뻣

군내 종파화합 및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종단대표자 초청 간담회와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은 15일 해병대 개신교군종사병들의 서울역앞 집단선교행위와 관련, 국방부를 함의방문한 '종교편향 착결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와의 면담에서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계획을 밝히고 국방장관의 승인까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최 일시는 아직 미정이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개신교 군종파송 교단대표, 천주교 군종교구장과 불교·개신교·천주교 신도대표, 국방장관, 군종실장, 육·해·공군 군종감 등이 참석해 종단협력위원회 발족과 종파협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군종실장은 또 8일 각 군에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 이행 강조' 공문을 보내 비인가된 집단종교행위 금지를 지시했다며, 국방장관 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인용해 "종교편향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군종윤리위원회 회부, 인사조치, 종단지정 재검토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조사위원회는 16일 '성경선서'로 물의를 빚은 김성순 송파구청장과 장정식 강북구청장을 항의방문,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 송파구청장은 "이후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교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타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장 강북구청장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을 종교편향이라고 한의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탄압"이라며 사과를 거절해 '성경선서'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위원회는 또 부산 금선사 사태와 관련해 부산지검 강력부를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정성윤 기자 (swjung@buddhapia.com)



◇김성순 송파구청장은 16일 '성경선서'와 관련 사과 했으나 장정식 강북구청장은 사과를 거부했다(사진).

조계종 총무원 · 종회 종교편향조사위 구성

조계종총무원과 중앙종회 종교편향대책위는 제주도 원명선원 훼불 등 최근 잇따르는 훼불 및 종교편향에 대처키 위해 '국민정부 종교편향 척결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를 14일 구성했다.

공동조사위원은 진관(위원장) 법안 원행(이상 종회의원), 능관(총무원 사회부장) 영배(호법부장) 덕문(문화부장), 종교편향대책위 공동위원장 송강원혜스님, 대책위 사무국장 손상훈씨 등 8명이다.

한편 종교편향대책위는 13일 소식지 1호를 10만부 제작, 배포했다.

정성윤 기자

"원명선원 훼불 유감" 제주 종교인협 성명

제주도내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제주종교인협의회는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명선원 훼불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인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올바로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했다"며 도민앞에 사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불자들에게 같은 종교인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간의 관용과 사랑 자비로 원만히 수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p@buddhapia.com)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성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불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음이 즐거운 어린이 연합캠프에 많은 어린이불자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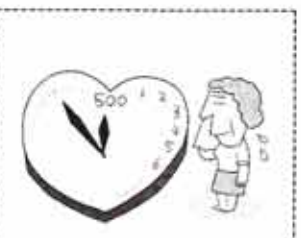
용인 에버랜드 · 사찰에서 '2박3일'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2박3일)
◇장 소: 용주사 신륵사 목아박물관 화우정사 경수사 백련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백명 선착순)
◇특 장: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숙식놀이시설 · 수영장 캐리비안베이시설 이용 아미타전 관람 △불교레크리에이션 · 야침저녁 예절 · 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준비물: 23일 점심, 수영복, 수영모자, 세면도구, 필기도구, 이불
◇집 결: 23일 오전10시 조계사
◇서울도착: 25일 오후6시 조계사
◇참가비: 5만원
◇문 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 · 천각중 통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협찬: 불교조각원 · 현대프로덕션 ·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흔들리는 직장법회 ② 첨체요인 전단 5면
이렇게 들었다 '식물국회' 20면

자원봉사 5백시간



받았다. 물론 5백시간이란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다. 30년 세월의 봉사활동을 시간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전화상담 외에도 거의 매일 노인복지관과 뇌성마비복지관을 찾아 식사며 빨래 봉사를 하는 고보살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봉사의 나날들이다. 그런 고보살의 나날들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둘째 아들이다. 한의사인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두세 차례씩 바쁜 진료시간을 쪼개 상록뇌성마비복지관을 찾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기 그지 없다.

"아들과 함께 복지관에 가는 날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사람을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맞아 주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모자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요."

고보살은 뇌성마비 복지관을 나올때마다 팔공산을 바라 본다. 팔공산 사찰들에 모셔진 부처님들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전생의 어떤 업으로 인해 저토록 불편한 몸을 받고 태어 났는지 모르지만 뇌성마비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화요일이다.

고경순보살(62)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상담 시간이 끝나면 노인무료급식소로 달려가야하고 둘째 아들을 만나 상록뇌성마비복지관에도 가야 한다.

주변에서는 "연세도 많고 회장직도 맡고 있으니 전화 상담은 그만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고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보살은 "현장에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장 소임을 볼 수 있느냐"며 화요일마다 전화 앞에 앉는다. 걸려 오는 전화를 통해 남의 고민을 들어 주고 함께 아파하며 새 길을 찾는 순간마다 고보살은 세상은 혼자 살아 갈 수 없는 인연의 그물 속임을 절감한다.

30년전부터 남을 위한 삶을 살아 온 고보살은 7월 7일 불교사회복지회가 주최한 98자원봉사자대회에서 5백시간 이상 봉사자로 선정돼 상을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답은 글 있었다 - <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 맹 란 자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직장법회 살리자

직장법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불모의 포교환경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해 오던 직장법회들이 IMF의 한파에, 그리고 교계의 지원부족 속에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지난호에 보도한 2백27곳의 직장법회 가운데 81곳이 법회를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직장법회의 위기는 바로 불교 포교의 최첨병이 무너지는 소식이며, 그토록 외쳐왔던 '불교의 사회화'가 단지 소리뿐인 빈 껍데기로 변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직까지는 직장법회가 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직장법회의 위기를 불교 전체의 위기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요,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불교계의 사유를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포교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나마 있는 포교당들도 직장인, 전문인들에까지 미치는 높은 수준의 포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실정에서 직장·직능법회야말로 불교를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정에서 지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또 현대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일가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보다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인간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의 생활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가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어찌 될 것인가. 한 개인이 진정한 불자로서 바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청정한 공동체가 확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직장법회가 다른 종교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불교의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던 직장법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니 이는 바로 현실불교를 버티던 하나의 기둥이 쓰러지는 소리이며, 미래불교 건설의 꿈이 깨어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IMF 한파가 직장법회를 깨뜨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종교의 본분을 망각한 안이한 시각이다. 불교가 IMF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일으켜야 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야 함을 외친다면, 그러한 일은 당연히 직장법회를 통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법회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데는 그 동안 성숙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이념적인 차원에 치우친 법회운영을 해온 직장법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 불자들이 서로 서로의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힘찬 움직임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며, 직장생활의 모든 부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하는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계는 총력을 다하여 직장법회가 이러한 위기를 뚫고 나와 더욱 튼튼한 나무로 자라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과 불교가 따로 떨어져 있고 부처님은 아득히 먼 곳에 숭배의 대상으로만 있는 불교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은행원 부처님·회사원 부처님·노동자 부처님들이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미래의 이상적인 불교가 바로 직장법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국역경원 '올내 한글대장경 완간' 목표수정

재정부족 사전목록류 24권 추가 99년말 308권 '회향'

사전목록류 24권 추가번역간행을 결정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이 〈한글대장경〉 완간을 위한 재정마련에 고심하고 있어, 정부와 교계의 지원이 절실하다.

당초 동국역경원은 올해 말까지 총 2백84권의 한글대장경 간행을 목표로 역경사업을 성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 속에 포함돼 있지만 번역대상에 제외됐던 사전류인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부분과 목록류인 〈개원석교목록(開元釋敎目錄)〉부분의 번역없이는 이미 번역 간행한 한글대장경을 활용할 수 없다는 교계의 여론에 따라 번역기간을 99년 말까지 연장하고, 2000년 부처님오신날에 회향법회를 거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말까지 24권이 추가 번역돼 총 308권의 〈한글대장경〉이 간행될 계획이다.

사전목록류 추가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경원은 예산 조달을 위해 2일 문화관광부에 99년 국고지원 신규예산신청분 3억4천9백만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동국역경원은 추가 번역 간행에 따른 인력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재정마련에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 역경사업은 국고지원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 보덕학회, 역경후원회 등의 후원금으로 어렵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총무원의 지원도 60%가 급감한데가 IMF이후 가뜩이나 수요자가 한정돼있는 〈한글대장경〉 수요량이 반으로 급감해 이리저리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동국역경원은 정부의 국고지원이 성사되면 지속적인 역경사업 홍보와 증단과 불자들의 지원 등으로 나머지 비용을 마련, 99년 말까지 〈한글대장경〉을 완간할 계획이다.

불교계 숙원사업으로 지난 64년에 시작된 고려대장경 번역사업은 80년이후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다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활기를 되찾아 94년~98년 말까지 국고지원에 힘입어 고려대장경 가운데 경율론 삼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번역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동국역경원 최철환부장은 "명실상부한 〈한글대장경〉 완역의 위의를 갖추기 위해서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을 한글화 하는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종도들의 관심과 배려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고운사 차기주지에

법조스님 재추대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16일 산중총회를 열어 차기 주지 추천자로 현주지 법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법조스님은 정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58년 사미계를 6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조계종 제9대 종회의원 옥천사주지등을 역임했다. 법조스님은 "교구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군포교 30년사' 내년초 나온다

군승단 30년기념 11월 세미나 등 추진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오는 11월 군포교 30주년을 맞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기념법회 △군포교 사진전 △〈군포교 30년사〉 발간 등의 기념사업을 펼친다. 이희용 군승단장은 14일 교계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곧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포교 30년사〉 발간과 관련, 내년 초 발간을 목표로 이미 장성환법사(7군단 상승사)를 편찬위원장으로 선임해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희용 군승단장은 "기념사업을 통해 군승단의 화합을 도모하고 21세기 군포교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윤 기자

도안스님 22일 방북

금강국수공장 현황점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미주본부장 도안스님이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운영 점검과 2차 원료지원을 위해 22일 방북한다.

19일 한국을 거쳐 22일 북경에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도안스님은 금강국수공장을 들러 지난 5월 가동을 시작한 금강국수공장의 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강국수공장 2차 지원분으로 밀가루 60톤(싯가 1만5천달러)을 조불련측을 통해 전달한다.

6월15일 조불련측이 제안해온 '불교지도자 합동법회'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진각종-조불련 27일 북경회담

방북·심인당 개설 논의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정사(총무부장)와 지현정사(진각복지회 국장)가 27일 북경에서 조불련 관계자를 만나 남북불교교류 모색를 위한 준비회담을 갖는다.

20일 국제불교연구소문을 연 이래 첫 대북접촉인 이번 회담에서는 통리원장을 비롯한 진각종 대표단 방북문제와 북한내 심인당 및 복지관 개설 등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는 조불련 책임지도원 류인수씨를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중신회 회장직대에 홍옥진씨 선임

회장사퇴 갈등 '수습국면'

내홍을 겪었던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회장직무대행에 홍옥진 부회장(조계사신도회 상임고문)을 선임함으로써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중앙신도회는 14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송재건회장이 사임했으므로 회칙에 의거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인 홍옥진씨에게 회장직무를 대행키로 하는 한편 향후 중앙신도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회칙 제24조에는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은 13일 "총무원이 중앙신도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중앙신도회에서 회칙에 의거해 직무대행자를 정해 조속한 정상화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송회장에게 전달했다.

홍옥진 회장직무대행은 "대의원총회 개최 등 향후 일정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칙에는 임원 결원시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임기가 6개월 남짓이어서 회장선출 이전에 회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송재건 회장의 거듭된 사퇴의사 표명과 직무대행 승계에 대한 적법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성윤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침 본지 182호 2면 종교 편향대책위 관련사진이 한중일불교교류위 사진으로 잘못 게재됐기에 사과드립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과의 약속이니 꼭!

구독료를 자동이체 하면 편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란?
구독자의 통장계좌에서 현대불교신문의 통장계좌로 매월 구독료가 자동으로 지불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이렇게 좋습니다!
①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낭비도 없습니다.
② 같은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③ 본사는 매달 구독료 청구 지로를 발송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도 간소화 됩니다.
④ 6개월이상 계속 자동납부를 하시는 독자에게는 사은품으로 대나무찻잔을 증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은행에서 직접 신청
◇준비물: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해당은행의 신문사 이체 계좌번호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정확한 수납관리를 위하여 신청후 꼭 구독료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확인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자동이체 현대불교신문사 계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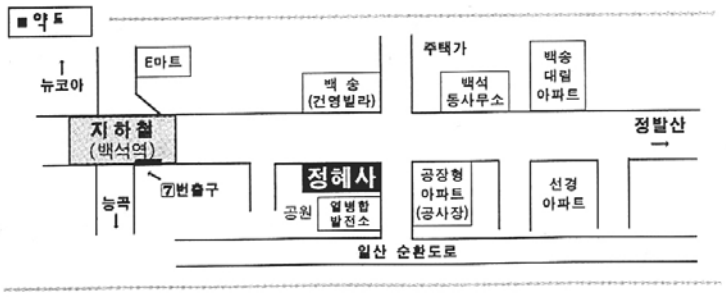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평화은행	052-25-0001-512
농협중앙회	053-01-227471	보람은행	002-22-00951-0
한일은행	082-031951-01-201	주택은행	504537-01-000064
신한은행	324-05-012374	외환은행	150-22-01008-2
조흥은행	322-03-00314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상업은행	113-04-106884
제주(지방)은행	50-01-124050	한미은행	100-51057-249
제일은행	100-20-14486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8-2269109		

불자와 청소년들의 야영장·수련장설립부지 마련을 위한

『땅 한평 사기』 불사 모연문



■ 약도



⊙ 한 평의 땅이 불국토(佛國土)가 됩니다. ⊙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 세우신지 이천오백여년 이 땅에 불법 전래된지 천이백여년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근기는 나약하여 참됨은 아나 행동하기 어려워 시절을 탓하여 말법이라하고 말세라 합니다.
부처님 법에는 성세가 없으나 인간의 약한 근기가 법은 멀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에 정혜사에서는 부처님 전에 10만 등 밝히는 마음으로 불자와 청소년들의 야영장과 수련장 설립부지 마련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불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이수련과 수행으로 부처를 이루게 하고 한 평 한 평의 작은 땅이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으로 무상 복전의 복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불사 내용
- 매입 예상 부지 약 10만평
- 기간 1998 ~2,000년까지
- 땅 한 평 동참가격 10,000원
- 외환은행통장 355-13-00166-3 정혜사

♣ 정혜사 법회 일시

구분			시간
기도 및 불공	매일	사시	오전 10:00 ~ 11:00
		저녁	오후 7:00 ~ 8:00
	재일	초하루	매월 음력 1일 오전 10:00
		보름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00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00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00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0번지 ☎ 0344)907-8900~1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일산 분원 정혜사 주지 정안

행자교육 질 향상 "의견일치"

조계종 교육원 '기초교육 개선' 공청회

교과목 조정 "육체적 수련 탈피해야"

행자교육기간 "3주교육 짧다 … 4주로"

상설행자교육장 "승가교육기관 활용"

15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의 주최로 열린 '기초교육 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행자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교과목 조정, 행자교육기간 연장, 상설행자교육장 마련 등 교과과정과 행자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교과목 조정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은 "행자교육원에서의 지나친 육체적 훈련과정은 종단 전체의 교육과정에서 볼 때 역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있다"면서 "일보삼배, 운력, 오후불식 등 육체적 수련에 치중돼 있는 교육부분을 개선토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행자교육은 포교와 수행 등 평생승려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원로스님이나 사회인사들의 경험담 등 특강마련도 그 방법중 하나"라고 말했다.

"행자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승가의 일원으로서 느낌을 심어주는 교육이 돼야한다"고 전제한 본각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은 "현재의 본사와 교육원의 이중구조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교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은 재적사찰에서 사전교육차원에서 지도하고, 행자교육원에서는 조계종지와 선종핵심선지,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실천교육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율장중심적인 교육보다는 경율론 삼장을 고르게 교육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신심을 유도하는 합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 종광스님(중회 교육분과위원장)은 "행자교육원 입방에 앞서 6개월간의 본사교육이 행자교육의 가장 기초기 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는 본사의 행자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본사교육의 체계확립을 위해 법산스님(동국대 교수)은 "6개월간의 사찰 행자교육기간동안 실행할 수 있는 월정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만들어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며 중복교육을 피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증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자교육기간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현행 3주의 행자교육원 교육기간이 짧다는데 동감했는데 밀원스님(불학연구소장)은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자교육기간을 1주 늘릴수도 줄일수 도 있다"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과목은 쉽게하면서도 신앙중심의 정신훈련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비스님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가을에 열리는 제15기 행자교육원에서는 기간을 4주로 늘리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행자교육장 설립 일연스님은 "상설행자교육장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면서 "앞으로 여행자교육을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은 "행자교육원을 교육부로부터 정식 승려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아 기초교육제도를 제도권 교육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원스님은 "상설교육장 설립보다는 기존의 중앙승가대 동국대 지방승가대 등을 이용해 행자교육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타 우진스님(통도사 승가대학 교수)은 "초심류 성직자 양성위해 다수보다는 소수인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행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직자 습의사 양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공청회에는 실질적으로 행자교육을 맡고 있는 율사스님들이 모두 불참해 행자교육 교과과정 개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남겼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원장 암도스님이 "앞으로 종단차원에서 행자를 모집, 전국 본사로 다시 분출하는 종단주도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 지정토론자로 나선 스님들은 시대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행자교육에 대한 열띤토론을 벌였다.

공청회 발제문 요지

행자는 승가의 2세다. 그동안 우리는 2세 교육인 행자교육에 너무나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현 시대를 살고있는 행자들을 위해 시대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방법을 수용한 행자교육이 필요하다.

현행 행자교육원의 교육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교육 가운데 정진시간이 33.5%로 가장 많으며 강의 시간은 17.5%에 불과해 육체적 훈련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제1기부터 14기까지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재적사찰과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교육기관과 기본교육기관간의 교육목표와 방법 그리고 내용이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종단적 차원의 행자교육 체계확립과 교과목 개선은 필요불가결하다.

균형적인 교육과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 수도와 교화의 기초를 이루는 교과과정이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교과목 개선안을 제안한다.

수도와 교화의 기초를 이루는 교과목으로 불교기초교리·일상의식·보현행원품 등을, 불교사·조계종사·고승전 등은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이루는 교과목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출가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승가규범을 익힐 수 있는 교과목으로는 부처님의 생애·사미(니)율의 위의문·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등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시간은 강의시간을 확충하고, 교과목도 기존의 5과목에서 9~10과목으로 증편해야 한다. 또한 사찰구조의 이해, 좌선의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특히 행자교육원 실시 이후 계속 거론돼 온 상설행자교육장의 설립을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종단과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궈내야 한다.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목어

2000년을 앞두고

지금은 20세기말. 미국인 마크 R 미튼은 최근 펴낸 '2000년을 앞두고 해야할 1000가지 일'에서 지금이야말로 '성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차분히 주변을 돌아보자는 미튼의 1000가지 할일 중에서 10가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①평소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라. ②은퇴한 선배나 은사를 찾아뵈어라. ③행복했던 날을 회상하라. ④하고 싶었던 일과 한일의 대차대조표를 만들라. ⑤가족사를 정리하라. ⑥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친지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만 들 라 . ⑦고향집을 찾으라. ⑧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신문광고를 내라. ⑨가족과 저녁식사를 자주하라. ⑩학창시절 본 책을 다시 펼쳐보라.

이 10가지만 읽어도 바쁘게 뛰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숨을 돌려 호흡을 가다듬게 된다. 어떤이들은 그럴새가 어디 있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실천 할 수 없더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제안에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 자성, 나눔, 진실, 인정, 회상, 사색, 꿈 등이 담겨있다. 이런 단어들은 기계적인 일중독에서 벗어나 지극히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행을 해야지, 선배나 은사를 찾아 뵈어야지, 생각만으로도 가슴뿌듯한 일이다. 행복했던 날의 회상은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가끔 인생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자기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만약 흑자이면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적자이면 잘 살수 있도록 새 삶을 설계하면 된다. 가족사를 정리하다보면 인연의 소중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친지들과 자주 만나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함은 따뜻한 사회를 가꾸는 기본요소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것이다. 학창시절에 본 책을 다시 펼치면 풋풋했던 꿈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작은 일 같지만 소중한 일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애정을 갖는 것"이란 말이 있다. 자기를 애정으로 성찰하고 나와 인연지어진 '관계'를 애정으로 가꿀때 지금은 물론 내일 그리고 '새로운 천년'에 꿈과 진실이 가득할 것이다.

잇단 훼불-공약 불이행 '달래기'

국민회의 사무총장 조계종에 왜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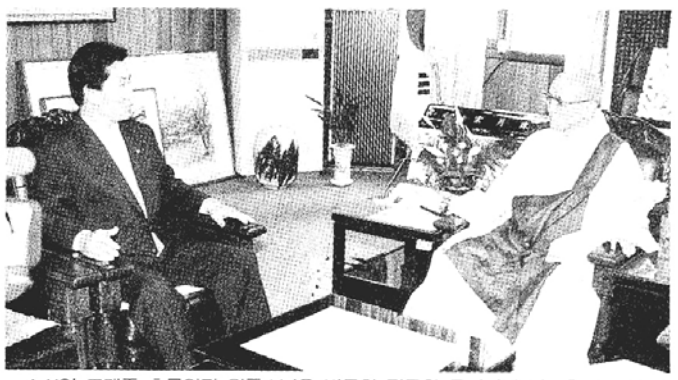
정균환 국민회의 사무총장은 의외로 많은 선물브따리를 가지고 14일 조계종을 방문했다. 정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교계는 여러 갈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월 새정부 출범 이후 대불교계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교계의 여론을 의식한 방문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견해다. 공약사항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가 법제처의 반려와 기획예산위의 국가예산지원 중단 검토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백지화 일로에 빠진데 대해 불교계는 상당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사무총장이 월주스님을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뒤 가장 먼저 이 두가지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읽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종교편향과 훼불 사태로 잔뜩 화가 난 '불심'을 달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시각도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정부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각부처의 장관 임명에서 극소수의 불자가 기용된 것과 관련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과 최근의 편향 훼불 사건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 불교계의 시각을 정부와 여권이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관련 정사무총장은 월주스님에게 "인사상 편향적 인상을 심어준 것은 대선직후 당내의 불교특위가 해체되어 불교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용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당내에 종교위원회의 설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사무총장의 월주스님 예방이 21일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방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정부출범 이후 그간 방치하다시피 해 온 대선 공약사항들의 이행 추진 현황을 강조하며 불교계를 방문한 것은 지방 재보선 선거를 앞둔 '불심잡기'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사무총장이 "지난 대선때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로 월주스님과의 인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재보선 선거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도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월주스님은 정사무총장에게 △농지관련법 개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 보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허가 △불교중앙 박물관 및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남북불교 교류 지원 △황룡사 미륵사등 사사지 복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계사 경내지 정비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 했다. 대부분 김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사무총장은 긍정적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정균환 국민회의 사무총장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등 교계 현안에 대한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월주스님 문화재보존 등 11개항 '요구'
재보선 선거 불심잡기 방문 시각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월주스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은 사회 각계가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난국 극복에 호흡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김수환추기경과 강원룡목사 등 각종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임을 강조했다.

새정부 출범후 여당의 대표자로서는 처음 조계종을 방문한 정사무총장의 행보가 공약불이행에 대한 반감과 잇다른 종교편향과 훼불사건으로 인해 '화가난 불심'에 어떤 처방전으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나라가 어려울 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금강산 건봉사 성지대회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 금강산 건봉사에서 아미타 염불 성지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1998년 8월 5일~7일(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참 가 비 : 3만원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신청방법 :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 문 의 : 02)732-1215~7

(서울·경기 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시 간 : 1998년 8월 5일 오전 9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5,000원을 미리 접수 바람)

- 은행구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 : 023-21-0667-309
  조흥은행 : 390-04-249351
  농 협 : 053-02-128104
  우 체 국 : 013029-0024268
  외환은행 : 173-18-10454-9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시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연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가정에서 매일 염불기도 하실 수 있는 회원수첩을 드립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IMF극복과 통일을 위한

전국 염불만일 정토법회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정토법회를 염불 큰스님과 대법사님을 모시고 마련하오니 아미타부처님과의 만남의 장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동산교육회관(안국동 로터리)
- ㅁ 7월 26일(일요일) 정토법회 : 법사 한탑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지방 거주자를 위하여 정토법회 통신생을 모집함. 희망자는 전화신청 바람.

일 시	법 사	일 시	법 사
8월 2일	혜경 스님(무설정사 주지)	9월 6일	장휘옥 교수(동국대 교수)
9일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13일	채인환 스님(동국대 교수)
16일	정태혁 교수(정토학술회장)	20일	한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23일	태원 스님(승가대 교수)	27일	장휘옥 교수(동국대 교수)
30일	무진장 스님(전 포교원장)		

※10월 이후는 큰스님과 대덕교수님을 모시고 법회를 엽니다.

전국 念佛萬日會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 02)732-1215~7 FAX :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포교·복지 불사에 역량 결집"

동국대 동림동문회장 자용스님



"승가교육의 정비와 신도 교화의 활성화, 포교와 사회복지사업 등 백년대계 불사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동림동문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자용스님(수국사 주지).

스님은 '중생들이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而於衆生猶如橋梁)'는 〈유마경〉 불도품을 인용하며 "경제위기, 공해와 질병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難題)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스님은 "전국의 사찰과 포교당에서 전법도생(傳法度生)에 매진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편, 대승적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사색과 강한 행동력을 결집시켜 한국불교의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자들에 전통시가 알리고 싶어"

직지사에 장서 4천권 기증 정완영시인



4천여권의 장서를 비롯해 만년필, 지팡이 등 자신이 쓰던 물건을 2일 경북 김천 직지사로 보낸 80세의 원로 문인 백수(白水) 정완영씨.

"녹원스님께서 제 개인 시조 문학관을 세워달라는 청을 받아주셨어요. 직지사에서 30리쯤 떨어져 있는 금릉이 고향이거든요. 어렸을 때 자주 오르내렸던 직지사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 지금 사는 연립주택마저 팔아야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천권의 책과 물건들을 지니고 있기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4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쓰면서 외로울 때마다 펴보던 일기장도 함께 실려가던 날 노시인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새 희망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내년쯤 문학관이 세워지면 불자들에게 우리 전통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고향인 부처님 곁으로 돌아갔으니 그래도 덜 서운하다는 정완영 시인. 하지만 전통시를 지킬줄 모르는 이 사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덜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국민은행: 023-21-0551-926
- ●조흥은행: 390-04-261032
- ●농 협: 053-12-053051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조계종 제2 보현의 집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제2 보현의집(원장 능관)'을 개원했다. 80평 규모의 2층 단독건물에 마련된 보현의집은 실직자들을 위한 종합복지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잠자리 제공, 실직자 자녀 일시보호 및 결연사업, 취업·법률·의료·가정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 실직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게 된다.



마창·진해 사암련 경제난 극복법회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경호·원각사 주지)와 진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운·정암사 주지)는 11일 성주사 대웅전에서 '지역 경제난 극복과 시민안녕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마산·창원·진해시 민선2기 출범을 기념해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지원(성덕암) 벽봉(보은사) 스님을 비롯 김인규 마산시장, 김병로 진해시장 등 3백여명이 참석, 경제난 극복을 발원했다.



직지사 첫 군불자 합동 수계식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12일 만덕전에서 관내 군불자장병 1백95명을 대상으로 제1회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계사인 법등스님은 "군수계법회는 교사불자회 운전불자회 등을 조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군장병들의 정신전력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계를 받은 군불자들 가운데 장기자랑을 통해 선발된 5명의 장병이 포상휴가를 떠나기도 했다.

교차로

27일 천안 천불암서 법문



도견 조계종 원로의원 스님은 27일 천안 천불암에서 봉행되는 큰스님초청법회에 참석 법문한다. 천불암은 매월 음력 5일 큰스님초청법회를 연다.

청소년 환경포스터 전시회



성타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회장 스님은 11일 동대문구문화회관에서 제4회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했다.

하계 출가수련 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는 28~31일, 8월6~9일 두 차례에 걸쳐 하계신행출가수련법회를 봉행한다. (0346)555-5974

도선사 1천불 점안식

동광 도선사 주지는 11일 도선사 참회원 대강당에서 제2차 1천불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1만불 조성 대불사를 벌리고 있는 도선사는 지금까지 3천불을 봉안했다.

광동학원 재단 합동 연수



일면 광동학원이사장 스님은 20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여고·중학교·종합고 교직원 1백50명이 참가한 재단합동연수를 실시했다.

구민회관서 도자기 전시

각현 연꽃가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스님은 24일 오후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복지센터 노인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 전시회를 갖는다. 인천 송원요 대표 천세영씨는 도자기 제품을 기증, 판매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실직자 돕기 1백만원 기탁



원행 동해삼화사 주지는 13일 삼척MBC에 실직자돕기 성금 1백여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12일 봉행된 생전예수재에서 실직자돕기모금활동을 결쳐 마련된 것이다.

공주청소년봉사단 발대



환성 청교련공주지부장 스님은 11일 백제체육관에서 공주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청소년 어울마당을 가졌다.

어린이 포교 백일기도



법현 레크리에이션포교회장 스님은 17일 정릉 천중사에서 '어린이와 레크리에이션포교 발전 기원 천일기도' 제1차 백일기도를 입제했다.

'살풀이 춤' 이수자로 선정



법우 대전 현불사 주지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춤' 이수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고문 변호사에



안동일 변호사(중앙신도회 부회장, 재가불자연합회장)는 13일 조계종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충청지역 사찰 정기답사



전연호 동국불교미술인회장은 11~12일 갑사 마곡사 등 충청지역 사찰에서 정기학술답사를 실시했다.

"재래기와보다 내구성·미관 우수"

6백년만에 청동기와 재현 손동일씨



"부처님을 모시는 집이 비가 새 썩어 쓰러지는 것이 안타까워 청동주물기와 복원에 나섰습니다."

8개월간 일체 다른 일에서 손떼고 청동주물기와 복원에 몰두, 6백년만에 재현해낸 불교조각가 손동일씨(42).

불교조각을 천직으로 여겨오던 손씨는 청동주물기와를 복원하기 위해 서울대 이영배명예교수의 고증을 받아 재래식 기와의 장단점을 파악 했다. 또 8개월간 조각 주문을 받지 않은 채 일을 하다보니 거래처가 점점 끊기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손씨가 복원해낸 청동주물기와는 1360년경 중창된 통도사 법당에서 몇점 발견되기도 했지만 많은 전란을 거치면서 무기로 재활용돼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재래식기와보다 가볍고, 영구적이며, 외관상 고풍미가 더해져 사찰건축물에 적합하다. 또 시공방법이 재래식기와와 똑같아 전통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95년 황룡사 치미를 청동주물로 재현, 천안 각원사에 시공하기도 했던 손동일씨는 "앞으로 성철스님 등 고승들의 모습을 제작,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그 높으신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제8대 이사장 취임



불교교화원 이사장 운월스님 취임

한국불교교화원 제8대 이사장 운월스님 취임식이 1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불교교화원 이의윤총재, 보현사주지 정진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사장 운월스님(불교여래원 원장)은 "무명과 무지를 지혜의 빛으로 깨뜨려 나가는 구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며 절대귀명심으로 사회의 불국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이웃과…' 행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혜창)은 10일 본관 3층 식당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초복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1백20명이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는 음식공양과 보장구 기증식,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결쳐졌다. 이날 보장구 수혜자는 모두 6명으로 윤현정·박연서씨가 휠체어를, 최일용씨 등 4명이 알미늄 목발, 크라지, 에어매트를 증정받았다.



돌풍부대 석림사 삼존불 봉안

경기도 육군 돌풍부대 석림사 삼존불 점안법회가 13일 법타스님(영천 은해사주지) 법륜스님(심우회 지도법사) 호택스님(법음사주지) 부대장 한승민대령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석림사는 4월부터 양춘연보살을 비롯하여 불자들이 합심하여 법당증축, 요사채, 급수시설및 각종 편의시설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날 완공을 보게됐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月 31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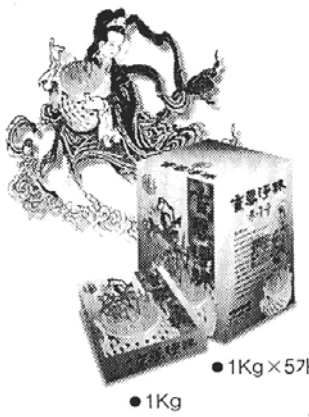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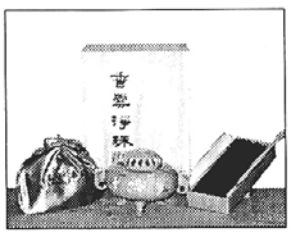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실용신안등록 97-18095



●1Kg×5개

●1Kg



●향운정주 SET
(향운정주, 청자항로, 고급향)

주식회사 세호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7-30
전화 : (02)272-8886(대)
팩스 : (02)278-6675

전국취급점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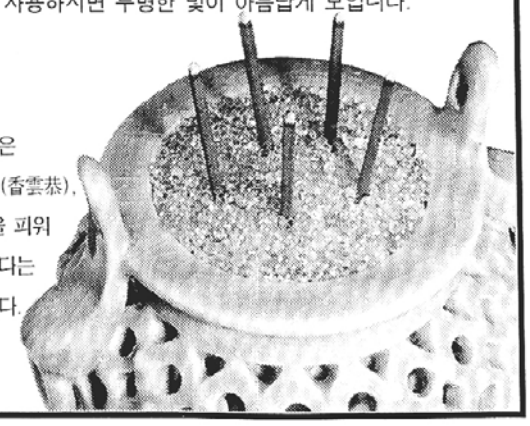
향로에 넣는 유리구슬 -

향운정주

香雲淨珠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의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향운"은 향운공(香雲恭),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① 직장법회 현주소
② 침체요인 진단
③ 활성화 방안

법사 부족 운영비 바닥

종단 무관심 '구멍'…친목위주 운영 한계
개신교 2천여모임 전담사목 배치와 대조

직장법회는 회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직업이 같아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교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교계의 취약점인 거사불교를 융성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런만큼 직장법회 활성화는 불교현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교계의 직장법회는 80년대부터 붐을 일으키며 창립되기 시작해 현재 2백27곳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IMF한파가 닥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 81곳이 법회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직장법회가 침체되는 요인은 법사부재, 스님이나 종단의 관심부족, 법회장소 미확보, 재정의 어려움, 종교단체로서 직장내 운신의 어려움, 회원의 잦은 전출·퇴직, 회원의 소극성 등이 지적된다.

직장법회 최고의 걸림돌은 법사 부재. 법회 때마다 법사초청 문제로 많은시간을 회장단이 할애하고 그나마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상임법사를 모시기가 어렵다.

스님들의 무관심과 종단의 종책지원도 미미하다. 종단에서 직장법회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은 물론 직장불자회 임원들을 위한 교육등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96년 조계종종회 포교분과위가 현황자료를 펴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크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불자회는 회운영비 충당과 장소대여비, 법사초청비지출등 빠듯하다. 회원이 많은 경우는 부담이 적으나 보통 30~40명 수준에 열성회원이 15명 안팎에 불과한 불자회들은 임원들의 부담이 크다.

한일은행불교신행회 한우진회장은 "타 종교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며 "불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사지원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종교단체이다보니 창립에 애로를 겪고 운영에도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 경남 현대정공(주)의 경우 초파일 등(燈)을 회사건물에 거는 문제로 기독신우회와 충돌하여 회사에서 두 단체를 비공식으로 인가해 지원비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불자들의 신심결여와 친목모임 형식이 강하다는 것도 꼽힌다. 친목 위주 운영은 법회가 형식화되면서 불자회도 열의가 있던 처음과는 달리 지속적이지 못한 신행생활로 인해 시들해진다는 것이다.


◇직장법회중 공무원불자회 창립이 늘고 있다. 사진은 4월10일 창립된 김천시청 법명회.

또 직장법회 특유의 열성회원 전출 그리고 퇴직으로 인한 지속성 결여도 한 요인이다. 불자회는 운영이 학생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열성불자가 활동을 못할때 직장법회도 활동이 중단돼 버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직장법회는 교권수호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서울 한 구청의 공무원불자는 "사회속에서 정책적으로 포교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직장법회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정권 아래 자행된 종교편향의 근본요인은 교계의 직장법회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다는 여론이다. 행정부에 불자회가 구성된 곳은 한곳도 없다. 중앙정부기관중 6월에 창립된 감사원불자회와 지난해 창립된 청와대불자회가 있으나 청와대불자회는 정권교체후 해체위기다.

보건복지부나 문화부, 교육부의 종교·문화정책이 타종교위주 편성도 이와 관련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조직화에 성공한 개신교계는 불교보다 10배가 많은 2천여곳의 직장신우회와 은행등 5백~1천여개의 단위 신우회를 갖고 있는 연합단체도 27곳이 있다. 81년 창립된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는 전국 15개 지부가 결성돼 있으며 △담임목사 배치 △직장선교신문 발행 △직장선교대학 운영 △교회와 결연으로 직장인 정오예배 활성화를 지원한다.

천주교는 각 교구별로 직장사목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직장인들이 많은 종로 여의도 마포등 5곳의 성당에 직장을 전담하는 사목사제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새로 입문하여 교육받는 예비자교육도 직장내에서 이뤄진다.

교계의 직장법회는 타종교와 달리 90%가 자체적으로 창립됐다. 그런만큼 열성적인 회원이 존재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갖고 맞들면 활성화도 어렵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직장법회의 탄생은 동료직원들을 불자화하는 포교효과와 더불어 교계를 외호하는 탄력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국 직장·직능법회

지역(직장)	단 체 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동국대불자교수회	하천택	02)260-3155
	동국대보현회		02)260-3476
	동국대관음회		02)260-3471
	농업협동조합불교회		02)397-6170
	수협중앙회불자회		02)240-2801
	외환은행불교법우회		02)729-8695
	제일은행불교회		
	조흥은행불교회	김승무	02)273-8340
	한국수출입은행불교회	임성수	02)784-1021
	한은불교회	홍순우	02)759-5063
	한국증권거래소법우회	이광수	02)3774-8842
	의료보험조합보련회	오장영	02)705-6114
	서울시청심원회	조경봉	02)731-6101
	경향신문불교법우회		02)3701-1081
	성북구청법륜회		02)920-3435
	중구청반야회	김용중	02)260-1413
	구로전동차법우회	박창식	02)851-9050
	서울동차불교법우회	미하기	02)795-0035
	서울지하철법우회	신철호	02)412-0108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	이경구	02)965-9224
	국민체육공단무량회	손영철	02)4101-314
	KBS불교연구회	김학선	02)781-2310
	MBC불교연구회	유희근	02)789-2323
	sbs불교연구회		
	한국전력반야회	정원용	02)550-3114
	신한국당불교신도회	함종한	02)784-2375
	국민회의연등회	박상규	02)784-2060
	자민련불자회	정상구	02)784-1734
	국회직원불교신도회	이남이	02)788-2434
	감사원불자회	이금복	02)7219-308
	한국통신불자회	김순수	02)526-5610
	서울시보건환경련	신재영	02)570-3426
	금융결제원불자회	조화제	02)531-1070
	국세청보리회	조원제	02)397-1335
	다르마법우회	배성효	02)882-2114
	서초고법반야회	김명수	02)530-1075
	국립의료원법우회	김명회	02)265-9130
	노량진수산시장불자회	신대수	02)812-7749
	불교방송육아회		
	한국화약불자회	김동신	02)880-3435
	한국산업불교회	이형관	02)398-6798
	상업은행불교법우회	장정문	02)754-3112
	불교방우회	이부재	02)3709-5410
	한일은행불교신행회	한우진	02)3481-1801
	중소기업은행불심회	김일두	02)720-7958
	청와대불교신행회		
부산	동아대교수불자회	손병규	051)200-2717
	해양대학불교교수회	손영림	051)410-4432
	서울은행불자회	정진욱	051)802-5381
	상업은행불자회	하명환	051)541-3001
	부산불교불심회	이종남	051)971-0152
	부산불교수계회	이창우	051)324-5502
	신한국당부산불교신도회	백봉도	051)625-7176
	대우자동차법우회	권의발	051)811-4152
	관음정사바라밀청년회	김현주	051)784-0678

지역(직장)	단 체 명	회장	전화번호
부산	부산대학교교수불자회	이준기	051)510-2119
	글로리콘도선정회	양남식	051)746-8181
	부경대학교불자교수회	하만경	051)620-1597
	동아의료원불자회	이기복	051)240-2111
	대우정밀법우회		
	대우자동차법우회	김석홍	051)811-4087
	부산대병원불교법우회	황보선	051)240-7752
	부산시립의료원불자회	이장수	051)850-0243
	부산시청법우회	최익두	051)868-2000
	부산백병원불교법우회	이영애	051)890-6552
	부산농협법우회		
	MBC불교연구회	김종환	051)760-1000
	부산·경남연등회	사상호	051)852-0813
	KBS불교연구회	손무열	051)620-7310
	부산시의회정각회	권영석	051)866-3331
대구	한일은행반야회		
	수성구청법우회	신상희	053)740-0260
	동구청일심회	이종수	053)955-9676
	한국통신진여회	전상윤	053)625-2200
	담배인삼공사정각회	송충태	053)251-7173
	대구경찰청법우회	조구이	053)423-9881
	교도소불심회	이무양	053)632-4501
	영남의료원영불회	강복수	053)620-4496
	대한주택석불회	김동명	053)760-7476
	광역시청유마회	김문장원	053)499-3510
	법륜불자교수회	정희돈	053)810-2942
	경북대병원법우회	정상립	053)422-1141
	경북도청불자회	오장홍	053)943-0811
	KBS불심회	이춘달	053)757-7531
	MBC불교연구회	전병찬	053)744-5001
대전	대전기관차법우회	박청배	042)253-7457
	대전교도소불자회	정진우	042)544-9501
	한국인삼연구소연구원불교회	한상빈	042)866-5594
	한국원자력연구소성불회	윤형모	042)868-8279
	한국전자력연구소성불회	이희태	042)860-6247
	한국담배인삼공사정각불자회	이관구	042)939-5452
	국방과학연구소성불회	윤동수	042)821-4506
	한국화학연구소성불회	이희태	042)860-6247
	대원회(충남대교수불자회)	이광재	042)821-6529
	KBS불교연구회	이석봉	042)470-7320
경기	서울대농불당	전재근	0331)290-2114
	국토개발연구소국불회	사공호임	0343)80-0122
	안양교도소성불회	변춘연	0343)52-2182
	LG전자불심회	류성균	0333)610-5023
	서울구치소불심회	임장수	0343)23-6100
	경찰대학직원불자회	이관희	0331)284-C906
	경기도청불자회	조한유	0331)249-2080
	경기은행불자회	박종국	032)883-7861
충청	고려인삼창불교신도회	곽병출	0463)30-3286
	한국동서충북불교연합회	김영한	0431)66-1000
	제철기관차법우회	이성호	0443)44-8809
	한국조폐공사법우회	김재환	0475)32-9811
	육해공합기계보리수회	박인옥	0475)32-1151
	충주산업대학교교수불자회	강신덕	0441)80-5128
	한국담배인삼법우회	박동훈	0431)220-C233
	충북불교교수회	김동한	0431)61-8722

지역(직장)	단 체 명	회장	전화번호
경북	동국대경주병원불교회	이영현	0561)770-8203
	농협불자회		
	경주소방소팔등회	권오열	0561)44-6119
	풍산금속불자회	최인식	0561)761-2121
	울진원자력발전소운수회	성락술	0565)80-2470
	한국조폐공사금강회	이춘희	053)810-0400
	월성원자력발전소반야회	윤재황	0561)779-2227
	상주산업대교직원법우회	김명환	0582)30-5128
	동국대분수회	정성호	0561)770-2053
	동국대교수불자회	김용택	0561)770-2180
	동국대포항병원불교회	옥진호	0562)73-8111
경남	삼성정밀불자회	박동호	052)270-9670
	한국카르로분심회	강청수	052)50-3226
	현대미포조선불자회	윤순진	052)231-9114
	풍산금속불자회	강호돈	052)219-2459
	현대자동차불자회	곽충형	0591)761-5244
	경상대학교교수불자회	한인근	0591)749-2374
	진주시청선우회	한은갑	0591)41-2181
	진주교도소불자회	최영근	0553)42-8033
	해군부대보현회	이점숙	0553)49-4141
	해군부대연등회	홍경복	0551)60-8298
	삼성중공업불교법우회	이상록	0551)80-6687
	대우중공업불교법우회	한용복	0551)69-2613
	현대정공(주)불교법우회		
	LG연공회	이금대	0551)68-9894
	효성직장법우회	왕왕규	0551)78-4867
	한중법우회	박종일	0551)71-9761
	월영사법우회		
	삼미특수강직장법우회	이관상	0551)55-3133
	마산중부경찰서불경회	강현선	0551)47-7382
	선재법우회		
	기아기공불심기불심	황용수	0551)41-8590
	한일법우상조회	이석태	0551)681-5781
	대우불교청년회	김병철	0551)80-7151
	창원KBS불심회	남정호	0531)70-7310
	진주KBS불교연구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한국은행무심회	정영숙	062)220-1513
	전남대교수불교모임	김현곤	062)520-6857
	조선대교수불자협의회	조 징	062)230-7153
	전남대덕림회	이상채	062)520-6147
	금호불교연구회		
	LG연등회		
	화천기공목탁회		
	전북대학교교직원불교회	윤석조	0652)70-2161
	전북도청연우회	권무삼	0652)226-7878
	전북경찰청무불회	윤광심	0652)230-2391
	정읍전화국연지회		
	북전주전화국연지회		
	전주교도소성불회	구병원	0652)224-4361
	영광원자력발전소선우회		
	제주KBS불교연구회	김승조	064)40-7521
	목포KBS불심회	김남수	0631)70-7310
강원	원주시청법우회	장만복	0371)741-2390
	쌍용양회선우회	권철진	0373)72-9800
	강원대무문관	강영옥	0361)50-6715
	KBS원주방송국법우회	정규용	0371)760-7310
	담배인삼공사법우회	박신영	0371)41-4728
	강릉경찰서불자회	김태식	0391)653-3373
	속초KBS불심회	이두경	0392)639-7140

지역(직능)	단 체 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교수불자연합회	오상환	02)720-6618
	국회모정각회	서석재	02)784-3280
	대한불교약사회	윤성용	02)856-3674
	BBS교통통신원불자회	염한기	02)705-5151
	불교법조인회	김홍근	02)536-9543
	세무사불자회	송호승	02)598-7300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규	02)713-2905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완숙	02)552-2517
	한국불교기자협회	하문상	02)734-0777
	한국연예인불자회	송 해	02)739-8163
	한국불교예술인협회	이상동	02)665-0533
	전국방송인불자연합회	김학선	02)781-2310
	한국불교미술인협회	박찬갑	0336)638-2751
	전국불자교정인연합	오희창	02)619-2781
	전국금융단불교연합	하용이	02)759-4505
	반야타이온스클럽	강찬임	02)816-4252
	한국불교언론인회	신광식	02)719-4083
부산	부산불교운전기사회	고영호	051)624-2207
	부산불교약사회	박정자	051)256-3381
	부산불교실업인회	서준석	051)644-3003
	부산불교문인협회	채낙현	051)441-6575
	청람회(교사)	김정란	051)262-7478
	아리회(교사)	서민자	051)514-3698
	보리회(교사)	이연수	051)521-3022
	자람회(교사)	장영선	051)248-0472
	반야회(교사)	최경희	051)753-9503
	부산불교법조인회	안석태	051)244-1441
	부산의사불자회	오양호	051)441-5071
	한국불교언론인회	신광식	02)719-4083
대구	교사불자회	하재웅	053)324-6147
	대구개인택시정법회	김주분	
경기	성불회(전국불자교정인연합)	오희창	0343)52-2182
	법륜회	송기준	032) 668-0073
충청	청주불교실업인회	김현배	0431)272-5001
	대전문전기사불자회	문영호	042)626-6463
	충북예비역불자회	이만호	0431)276-6812
경북	포항불교교사회	김경일	0562)44-0812
	상주교사불자회	김용재	0582)32-3416
	경북도의회정각회	주기돈	0565)83-0800
	직지사교사불자회	조승연	0547)436-6174
	구미불교교사불자회	김현룡	0546)461-1683
	구미택시불자회	이춘도	0546)53-3244
경남	교사불자회	김원찬	0522)74-4990
	서부경남교사불자회	조병구	0591)41-0108
	가야불교바라밀교사회	김진호	0525)32-8807
	교원불자회	오봉환	0551)46-8393
	동부경남교사불자회	김원찬	0522)74-4990
	경남교직원불자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불교운전자회	유기근	062)266-4991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	김진택	062)573-8810
	광주·전남교수불자연합회		
	용일교사법우회광주지회	정은석	062)373-5552
	남도국악단원명회	신경화	062)227-2624
	전주교사불자회	김종하	0658)43-0722
	제주불교운전기사회	김익종	064)51-0108
	붓다제주클럽	송재만	064)21-2629
강원	불심회(교사)	최병욱	0391)41-1103

우리 모임에선

교불련 '늘 좋은길' 창간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0일 회보 '늘 좋은 길' 창간호를 펴냈다.

창간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타스님의 격려사, 임완숙회장의 창간사, 교사불자연합회 목적과 사업소개, 지부활동 상황등을 담았다. 회보는 A4크기 8면으로 연4회 3천부씩 발행한다.

교사불자연합회는 또 청소년들을 위한 글모음집 '좋은 친구' 창간호도 8월 1일자로 펴낼 계획이다. (02)720-7065

보현가족 신병교육대 위문

고양시 보현가족(지도법사 한연수)은 26일 제9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법당에서 일요위문법회를 개최한다.

보현가족은 지역독거노인돕기와 군부대법당 위문법회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0344)64-9006

불가침구학회 침술강좌

불가침구학회(회장 이홍재)는 침술을 배워 사회에 자비봉사할 불자를 배출키위해 전통침술강좌를 마련했다.

1년과정의 강좌는 '음양오행의 원리' '경혈학' '임상실기' '진단법' '해부병리' '전통경락지압' 등의 과목이 강의되며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회비는 15만원이다.

1982년 창립한 불가침구학회 회원들은 '자비의 손' 법당을 열어 하루 5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매일 무료시술을 펼치고 있다.

(02)725-2999, 722-3800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사이래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쳐기업으로서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카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희들의 주거래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듭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직원이 "일체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듭되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부도금액의 4할 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력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들의 수금도 난망하여 3/4분기 변제해야할 3억원에 상당하는 부도금액 변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시중금리에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이 만원씩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번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이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2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현재 $200,000 가량의 L/C가 내도 예정이며 또한 약$300,000의 추가 상담이 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액이나마 $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로써 이 일시적 위기만 넘기면 저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실하고 튼튼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희들은 저희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회향할 것을 불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변제 및 제조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
① 하기 당사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모금액수 5억원
- 투자한도: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 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참고로 저희회사에 대해서는 불교신문 5월 26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26일자, 현대불교 5월27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1일자 26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 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대표이사 專眼 이남제 외 임직원일동 合掌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72-07640-717

예금주
(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대표전화(0561)772-0729 FAX (0561)772-3923
경북 경주시 용강동 304-3
공장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679

법회안내

한탑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26일 오전10시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 매월 네째 목요일 오후7시 무량회법회. 매주 금·일요일 오전10시 30분 일산 문사수법회. (02)732-1206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 29일 오후1시 화계사 불교교양대학 특별초청법회. (02)902-2663



원욱스님(호압사 주지)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 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8일 오전10시 30분 약사재일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금강선관무. (02)802-4779



세운스님(유성광수사) 매월 3일 오전11시 신도정기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8시20분 청년법회. 매주 토요일 밤11시 토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1시 보름법회. (042)823-0332

호당주교(진각종 실상심인당) 매월 첫째주 월요일~일요일 오전10시 월초불공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자성학교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02)862-3624

원기법사 23일, 30일 부산불교교육원 7월 초청법회 예불대참회문 강의. (051)466-4080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불교사회화의 길 찾아서
대한불교법사회 하계수련

대한불교법사회는 24일~26일 2박3일간 강원도 등명낙가사에서 '세계불교운동5-불교의 사회화'라는 주제로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한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향해 나아가고자 마련된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불교의 사회화에 대한 목정배교수(동국대)의 강의와, 불모신앙에 대한 김성호법사의 강의, 그리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02)264-1827

禪사상으로 경제난 극복
생활불교회 대발심법회

대한생활불교회는 청정운동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대발심, 정진법회를 25일~28일 칠성산 법왕사와 금강간 월해사에서 펼친다.

이번 수련기간동안에는 월정사 상원사 등명낙가사 낙산사 등에서 산사의 그윽한 법향을 온 몸으로 체득하고, 선 사상과 인류구원에 대한 스님들의 강의와 염불과 기도로 난국을 헤쳐나갔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042)531-9542

108참회로 자성불 보자
불교신행연 문화답사기행

불교신행연구원은 26일 오전7시 청주 보살사·동화사·안심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청주 보살사는 유서깊은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커다란 관석에 두 불상을 나란히 새긴 일광이불상, 지장보살상, 극락회상도, 영산회상도, 오층석탑 등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이번 기행에서는 보살사에서 신심을 다지는 108대 참회를 올리며, 보살의 참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동화사에서는 고려전기의 연화대좌와 동자의 얼굴을 지닌 비로자나불을 만날 수 있고, 안심사에서는 유형문화재 112호인 비로전 삼존불 앞에서 마음을 모을 계획이다.

또 이번 기행에서는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씨와 함께하는 신행문답의 시간도 마련된다. (02)582-6613



◇불교신행연구원과 함께 유서깊은 보살사 극락보전에서 108대참회로 업장을 소멸하자.

유적보고 미술강의 듣고
광주교육원 사적답사

제도교육, 성적위주의 교육에 찌들린 어린이불자들에게 우리 문화, 우리것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건강한 정서순화와 아름답고 폭넓은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마련했다.

8월 9일 화순 운주사-고인돌공원-김영만목관화 연구소로 떠나는 이번 행사는 유적답사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미술지도도 함께 진행된다. 또 8월 10일에는 광주불교교육원 강의실에서 관화만들기 작업도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어린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062)228-9098

불법의 바다서 지혜찾자
불교교양대 수강생 모집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무더위 속에 육체도 정신도 지쳐있는 요즘, 여름은 길지 않으니 열심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다름아닌 불교교양대학의 불교강좌. 발심서원을 다시 세우며 땀방울 속에 영그는 불심을 일궈보자.

◇불교교양대학

교양대학	개강일	연락처
대원불교대학	9월1일	(02)776-7156
조계사불교대학	9월7일	(02)720-1390
동산불교대학	8월1일	(02)732-1206
삼화불교대학	8월19일	(02)511-2026
법련사불교교양대학	9월 초	(02)733-5322
봉은불교대학	8월26일	(02)516-5652
삼보불교학교	9월2일	(02)352-6406
화계사불교교양대학	8월19일	(02)902-2663
부산불교교육원	9월4일	(051)466-4079
부르나불교교리대학	9월 초	(032)576-9741
불교대구교육원	9월8일	(053)253-7063
영남불교대학	9월3일	(053)474-8228
전북불교대학	9월 초	(0652)226-7878
무량불교교양대학	8월5일	(062)971-8626

"사랑과 봉사의 마음 느껴보세요"
광명보육원 사랑나눔캠프…도예·등산 등 다채

서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나눠가며 마음의 정을 느껴보자.

광명보육원생 20명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사랑나눔캠프'가 8월10일~13일 3박4일간 광명보육원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20명이 각각 한명의 보육원생과 결연을 맺어 후원금 지원 외에 보육원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며 아낌없는 보살행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60-5138

이근후, 이동원)와 무하문화사랑방이 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시인, 화가, 도예가, 산악인 등이 강사로 참가해 봉사하는 마음, 시이야기, 글쓰기는 이렇게, 문화이야기, 산악비디오 감상,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북한산 등반, 자연보호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나의 수행일기



김형균 〈남원 제일극장 대표〉

"불법의 정수 바르게 알자"
남원불교대학 신행의 터전…자녀포교 힘들어

불교와 인연 맺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는 것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요즘에야 쉽고 재미있는 불교해설서도 많이 나와 의지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공부를 시도할 수 있지만 불과 8년전 내게는 참 힘든 화두중의 한가지였다.

당시 나는 남원 대법사 신도회장을 15년동안 맡아오며 나름대로 절밥깨나 먹었다고 자부했었다. 일요일마다 법회에 나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절의 대소사일을 돌보며 그렇게 부처님 제자로 여법하게 살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뭔가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하고 고민을 하던 끝에 몸으로 부딪히며 단순하게 하는 불교신행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이론적으로 내 속에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당시 전주의 화엄불교대학이었다. 1년과정의 화엄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에 대한 기본교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특히 이기영박사님의 법성게 강의는 당시 내가 녹음을 해놓고 또 듣고 또 듣고 복습할 정도로 명쾌했다.

그리고 용타스님이 강의한 부처님 일대기 또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명강의중의 하나로 내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신심나게 1년을 마치고, 나는 다시 전문과정에 도전해 대승기신론을 배웠다. 매주 수요일마다 화엄불교대학에 들러 기신론 강의를 들을때면 내가 살아 있다는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2년간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사는 남원에도 불교대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간절히 바라면 다 이뤄진다 했던가 남원지역에서 불교를 결 마땅한 도량을 구상하시던 당시 화엄불교대학 부학장 도법스님과 선운사 실상사 지역사암연합회의 스님들, 그리고 뜻이 맞는 재가불자 10명이 모여 92년 남원불교대학을 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시작된 남원불교대학은 처음에는 2~3개월의 단기 기초강좌부터 시작해 지금은 1년 코스의 불교대학으로 발전했다. 지금까지 남원불교대학을 거쳐간 불자들이 1500명이 넘는다.

도법스님은 현재 남원불교대학의 학장으로 우리 불자들을 일깨워 주고 계신다. 나는 내 개인 사업도 하면서 남원불교대학의 일도 함께 돌보고 있다.

내 신행생활의 터전은 남원불교대학이다. 그곳에서 나와같은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고, 토론하고, 함께 수행할 목적을 찾게 된다. 그런 이들이 모여 올 봄에는 20명으로 구성된 남원불교대학 거사회도 만들었다. 매월 인근 사찰을 찾아 불교문화재도 답사하고, 법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일상생활과 수행의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행도 항상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나는 매일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5번씩 독송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든 일이 남아 있다. 자식들을 보다 적극적인 불자로 키워내는 일이다. 그게 바로 우리불자들의 가장 기본이자 최고의 포교일진대 현대사회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그들에게 불교를 이야기 하기란 내게는 아직 부족하고 힘든 점이 많다. 아마도 나의 수행이 더욱 깊어지고, 그 세대들에게 맞는 설득력있는 불교포교사로 나 자신이 변모되었을 그때에나 아이들도 자랑스런 불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교는 신해행증의 종교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가르침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또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에 비추어 가까운 불교대학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하고 싶다.

게 시 판

♣ 인사

불교신행연구원 △사무장 노경희

♣ 알림

△무료취업정보센터=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노동직에서 사무직까지 일자리 알선과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하는 무료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5시까지. (02)852-0525

△스포츠활동=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토, 일요일 양지골 청소년 축구단 조직 등 각종 스포츠활동을 한다. (0551)31-8017

△무료급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복지관내 2층 공덕식당에서 실직자, 노인,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02)282-1100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정토주간보호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중풍,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치매예방 등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중식도 제공한다. (02)852-0522

△영정사진찍기=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명 선착순으로 무료 영정사진을 찍어준다. (02)421-6077

♣ 강좌

△조리·요리교실 수강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자기능력개발을 통한 자격증 습득 및 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리 요리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0342)716-4215

△여름방학특강=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취미 메이크업·소자본 꽃방 창업준비교실·체조교실·리더쉽교실·영어회화·노래교실·과학교실 등 여름방학 특강을 실시한다. (02)282-1100

△우리얼 배우기=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민속악기 연주를 통해 우리얼 배우기 강좌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실시한다. (0551)31-8017

△향기요법=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24일 '여름철 향기로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방법' 특강을 실시한다. 수강료 5만원. (053)784-3669

△성인피아노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자와 중급자를 위한 영화음악, 재즈 피아노교실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에 연다. (02)817-8052

♣ 모집

△급식자원봉사자=두송종합복지관은 월 1회 반찬만들기, 배식, 설거지 등의 활동을 할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서류 전산입력·방과후 아동공부방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주1회 3시간 서류 전산입력과 방과후 아동공부방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02)852-0525

♣ 답사

△진도를 찾아서=터사랑은 쌍계사-운림산방-남도석성-옹장산성-벽파진으로 이어지는 민 속의 보고 진도를 찾아서 답사기행을 25일 떠난다. 안내는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가 맡는다. (02)725-1284

△명찰순례=선정산수회는 25일 속리산 법주사(동암)로 명산대찰 순례를 간다. (02)3143-1303

"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는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용주사 · 월정사등 13곳 전시관 추진
사격 맞게 지역특성도 고려해야
시청각교재등 활용 신행공간으로

"테마 성보전시관 만들자"



◇현재 추진중인 성보전시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찰의 사격에 걸맞는 특색있는 전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여법하게 꾸민 직지사 성보전시관.

조계종이 성보박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의 사격(寺格)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테마별 전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주사 월정사 등 13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성보전시관은 불교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개의 성보전시관은 전시목적이나 전시자료를 고려치 않은 채 성보의 나열에만 급급하다. 성보를 왜 전시하며, 무엇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라는 고민없이 성보의 보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집디자인연구소 김희태소장은 "일반인들에게 아직 불교는 생소한 부분도 있어 무격신앙과 동일시하는 그릇된 편견을 낳기도 한다"며 "각 사찰의 역사와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불교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전시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흥사가 그곳을 거쳐간 서산대사와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며 호국불교와 차문화를 조명하고 있듯이 설계와 유물의 선정에서부터 각 사찰의 사격에 걸맞는 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은중경을 소장하고 있는 용주사는 효(孝)를 주제로, 미륵도량으로 이름난 금산사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설정,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계획을 세운다면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람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규모가 작거나 유물이 적은 사찰은 바루공양 등 스님들의 생활이나 영산재 등 불교의식자료 등을 전시하거나 강화 선원사의 경우 경관을 직접 찍을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개발, 일반인들이 불교를 좀더 손쉽게 이해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의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과 보관, 전시 외에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사찰의 성보전시관은 이런 점 외에 예배와 신행생활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내년 4월 개관될 통도사박물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화전문박물관으로 꾸며지는 통도사박물관은 거대한 괘불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높이·조명 등을 고려한 특별전시실을 여법하게 마련했으며, 4백여점의 불화를 2곳의 전시실에서 상설전시하고 때론 기획전시를 통해 불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불심시심 〈137〉

머리 돌려 멀리 하늘 보다

一下牛城又一年 (일하우성우일년) 우성으로 내려 온지 또 한 해
峨嵋物色夢依然 (아미물색몽의연) 아미산의 풍경은 꿈에만 아득
遙知象外鏡禪興 (요지상외요선흥) 격 밖의 참선의 흥 아득히 알면서
肯念塵間重俗緣 (긍념진간중속연) 티끌세상 무거운 속세인연 아쉬워하다
林月散明春葉露 (임월산명춘엽로) 숲의 달 봄 잎의 이슬 여기저기 비추고
寺鍾寒度暮山煙 (사종한도모산연) 절 종은 싸늘히 저녁 연기 타고 오네
關河搖落傷懷抱 (관하요락상회포) 국경 저 멀리서 서글퍼하는 회포
矯首難堪望遠天 (교수난감망원천) 머리 들려 먼 하늘 바라보기도 힘겨워.

허정(虛靜 1670~1733)대사의 '망향산(望香山)'이라 제한 시이다. 세속으로 내려 온 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스님의 고향인 묘향산을 보며 지은 것이다. 그동안 산사의 모든 정경이 꿈에서만 아득하였던 것이다. 저 산사에는 물상을 벗어나는 선정의 기쁨이 있을 터인데 지금 나는 이것을 그리움만으로 간직하게 되었으니, 이는 세속의 인연을 어쩔 수 없이 중히 여기는 탓일까. 이 또한 인간 세사의 자연이니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시의 내용은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스님으로서는 세간을 벗어났다가 다시 세간을 긍정적으로 되돌리는 초월의 세간 긍정이다. 곧 부정의 부정이 긍정인 일상적 논리에도 어긋남이 없는 초연의 자세이다.

지금 묘향산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어울려 있을 풍경, 봄이 되어 돋아나기 시작하는 초목의 화려함, 그 사이로 빛어나는 봄빛, 저문 산의 아지랑이에 싸여 들리는 종소리, 이 모든 것이 꿈 속에도 아른거리는 대사의 고향인 산사의 풍경이다. 대사가 그리는 정신적 고향이다. 속인의 처지로 보면 고향에 와서 오히려 타향을 그리는 격이 되지만, 대사에게는 속세의 고향은 이미 옛날에 타향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라보는 저 산사가 진정한 고향인 것이다. 그러니 멀리 바라만 보아야 하는 산하라면 상심되는 회포일 수밖에 없다. 차마 머리 돌리기가 어렵다.

조선조 당시의 스님들은 이렇듯 두 고향을 두고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였을 듯도 하다. 그야말로 입기응변의 선사적 사유용, 처염상정의 해탈적 자세이리라. 이러한 사유의 문자화가 당시 대사들의 시세계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성악가가 부른 찬불가

김진원씨등 13명 동참
28곡 CD 2장에 담아





성악가들의 힘차면서도 탄력있고 정돈된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찬불가를 듣는 맛은 마치 한 편의 장엄한 클래식을 듣는 것처럼 무척이나 시원하면서도 감미롭다. 그러나 성악을 전공한 불자음악인들이 별로 없는 교계에서 성악가들이 만든 찬불가집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IMF로 제대로 된 음악행사 하나 열리기 힘든 요즘 국내 정상급 성악가 13명이 28곡의 찬불가를 2개의 CD에 담은 '불교사랑'을 펴내 화제다.

테너 김진원(현대오페라단장, 세종대 교수) 김진수(국제오페라단장) 박광원(연세대 강사) 서윤재(한마음선원 합창단 지휘자), 바리톤 ㅇ영구, 임익선(영남대 강사), 소프라노 김학남, 정동희(한양대 교수) 김현숙(동아대 교수) 김금희(추계예술대 교수), 메조소프라노 심은숙(서울시립대 강사) 정미현(숭실대 강사), 베이스 김종진(강릉대 교수)씨 등.

이들은 박지성스님(칠곡 도정암 주지)의 시에 김동환(중앙대 교수) 변규빅 조용근 이철혁 이무영(한국종합예술대 교수) 이달철 박기섭씨 등과 故 김용호씨가 작곡한 '수행길' '인연공덕' '님의 모습' '한마음' '나의 연꽃' 등 28곡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담았다. 김용호씨 작품외에는 이번 CD를 위해 전부 새로 작곡한 찬불가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악가들이 함께 찬불가집을 내게 됐을까. 그것은 바리톤이며 조계종 포교사인 이영구씨의 원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씨는 개인적인 친분과 인연을 통원해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불자 성악인들이 드문 상황에서 실력있는 타종교인들도 기꺼이 노래에 동참시켰다.

'마음속 님 찾아' '본래 마음자리' 등 3곡을 부른 그는 "때로는 장시간의 법문보다도 부처님가르침을 압축시킨 노래가 휠씬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는 만큼 훌륭한 포교방편인 찬불가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불자음악인들과 연대해 음성포교하는 '불교사랑동우회'를 만들어 법회 등 각 불교행사에서 봉사하고 싶다"면서 포교원과 사찰들의 적극 지원도 요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호암미술관 '조선후기 국보전'

진경예술 진면목 볼 기회



◇부석사명향완.

혼란한 시대상황속에서도 독특한 민족문화를 창출, 근·현대 우리 문화의 전통적 원류가 되고 있는 조선후기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호암미술관이 10월11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여는 '조선후기 국보전'은 95년 '대고려국보전'과 96년 '몽유도원도와 조선전기 국보전'에 이어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획된 세 번째 전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217호)' 등 국보 5건, 추사 김정희가 쓴 반야심경첩(보물 547-4호)' 등 보물 9건을 포함 1백58건 2백53점의 유물을 전시, 찬란한 진경예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조선후기 문화는 유교를 바탕으로 불교, 도교, 풍수지리적 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습합돼 전체적으로 역학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문화의 향유계층이 서민에까지 확대돼 건실한 절제미를 추구하는 전통적 아름다움 위에 자유분방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감이 조화를 이루며 독창적인 한국의 미를 창출했다.

특히 철제은입사기미년부석사명향완, 종이로 만든 여래좌상, 석불좌상, 석조나한좌상, 나무로 만든 동자상, 감로탱 등 다수의 불교문화재는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이 줄기차게 제작돼 왔음을 보여준다. 윤기석 기자

700여년전 금강산 '여행'

강릉박물관 사진첩 2권 공개…사찰전경도 담아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20~30년대 촬영된 금강산의 명승지와 월정사 등 강원도의 옛 명소가 담긴 사진첩 2권이 공개돼 흥미를 끌고 있다.

강릉시립박물관이 공개한 사진첩은 지난 96년 금강산 8폭병풍과 함께 서울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천하무비 만이천봉 조선금강산(天下無比 萬二千峰 朝鮮金剛山)'과 '강원도 명소구적(江原道 名所舊蹟)'. '…금강산 은 1938년 경성(서울)에서 발간된 것으로 가로 23㎝, 세로 16㎝ 크기의 51쪽 분량이며 금강산의 사찰전경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하나의 사진첩 '…명소구적'은 원산 덕천사진관이 1927년 제작한 것으로 가로 20㎝, 세로 13㎝ 크기의 30쪽 분량이며 오대산 월정사, 금강산 건봉사, 춘천 청평사 등 강원도 명찰이 실려있다.

이들 사진첩은 현재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의 사찰전경 등을 담고 있어 향후 문화재 복원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시 유람선 입항이 유력한 북한 장전항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향민들에게 그리움을 더해주고 있다.



◇1930년대의 내금강산 소재 정양사 약사전 모습.

한편 시립박물관은 24일부터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첩에 실린 60여점의 사진을 전시하는 한편 〈강원의 옛 자취〉사진첩 2천권을 제작, 관매할 계획이다.

윤기석 기자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 발견

김해지역서 처음



◇김해에서 발굴된 금동보살입상.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입상이 김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21일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일명 개동안골에서 마을 주민 김철수(39)씨가 밭갈이를 하던 중 발견한 이 불상은 높이 12㎝로 청동에 금 도금을 하고 있으며, 보관에 불상이 새겨져 있어 관세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감정중이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여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현 금 가 : ₩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몰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인사의 말씀

먼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중창주이자 회주이신 超安堂 踰城大禪師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하여 주신 제방 대덕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황망중에 우선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안대선사의 높으신 법력으로 출현하신 59과의 사리친견 및 49재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불기 2542년 7월

초안당 유성대선사 사리친견 및 49재 추모법회 안내

일 시: 불기 2542년 8월 19일(음력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번지 오봉산 석굴암
문의전화: (0351) 826-3573

봉선사 문도장 봉행위원장 밀 운
상좌(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 일

스리랑카 국립팔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 학사과정 신입생모집

-Buddhist and Pail University of Sri Lanka-

"이제 많은 외화를 들여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아주 저렴한 학비로 세계적인 대학의 학문을 연구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부처님 재세 당시의 언어인 원전 **팔리어와 불교영어, 상좌부 불교, 대승경전**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에** 많은 사부대중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세계대학 연합에 가입된 정규대학입니다. ※

● 모집안내

· 모집 인원 : 주간50명 야간 50명 (주 3회 출석)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통신강좌 실시(주 1회 출석)
· 수학 기간 : 불교 DIPLOMA 및 학사학위과정 9학기 (불교영어포함)
· 입학 자격 : ① 일반불자로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 (수학능력시험과 무관하며 연령제한 없음)
② 조계종 및 여타종단의 법납 3년이상 승려는 학력제한없이 입학가능
※ 영어회화 가능자는 각종 장학 혜택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면제)
· 입학 전형: 면접 및 서류심사 (선착순 100명에 한함)
· 합격자발표: 면접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특 전

① 위 DIPLOMA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수료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DIPLOMA자격증과 학사학위 (B.A)를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현지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M.A)에 100% 유학가능
(디프로마 및 학사과정 강의는 국내 서울·부산 강의실에서 각각 실시함)
② 재학중 현지 유학 (편입)가능 ③ 조계종 포교사 및 국제 포교사 자격 취득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62-398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

☎ 문의: 서울 (서울 및 경기 거주자) 02)741-0496
부산 (부산 및 경남·북 거주자) 051)642-6242

여름휴가와 불서가 만날때

의욕 재충전

여름휴가가 시작된다. 번잡한 세속을 벗어나 시원한 산과 바다를 찾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들떠 오르지만 올해는 IMF여파로 그것도 여의치 않을듯 싶다. 불자라면 이때 평소 가고 싶었던 산사를 찾는 것도 좋은 휴가방법의 하나. 하지만 '불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큼 시원하고 유익한 휴가법이 또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스님, 법사, 학자, 작가, 시인, 신행단체장, 언론인 등 각계 25인의 불자들에게 여름휴가철에 읽을만한 불서 2권씩을 추천받았다. 여행지에 동반할 가벼운 불서를 고르는 것도 좋고 또 평소 읽기 어려웠던 묵직한 불서 한 두 권을 정해 읽어보는 것도 휴가를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교계 인사 25인 추천 '휴가중 필독불서'

이들의 추천의 변을 이렇다. 치열한 수행과 구도의 길을 걷는 불가의 이야기들은 되돌아 본 삶 속에 '용기'라는 불덩이를 던져준다. 이열치열의 비법(?)을 통해 시원한 여름은 '마음'에 달렸다는 이치까지도 깨닫게 한다. 맑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스님들의 이야기는 산 속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고, 활자로 만나는 불교의 이치는 기쁨과 시원함의 바람을 맞으면서 불교라는 큰 산을 내려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장 많은 추천대상에 오른 불서는 법정스님의 글을 류시화 시인이 엮은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刊). 생명중심주의의 불교사상이 일관되게 흐르면서도 요즘처럼 IMF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다.

20세기 서구사상계에 불교사상의 정수를 단비처럼 뿌렸던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 그와 만날 수 있는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보르헤스, 김홍근 역, 여시아문 刊) 역시 강력한 추천을 받은 책. '내 안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진짜는 누구인가'를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붓다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윤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화' 할 것인가를 밝혀놓고 있기에,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전과 같은 양서다.

성철스님 법문집인 〈자기를 바로 봅시다〉(장경각)를 비롯해 〈무소유〉(법정, 범우사) 〈깨침을 향하여〉(강건기, 불일)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법산 엮음, 매일경제신문사) 등 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들도 휴가기간동안 읽어볼만 하다. 또 〈불교입문〉(조계종 편집부, 조계종 출판사) 〈100문 100답-불교입문편〉(대원정사 편집부, 대원정사) 등도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도불교〉(나라 야스아끼, 정호영 역, 민족사)도 초심자들에게는 불교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이다.

최근 몇년간 나온 이런 책과는 달리 치열한 구도심을 지녔던 선사들의 얘기가 담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보람있는 휴가을 보내는 방법이다.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하나의 무게를 어쩌지 못해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삶의 지표를 제시한 지눌스님의 〈마음 닦는 길(수심결)〉(강건기 역, 불일)과 서산대사의 〈깨달음의 거울(선가귀감)〉(법정 역, 불일) 〈임제록〉(아나기다 세이잔, 일지 역, 고려원) 〈역사로 읽는 원효〉(김상현, 고려원) 〈경허선사〉(이흥우, 민족사)등은 선사들의 사자후를 들으면서 무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하다. 이들 선사들의 일갈은 세속에 찌든 사람들에게 등골이 오싹할만큼 교훈을 준다.

중국인 학자 오경웅박사가 쓴 〈선학의 황금시대〉(서돈각·이남영 역, 천지)는 선불교의 계보와 진수를 일반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책. 선불교 입문서로는 제격이다. 선을 문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바쇼의 하이쿠 기행〉(마츠 오바쇼, 김정례 역, 바다)과 선을 재미있게 풀어나간 〈선사상〉(야나기다 스기단, 서경수·이원화 역, 한국불교연구원) 등도 한여름 밤 선의 세계에 빠져들기에는 그만이다.

불서를 말하면서 경전을 빼놓을 수는 없다. 요즘에는 크기와 분량을 줄이고 편집을 재미있게 해서 경전을 접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들이 많다. 〈법구경〉 〈반야심경〉 〈초발심자경문〉 등을 주머니에 넣고 휴가지와 휴가를 다녀오는 도중 읽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추천이 있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에세이집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맹란자, 세훈)와 불교적 색채를 짙게 느낄 수 있는 잠언시집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천양희, 작가정신), 불교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소설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이상우, 밀알) 등 문학적 색채의 불서들도 읽어볼 만 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좋은 불서 골라 삼매에 빠지면 더위도 이기고 지혜도 생길터이니 …



법구경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작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깨달음의 거울

지혜는 선정에 의해 빛을 발하고, 선정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더 심화되어 간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메마른 분별지로 퇴색하고, 지혜가 따르지 않는 선정은 공허하고 맹목적인 것이 된다



경허선사

사림의 마음은 독하고 악하기가 하늘을 뚫고 난다 학과 함께 구름 저편을 가며, 이 몸은 누구와 더불어 가야 하는가 학과 함께 가면서, 가는 뜻을 찾으면서, 찾으면서, 닦으면서, 힘쓰면서



역사로 읽는 원효

원효는 구도자다. 용맹으로 정진하던 수행자였고, 원(願)이라는 갑옷을 떨쳐입고, 진리의 성을 공격하던 장부였다. 거짐없는 비판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허물을 반성할 줄 아는 이



바쇼의 하이쿠 기행

출창한 여름 숲 해와 달은 여쟁객이고, 오고 가는 해(年) 또한 나그네이다 사방이라야 오 척도 되지 않는 둘로 엮은 암자. 엮을 것도 없었네 비만 없었더라면…딱다구리도 암자만은 안 쪼았네

사찰여름 수련회 '불서읽기' 프로그램 없다

산사 여름수련회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참가자들 대부분은 불교를 좀 더 깊이있게 알기위해 불서를 읽어야 겠다는 마음으로 산문을 나서지만 막상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한다.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불서'를 체계적으로 알게 해주는 수련회가 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열고 있는 본사급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백양사, 송광사, 불국사, 쌍계사, 대흥사, 직지사, 월정사, 봉선사, 은해사 등 모두 11곳. 이중 '불서읽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직지사 단 한 곳 뿐이며, 나머지 사찰들은 강의주제와 관련된 경전을 소개하는 정도다.

그러나 11개 사찰의 수련회 담당 스님들은 모두가 '불서읽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불서읽기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음은 물론 참가자중 상당수에 달하는 비불교인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광사 등 몇 사찰은 다음 수련회때 꼭 고려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직지사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윤청광, 남지심씨 등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하고, 불자로서 읽어야할 교양도서와 입문서, 선서, 전문서 등을 선정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선 스님들은 수련회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불서읽기' 관련 프로그램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주저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 주된 이유는 하고 싶어도 어떤 책을 어떻게 권유해야 할지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효과여부에 대한 확신부족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인스님(대흥사수련원 지도법사)은 "종단차원에서 수련회에 알맞는 '불서'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보다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관계자들은 사찰의 특성이나 불교입문, 선, 경전 등 매년 일정한 주제를 정해 불서읽기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



산에는 꽃이 피네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산은 곧 커다란 생명체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몸 속이다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만이 아니라,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보르헤스의…

'20세기의 창조자'로 불리는 보르헤스.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의 깨달음의 단편들 속에서 무한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체험했다. 그 체험의 핵심은 '여기, 지금'



마음닦는 길(수심결)

깨침에 이른 뒤에도 오래 비우고 살펴 망념 생겨나도 좇지 않네. 버리고 버려서 무위에 이르러야 진정한 깨침이리니 천하 모든 선지식이 깨친 뒤에도 소 먹이는 까닭이 거기 있네



불교입문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 방대하지만 지상의 안내서가 있다면 길을 찾기가 한결 쉬운 법

이 혼란한 세상을 읽고 바르게 가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챙히는 것 외에는…



선학의 황금시대

선학이란 당대(唐代)의 위대한 선사들에 의해 체득되고 교시되었던 불교의 진리 선학의 의미를을 주옥같은 언어로 생기발랄하게 서술했다면 가히 선을 선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할까

'98 상반기 베스트불서 2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5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6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반출판사
7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8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9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10	무소유	법 정	법 우 사
11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12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13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14	불교교리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15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 겔	여시아문
16	팔만대장경속에 숨어있는 100가지 이야기	진 현 종	혜 음
17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선회
18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19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재 열	대원정사
20	장가안가길 잘했네!!	우 학	좋은인연

구입문의:(02)737-0695

서예백화점 文化人의 벗

이화문고

이제 인사동엔 이화문고가 있습니다.

이화문고의 [illegible]

1. 梨花文化出版社의 直賣店
2. 書藝관련 도서 完備
3. 書藝人이 필요로 하는 辭典, 字典, 法帖, 四君子, 篆刻, 陶藝, 漢文學, 東洋哲學, 東洋歷史에 관한 도서를 구비, 陳列하였음
4. 書藝·美術雜誌의 普及
5. 신용카드 가맹점 완비
6. 最大의 친절봉사

[illegible] 인사동점

서울의 명소인 인사동…

하지만, 우리 전통문화가 퇴색해 가고 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동의 명물로 이화문고가 탄생하여 우리 고유문화를 지키는 보루(堡壘)가 되려 합니다.

1998. 7

共同代表理事

社 長 金禧東(영가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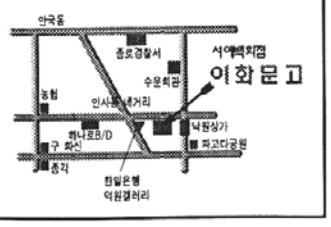
副社長 李洪淵(이화문화출판사)



서울 종로구 낙원동 213-13

TEL : 732-7095, 722-0670

FAX : 722-0671



書藝大字典 (上·下 合本)

서예대자전 上·下 양권을 한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최고급 사전용지로 500부 한정본을 발간하여 우선순위 공급하여 드립니다.

文字學·篆刻·史學·建築學·畫學의 필수 字典

정통 서예의 연구에!! 격조 높은 글을 쓰는데!! 집자를 하는데 필수 자전!!



4×6배판/3000면/42g시전용지/상·하합본/ 값60,000원

150,000자의 名蹟을 집대성한 완벽한 大字典

♣ 本書는 篆·隸·楷·行·草의 五體를 처음으로 종합한 書體字典이다. 최고의 문자자료인 甲骨文, 金文을 비롯하여 역대의 碑誌·法帖에서 墨跡에 이르기까지 두루 수집하여 모두 사진에 의해 편집하였다.

♣ 採錄의 범위는 설문에 실린 9,350여자 및 중문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싣도록 하였다.

※ 전화주시면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

書藝字典普及會 TEL:722-0861~3

"고려사원은 정치 · 군사적 공동운명체"

박윤진씨 주장

"고려 사원이 본래의 종교적 기능을 벗어난 군사적 ·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은 국가에 대해 공동운명체의식을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이다."

고려사학회(회장 강준길)가 최근 펴낸 〈한국사학보〉 제3 · 4집에서 박윤진씨(고려대 철학과 박사과정)는 '고려시대 개경 일대 사원의 군사적 · 정치적 성격'을 통해 "고려시대 개경 일대 사원이 군사적 · 정치적 기능으로 활용된 것은 호국정신을 실제로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개경 일대의 사원이 군대주둔지나 훈련장소로 활용되는 등 군사적으로 이용된 것은 수도 근처에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공공 기관과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생긴 역할"이라며 "호국 정신의 실현을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구체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원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별사전(別賜田)이나 사원전(寺院田) 등으로 경제적 우대에 상응, 정치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윤회의 주체 | 남종선과 북종선 |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사상 논쟁통해 불교발전"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출간

11개 주제로 불교사 전반 고찰

"대립 · 갈등은 자기반성 기회"

2500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갖는 불교가 전파 · 전개되는 과정에서 토속적 사상과 부딪치며 일어난 논쟁, 또는 사상적 변천에 따라 일어난 내부 논쟁은 서로 다른 견해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고, 불교의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인도와 중국, 한국에서의 이같은 논쟁을 11개의 주제로 나누어 불교사 전반에 걸쳐 유명한 논쟁들을 살펴볼 수 있게 묶은 책이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예문서원 刊)이다. 북방 중심의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8명의 소장과 학자들이 고정적인가 고정불변적인가를 놓고 전개되는 '윤회의 주체에 대한 논쟁', 중국 선종사에서 선종의 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한 '남종선과 북종선의 논쟁',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쟁' 등 현재까지도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논쟁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윤회의 주체를 둘러싼 논쟁 '유아윤회와 무아윤회'에서 이거룡씨(동국대 강사)는 "힌두교와 불교의 유아 · 무아 논쟁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선 자리를 확인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有我)와 무아(無我)는 각각 힌두교와 불교의 철학적 전제로, 근세 유럽 철학에서의 합리론과 경험론 사이의 갈등 이상으로 윤회의 주체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거리.



◇1990년 10월 송광사에서 열린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깨달음과 닦음'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었다.

박해당씨(경희대 강사)는 '격의불교와 승조의 공사상'에서 중국 초기불교의 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의 불교수용기에 제기된 중국 전통사상과의 논쟁들을 고찰하며 "공 사상이 중국이 받아들인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인정한다면 중국불교는 승조에 의해 비로소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됐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종선과 북종선의 논쟁'에 대해 김영욱씨(가산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남북 선종의 논쟁은 단지 대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세간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정서와 사유구조에 맞도록 선법을 변화시킨 계기가 됐다는 점"이라며 "돈오는 점수와의 사상적 대결과는 별도로 세간을 벗어나지 않고 현세의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발전한 것에서 그 핵심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논쟁'에서 이덕진씨(부경대 강사)는 한국불교의 거성 지눌이 남긴 역기능과 깨달음을 바라보는 지눌과 성철스님의 시각 대비를 통해 "지눌의 돈오점수와 성철의 돈오돈수는 닦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견책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서로에게 사상의 폭을 넓혀주는 자양분 구실을 하여 현대의 우리를 환기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힌두이즘의 불교비판'(김형준) '공과 유의 논쟁'(최정규) '천태종과 화엄종의 사상비교'(이병욱) '현대불교의 쟁점들'(김형준) 등이 수록돼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

티벳불교 칼마파서 운영

서구 생활불교 정착 한몫

초심자 교리교육 등 지원

뉴욕에 자리잡고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Diamond Way Buddhist Center) 17대 칼마파의 싸예 도제와 레임 올니달이 이끄는 티벳불교의 칼마 카규(Karma Kagyu) 파가 운영하고 있는 불교 센터.

이 센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라마승 올 니달의 영향력이다. 그는 제16대 칼마파의 최초의 서양인 제자로서 불법을 서양인들 정서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현대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불교가 서양인들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종교가 되도록 불교의 실용화에 눈을 돌리는 등 서양인들에게 불교의 문턱을 낮춘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올은 칼마파로부터 불법을 널리 알리라는 개인적인 요청을 받은 후 서양의 거의 모든 나라를 순례하면서 전세계에 티벳불교를 알리는데 헌신했다.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 사이트에서는 티벳불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티벳불교와 칼마파종(宗) 개관 △불교문학-시(詩) △티벳어 진언 △불교행사 소개 △불교용어 정리 △미국 동부 불교계 소식 △매주 명상 프로그램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이중 티벳불교의 4대 종파중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칼마파(Karmapa)에 대한 설명은 티벳불교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현재 티벳 승왕인 14대 달라이 라마도 이 종파에 속한다.

칼마파의 정확한 명칭은 칼마 카규종(karma Kagyu Lineage)이다. 계보 또는 종파를 뜻하는 'Lineage'는 티벳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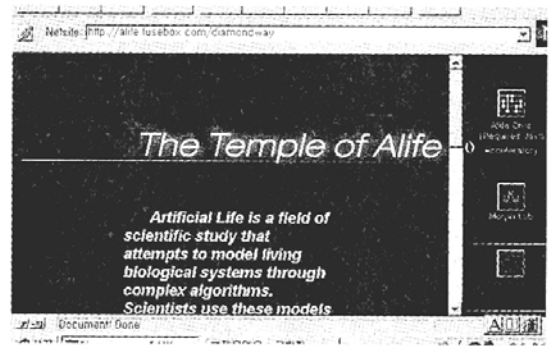
칼마파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칼마의 대스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비심에 가득한 티벳성자인 헤안(Chenrezig)의 구현체이다. 칼마파는 부처님의 모든 공력을 구체화한 대상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과 구루 린포체에 의해 이미 예언된 바 있는 존재이다. 칼마파는 티벳 최초의 '라마'이며 지난 8백여년 동안 '살아계신 부처님'으로서 또한 정신적인 지주로서 한번도 계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칼마파는 죽음을 맞기 전에 자신의 후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는다고 한다.

또 이 종파에서는 위대한 스승을 탈쿠스(Talkus)라고 부른다. 이것의 의미는 수행자가 자아의 온갖 허황된 환상과 환영을 초월한 뒤, 이 지상의 모든 존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였다는 대스승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금강승(Vajrayana)이라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식 수행법과 연구 성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 초심자들의 교육 과정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가 특히 중요시하는 활동이 바로 불교에 갓 입문한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주 한번씩 정규적인 모임을 유도해 티벳불교의 정통 교리를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http://alife.fusebox.com/diamondway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범어문법학' 나왔다

발음 · 문법 · 문장론 등 다뤄

범어-한글사전도 수록



◇전재성씨



인도사상과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 범어 이해는 필수적이다. 근본불교의 성전인 빠알리대장경이나 대승불교의 성전인 서장대장경과 한역대장경, 그리고 대장경으로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경전들과 논서들로 이루어진 범어불전 등은 넓은 의미에서 불교 성전어인 범어에서 유래되었거나 번역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펴낸 〈범어문법학〉은 지금까지 나왔던 극히 기초적인 문법에 국한된 몇 종류의 책들과는 달리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범어문법학의 전모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동안 빠알리어 사전과 문법책을 출간했던 전재성씨(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가 쓴 이 책은 '범어문법학 입문' '기초범어문법학' '범어문법학 각론' '범어사전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범어 약어표를 수록하고 있다.

1부 범어문법학 입문에서는 범어의 기원에서부터 범어가 인도-유럽어에서 파생됐음을 밝힌 범어의 분류, 그리고 범어의 성립과정과 함께 문자의 형태 및 발음체계 등을, 2부 기초범어문법학에서는 명사, 동사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격변화, 시제, 능동 · 수동태 등 우리가 흔히 접했던 영문법과 같이 범어에 대한 기초 문법을 설명해 놓았다.

3부 범어문법학 각론에서는 음성론, 연성법칙, 일반 격변화의 원리, 문장론 등을 다뤘으며, 4부 범어사전부에서는 범어 한글사전과 한글범어사전, 범어 어근사전을 수록해 사전적 기능 외에도 어휘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국제소식

스웨딩 안무 '율동에서 찾는…'

만다라 춤 美서 인기

美 워싱턴 몰커런예술극장에서 명상과 만다라를 소재로 한 무용이 대중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美 무용계의 대표적인 안무가 머리 스웨딩씨가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무대에 올린 춤의 주제는 '율동에서 찾는 만다라(Mandala In Movement)'. 10여년동안 명상수행에 몰두해온 스웨딩씨는 둥근 만다라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4명의 춤꾼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만다라를 상징하는 다섯개의 원을 그리는 기하학적인 춤을 안무했다.

스웨딩씨는 "5년간의 공백이 자신을 바로 보고 정신적 삶으로 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美 비평가들도 "현란한 음악에 맞춰 춤꾼들의 반복적인 율동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피로감 보다는 마음 속의 생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호평했다.

유엔, 베트남 종교현황 조사

불자 7천8백만명 추정

베트남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유엔의 종교 관련 특별조사관이 7월말경 입국, 베트남의 종교현황을 조사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별조사관 압델페타 아모르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종교분포, 종교활동, 종교인사 탄압 사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난 10여년간 자유 경제체제를 도입하며 자유시장을 개장하는 등 정치 · 사회적 규제가 예년과 비교해 완화됐지만, 종교문제 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종교단체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억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불교 신도수는 현재 7천8백만여명으로 주요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증욱 기자

대한민국 성씨대보총람 全4卷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읽기 어려운 한문족보를 대한민국 275성씨별 3,349본관별 대동보(大同譜) · 세계보(世系譜) · 파보(派譜)를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도록 한글 중심으로 집필.

1



※ 4×6배판 전 4권, 총 8,000여면
희귀원색자료 150여면 호화영구
소장본 정가(4권)480,000

- 特 長 -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상) 제1권】
●275성씨별 총설 · 시조의 연원 · 본관지연혁 · 세거지 변천사 · 집성촌
●파명록 · 단군왕조이래 201위(位)역대임금 존영과 업적을 칼라로 수록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하) 제2권】
●원형그대로의 옥새와 마패등 유물 칼라로 수록 · 벌열 · 종문행례
●세계표, 항렬표, 역대인물고, 성씨별 인구분포도 · 현대인물선 · 묘원사원, 서원, 명당, 정려, 행의문과 소재지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 제3권】
●역대위인 3,000여 위(位)존영 · 400여 독립유공자 존영과 투쟁사
【대한민국성씨대보총람 제4권】
●시조, 중조, 파조, 선조 영정 · 성씨 본관별 세계표와 묘소, 제우
●효자각, 열녀문, 신도비, 묘비등 성씨별 유물과 유적지 등 칼라 집대성

책임감수 前충남대학교대학원 柳正基교수

2 全人教育의 教科書!

◆ 현대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줄 동양 古典의 精髓!
◆ 特 長
· 원문을 해독하기 쉽도록 모든 한자에 우리말 음(音)을 달아 초보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원문에 담긴 참의도 깊은 뜻을 풀어 풍부하고 정확한 해의(解義)를 곁들였다
● 論語 · 中庸 · 大學 · 孟子 · 周易 · 詩經 · 禮記 · 春秋 · 書經 · 大辭典 · 故事成語



4×6배판 1,020면/정가 50,000원

◆수백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갈고 닦아온 문화민족의 위대한 유산

3 國內書道大典의 最高峰



◆ 特 長
· 당대의 양필(名筆) 송조풍선생, 王元, 鈴方綱등한 · 중대서도가의 필적이 지닌 기운과 서예의 기본법인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수록
· 서도의 조수인 해서, 행서, 초서, 전서와 묵희 및 어보등을 집대성시켜 초보자들의 서도기법 정립에 귀감본으로 제작

구입방법
정 가 : ~~680,000~~
특별현금가 : 150,000
합 부 가 : 50,000×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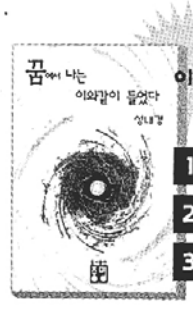
☎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최정상 불법인 법화사상의 전모와 진수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붙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지식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사(道士)가 되었을 것이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 이야기
전 3권 완간!!!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거니와 받아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됐지니 이로써 보살행 부처행을 하소서.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보약도 나쁜이다■정력제는 없다■화장을 지워라■담배가 그렇게 유해한가■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다■운동을 하지 말라■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건강 위려증■병도 소질이 있어야 걸린다■여자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차라리 괜찮! 교육은 이래나 실득이 아니다■몸등이 외에는 악이 없다■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성불도 인연따라 일어난다■스스로 최상승의 근기를 만들라■표법연화경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中明 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밝게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도서출판 중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TEL 636-6873 FAX 636-6874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9

세존의 채찍 ④

"어떤 답도 깨달음 표현 못해"

실상을 알려면 '비어있음' 체험해야

공(空)이란 비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빈 과자상자나 혹은 풍선같은 것이다. 겉으로는 있는 듯하나 실제 내용물은 없는 그런 것, 겉으로는 잔뜩 부풀려 있으나 안은 공허한 그런 것이 공의 구상적 이미지이다.

그렇다면 색즉시공(色卽是空)이란 다음과 같은 말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아비달마가 궁극적 존재로 생각한 색(色) 즉 '물질'은 실재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다. 그런데 이어지는 공즉시색(空卽是色)은 또 무언가. 글자 그대로는 "실재가 아닌 것은 곧 물질이다?" 이것은 불가해한 언설이다. 공이 지금 명사 혹은 주어의 자격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렇다. 공이란 품사적으로 한정어, 즉 특정한 실재를 형용하고 수식하는 묘사어로서 그 자체 실재성을 가질 수는 없어 보이는데… 이 어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림 · 문병성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을 특정한 명사어로 승격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 공은 단순한 형용어가 아니라 불교, 특히 대승불교가 알리는 모종의 형이상학적 실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이상학적 실재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무릅쓰기로 한다. 방편!) 우리는 특정한 대상을 긍정적 적극적 언사로 형용하는데 익숙하지만 불교는 대개 부정적 한정어를 선호한다. 같은 고민을 노자도 했다. 노자도 그 아득한 현지우현(玄之又玄)의 실재를 일상의 이원적 한정어로 그릴 수 없어 '억지로' 도(道)니 무(無)니로 부른다고 했다.

왜 '억지로(強謂之曰)'라고 토를 달았을까. 우리는 외계를 감각하는 지각과 그것을 통합하고 유추하는 이성을 갖고 있다. 또 그런 경험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유효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세련되고 거친 차이는 있겠지만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세계와 경험을 기술하는 적극적 언사를 발굴하고 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대학입시 논술고사도 그런 확신의 산물이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노력을 큰 소리로 비웃는다. 낮은 차원의 세계에서는 몰라도 궁극의 세계에서 언어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차원의 영적 세계를 기술하는 '적절한' 언어는 없다! 우리가 공유하는 언어는 감각적 지각과 그것을 통괄하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형성되고 통용되는 수단이다.

애초에 제기한 질문을 기억하는가. 외도는 세존께 '말있음과 말없음 너머의 소식', 즉 우리의 일상적 경험의 분열된 세계를 벗어난 부처의 정신적 세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응답했다. 어떤 대답도 그 깨달음의 세계를 적절히 기술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웅변으로 일깨워준 것이다.

침묵과 더불어 공(空)은 바로 그 누메나(noumena)의 세계를 대강이나마 짚어주기 위한 방법적 장치이다. 공은 일상적 의미에서 언어가 아니다. 이 말이 지나치다면 '최소한의 언어'이다. 노자의 무(無)가 그렇듯이 그것은 언어를 지우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공 앞에서는 어떤 언설도 미끄러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혜개도 읊었다. "칼날 위를 걷고, 얼음의 모서리를 달린다. 계단이나 사다리를 딛지 않고, 아득한 낭떠러지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

사람들은 이쯤에서 근본적 궁금증을 토로한다. "세계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는가?"라고. 우리네 중생들은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다. 특히나 근대의 과학과 그 인식론에 침윤된 정신은 감각과 지각 너머의 마술적 정신적 영역을 일거에 내버렸다. 그러나 근대 이전 마술과 주술은 상식이었고, 영적 경험은 어느 문화에나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불교는 세계를 단일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령, 삼계(三界), 즉 욕계(欲界)와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가 그것이다. 학파마다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불교는 감각과 욕망의 세계 너머에 정신적 세계, 보살과 부처들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전한다.

고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자아와 타자, 하나와 여럿 사이의 이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각이 사라지고, 그와 연관되어 있던 물질적 대상도 사라지고, 그와 함께 그에 의지하고 있던 자아 혹은 인격도 사라진다. 여기서는 말있음과 말없음이 동시에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세계의 실상을 알고 싶은 사람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린 화엄(華嚴)의 바다에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번거롭다면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난해한 변증이라도 음미해보기를 권한다.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초월적이면서 또한 내재적인 그 오묘막측의 세계를, 그 통합과 원융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은 여전히 자아의 소멸 즉 무아(無我)이다. 그래서 공(空)이다. 존재하는 것은 부풀린 오온(五蘊)뿐, 그것을 통괄하는 중심으로서의 자아 혹은 인격은 여전히 '비어있음.' 인간은 그 자신에게 속한 바를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못하는 거지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라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9



정정진 ②

우리는 모든 일상을 주목하며 바른 행동(정정진)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다. 왜 어려운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도 있다. 자신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 따분함, 두려움, 외로움, 즐거움, 아름다운 일조, 기막힌 맛, 무시무시한 경험, 생로(生老), 밝음, 어두움, 감정의 오르내림 등 모든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돌연한 모든 변화'에 스스로를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진은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 세간(世間)은 들뜬 곳이다. 전쟁과 편견이 있으며, 수많은 정치범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환각을 찾을 만큼 세간의 삶은 고(苦)다. 우리는 이 세간을 특수한 환경에서 고립된 슬럼가로만 생각할 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인도 성인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Nisargadatta Maharaj)가 어느날 봄베이의 한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공손히 절하며 물었다. "우리는 수종류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진실 혹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하라지는 이같이 대답했다.

스스로를 열어놓고
일상행위를 깊이 주목
몸 · 마음에서 감정 몰아내야

"물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확신을 심어주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은 진실, 사랑, 조화로운 의식 등의 본성일 것이다.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고(苦)는 분명히 변화한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당신에게 '집중'을 요구하며, 조화와 사랑으로 향하도록 당신의 운동에너지를 자극한다. 에너지가 더욱 증가하면 할수록 당신의 깨달음은 깊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으며,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결코 고(苦)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에서 사랑을 낳을 수도 없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간(世間)'에서 살고 있지만,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조차 깊고 높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이것들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성실한 노력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정진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상좌부불교의 수행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하루 네차례 미동도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기를 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숨결 하나 하나에 몰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즐거움, 권태로움, 즐거움 등의 감정이 교차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곱씹어야 한다. 이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강인한 수행력을 기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마하시(Mahasi) 사원의 수행법이다. 이것은 하루 15~18시간 정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오직 4시간의 잠을 허락하고 소량의 음식만을 섭취하게 하는 이 사원의 수행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과 같이 놓치기 쉬운 행동조차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도록 한다. 이 같은 물음의 대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더러움, 욕망,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다.

이 두 수행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듣고, 보고, 냄새맡고, 맛을 보는 것 등을 통해 집중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 세계가 실질적임을 느끼는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해제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깊이 주목해 주변의 유 · 무정물과의 관계성을 지켜보고, 사실성(性)과 거짓성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8

불교와 수학

63

연기와 사회성

김 용 운

개미 일정 수 모이면 집단행동 하듯
개체의 생명의지 '자기조직화' 창발
"보살의 자비심 온누리에 비친다"

불교의 연기사상은 모든 현상의 여러 요소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나타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구도 연기의 이(理)로써 설명된다.

인간이 만든 사회이지만 그것이 형성되면 그 안의 여러 제도, 습관 등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낱낱이의 인간의 행동 또한 사회성을 규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고립적으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사실은 사회적인 행동을 취하는 개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미를 한 두 마리씩 집어서 다른 곳에 옮기면 처음엔 시들시들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를 하나씩 늘리면서 어느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갑자기 전체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한 마리, 한 마리의 개미가 모여 사회가 만들어지면 사회가 낱낱의 개미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낱낱의 개미와 개미사회 전체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복잡성의 과학에서는 개미사회의 집단적 행동의 '자기조직화'라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혼돈의 상황에서 스스로 질서와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Emergent)이라고 한다. 물이 온도에 따라 수증기 또는 얼음으로 변하는 것도 그 보기이다. 개미가 일정한 수에 이르면 자기조직화가 창발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인간의 마을, 기업,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불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연기의 이(理)가 작동하여 그 환경에 어울리는 적당한 조직을 만든다.

저마다 생물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 치라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힘쓰는 생명력이 있다. 낱낱의 구성원이 모여 사회를 형성케되면 사회는 단순한 여러 구성원(個)의 모임이 아니라 저마다 개체가 지니는 생명의지가 발동하여 집단으로서의 생명의지를 갖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개체의지의 산술적인 총합은 아니며 자기조직화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생명의지가 창발되는 것이다. 많은 구성원을 지니는 기업, 사회,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번영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쇠퇴해 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역사는 그런 기록으로 가득차 있다. 위기가 몰아닥칠 때 구성원들이 자각하여 조직에 새로운 생명의지가 일어나 활력이 창발된다.

로마가 쇠퇴기에 돌입했을 때 오랜 풍요로운 생활로 로마 시민 사이에 나태한 기운이 창발된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個)'의 바람이 자기조직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견전한 중생의 마음으로, 보살의 자비심으로 발할 때이다.

지난호의 이 난에서는 사회, 민족의 원형에 대해서 설명했다. 원형은 사회, 집단의 성격이며 그것을 사회, 조직은 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처음 가족단위 정도로 흩어져 살고 있던 원시인들이 하나씩 모여 조직화될 때 해당사회의 자기조직화 움직임이 창발되며, 이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 원형이다. 동물이니 곤충 사회의 원형은 조직을 기능적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집단 행동의 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넓게 생각한다면 인간사회의 원형 역시 사회를 효과적으로 유지 · 보전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인간사회와 동물원형의 다름은 인간사회의 원형에는 강한 윤리적 바람이 있다. 인간사회는 단순히 재물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한다. 인간의 종을 유지보존하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성이다', 높은 윤리성, 특히 자비와 사랑… 등으로 사회를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발한 자비의 마음은 온누리에 비친다'는 뜻은 중생(사회구성원)의 집단무의식 속에 윤리성이 형성된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처럼 이들 집단에도 자기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집단의 본성, 곧 보살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의 특성이 자각됨으로써 보살의 자비의 마음이 발하고, 중생이 병들 때 보살도 병드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 · 연 · 건 · 강 · 식 · 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 · 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 · 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 · 둘째 부(富:부와 귀) · 셋째 강녕(■:편안함) · 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 ·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 · 소화불량 · 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強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슬림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슬림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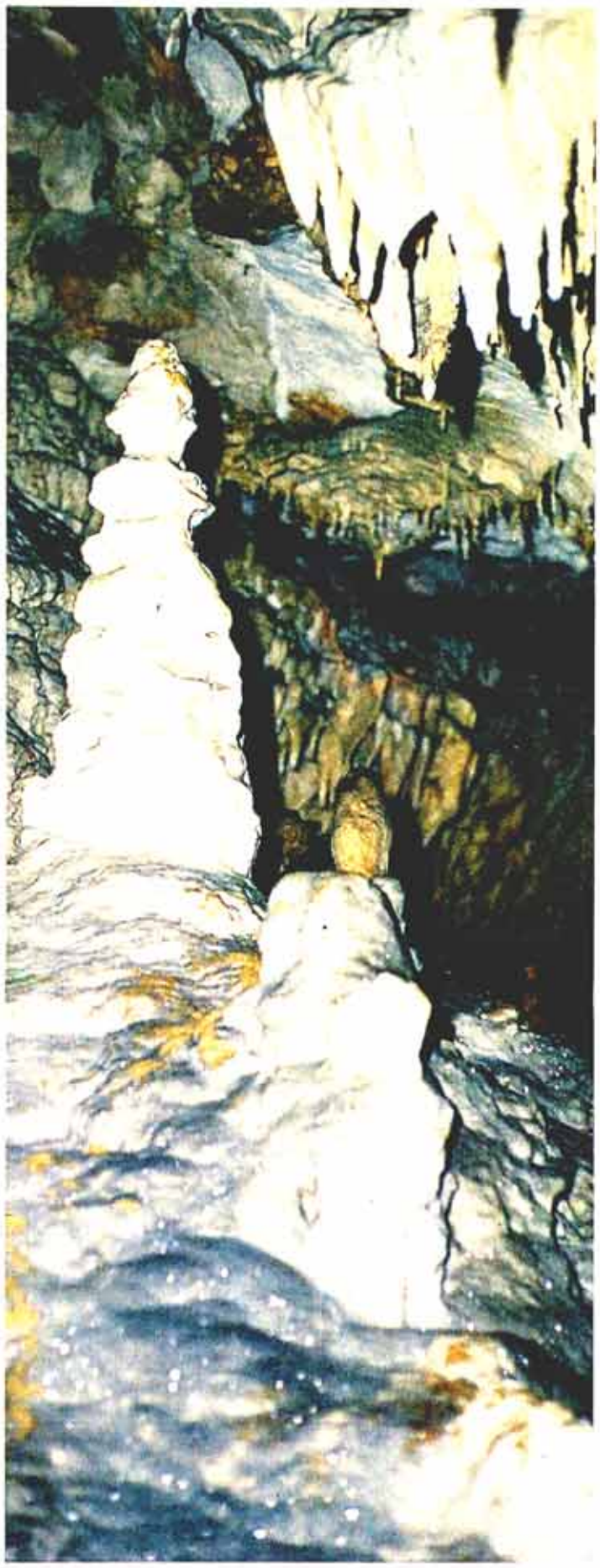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시방세계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02)732-1522
F. 02)737-0697

동굴탐험 + 사찰참배 = 남다른 여름



◇강원도 영월군 고씨동굴은 불상과 탑형식의 신기한 석순들이 즐비해 불자들의 감탄을 사고 있다.



◇경상북도 울진군 성류굴은 동해에 인접해 있어 인근 해수욕장과 함께 찾을 수 있다.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특별한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사찰을 찾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거기다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도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일거삼득이 될 것이다. 어디 그런 곳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천연동굴을 찾아 태고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을 배운 뒤 사찰을 찾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올 수 있는 코스를 택하면 된다.

천연동굴이란 땅 표면에 자연적으로 뚫린 굴로서 그 속에는 수억년간 형성돼 온 갖가지 모양의 종유석이 연출해 내는 비경이 숨어 있다. 종유석이 형성되며 만들어 낸 불상의 형태는 불자들을 더욱 감동시킨다. 천연동굴은 대개 습하다. 11~14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해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훈훈하다. 우리나라의 동굴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지방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역에 있어 찾아가는 길부터 남다른 감흥을 준다. 또 인근에는 어김없이 유수한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어 동굴탐사와 함께 마음을 쉬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삼척 환선굴

덕항산, 촛대봉 등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산악경관을 자랑하며 한국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는 삼척시 대이리 동굴지대에 환선굴이 있다. 이 지대에는 환선굴, 양터목세굴, 덕발세굴, 제암종유, 큰재세굴 등 동굴이 밀집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환선굴은 총연장 6.2km에 개방구간 1.6km로 중앙 최대 석회동굴이다. 이곳에는 폭이 100m를 훨씬 넘는 광장과 옥좌대, 크고 작은 돌폭포 등 어느 동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멋이 숨겨져 있다. 환선굴을 중심으로 1시간 거리에는 영동지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철불상이 봉안된 삼화사, 산대의 고찰 삼장사, 영은사, 천은사 등 사찰이 위치해 있다. ☎(0395)41-9266

가는 길 서울 청량리에서 영동선 이용, 신기역에서 하차, 승용차는 동해고속도로 태백IC를 경유해 신기면까지.

동해 천곡동굴

두타산 무릉계곡과 삼화사 그리고 동해를 한눈에 바라보는 감추사 절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천곡동굴. 강원도 동해시 초록봉 기슭의 언덕밑에 배태하고 있는 천곡동굴은 석회암이 침식해 생성된 종유굴이다.

총 연장 1400m로 작은 규모의 동굴이지만, 한국의 동굴 중에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동굴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곳의 자연학습장에는 동굴 생성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0394)530-2488

가는 길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동해행 버스 이용. 동해에서 천곡동굴행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영월 고씨동굴

영월에서 단양쪽으로 6.4km 떨어진 남한강 상류지역에 5억년전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석회암동굴이 고씨동굴이다. 임진왜란때 왜군의 만행을 피해 고씨일가로 이루어진 부락 주민들이 피난했다 하여 고씨동굴이란 이름을 달았다. 총길이 6.3km인 고씨동굴은 절묘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장관을 이뤄 인위적 조각품을 방불케 한다. 이중에는 동굴진주, 돌장미, 물부처 등 종유석이 특유의 관 광채를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적멸보궁 법흥사와 영월 보덕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장릉을 찾아 역사를 배우는 것도 권할만 하다. ☎(0373)70-2545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영월행 직행버스 이용. 승용차는 제천에서 38번 국도 경유해 영월까지.

단양 온달동굴

온달장군이 도를 닦았다고 전해오는 온달동굴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훼손되지 않은 태고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현재도 동굴이 계속 생성하고 있다. 온달동굴은 4억5천만년 전에 생성된 종유굴로 희백색의 석순과 아기자기한 여성스러움이 특징이다.

온달동굴을 한바퀴 도는 데 30분이 소요된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동굴 왼편 산꼭대기에는 온달산성이 1400년의 세월에도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 산성에 올라서면 남한강과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0444)423-8820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구인사행 버스 이용. 승용차로는 중앙고속도 서제천IC를 지나 5번 국도 이용해 신단양까지.

단양 고수동굴

동굴 길이 1.3km. 그러나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이 다듬어낸 고수동굴을 걸어 다니는 것은 즐거울 그 자체다. 고수동굴을 장식하고 있는 종유석의 형상은 치솟기도 하고 비단폭포처럼 흘러 내리기도 하는 천태만상.

이중에서 신비한 광채를 발하고 있는 촛대바위, 천불동, 만물상 등이 단연 백미이다. 시간을 넉넉히 잡는다면 단양팔경을 둘러보고 죽령을 넘어 영주·봉화지역의 희방사, 부석사, 비로사, 축서사 등 고찰을 찾아 법당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희방사는 신라시대의 두운(杜雲)선사와 호랑이에 얽힌 창건설화가 전해지는 고찰. ☎(0444)423-3071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단양행 버스 이용. 승용차는 영동고속도로 남원주IC 경유, 제천서 5번 국도 이용해 단양으로 가면 된다.





◇언양 자수정동굴에서는 자수정의 화려함과 부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울진 성류굴

신라 31대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가 굴안에서 수도하고 사찰을 건립한 동굴 사찰 성류사.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성류사는 없지만 성류굴은 남아있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길이 470m 석회암동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류굴는 기기묘묘한 석순 석주 석탑 등으로 금강산을 연상케 해 일명 지하금강이라고도 불린다. 만불상, 지옥동, 미륵동 등 12개 크고 작은 광장이 있다. 30분 거리엔 불영계곡의 절경 속에 위치한 불영사가 있으며 북쪽으로 월보산 유금사가 있다. 유금사에서는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0565)82-4306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행 버스 이용. 승용차는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36번 국도를 이용.

언양 자수정동굴

'성실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 자수정과 인공 조성된 부처님상을 볼 수 있는 언양 자수정동굴. 이 동굴은 한때 세계 최대의 자수정 생산지였다가 폐광 후 관광동굴로 탈바꿈한 인공동굴. 총 연장 2.5km인 자수정동굴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는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자수정동굴에서 영취산과 적멸보궁 통도사, 석남사, 운문사 등으로 가는 길은 경관이 좋다. 영취산은 인도의 명산 영취산과 모양이 비슷해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할 때 이름을 빌렸다고 한다. ☎(052)254-1515

가는 길 서울 경부고속터미널에서 울산행 버스 이용. 승용차는 경부고속도로 언양IC 경유해 36번 국도 이용.

제주지역 동굴들

제주 화순로 해변에 우뚝 솟은 산방산. 이 산 중턱에는 100여평 규모의 산방굴사가 있다. 절이 아니라 단지 불상이 모셔져 있다. 천여년전 고려 혜일법사가 불상을 모시고 수도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산방산은 천연기념물 236호로 지정된 쌍용굴과 가깝다. 쌍용굴이 있는 곳은 협재동굴지대로 협재굴, 재암천굴, 황금굴, 초깃굴 등이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홍시환박사의 동굴이야기



땅속에 펼쳐진 자연신비 '감상' 들어갈땐 최소한의 소지품만

우리나라 동굴은 생성원인에 따라 석회동굴 용암동굴 해식동굴로 구분합니다. 종유굴이 바로 석회동굴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기 쉬운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용암동굴과는 달리 내부에 종유석과 석순, 석주, 석화 등의 장관을 담겼 감상할 수 있는 동굴이죠. 이것은 지표면에서 스며든 수분이 석회암층을 용해시켜 동공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천정과 벽면에 갖가지 종유석과 석순 등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암동굴은 용암의 표면이 응고될 때 내부의 가스나 용암이 밖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생긴 터널 모양의 동공입니다. 단조로울 수밖에 없겠죠.

동굴의 수명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생태계가 얼마나 잘 보존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개방이 되면서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바른 동굴탐사는 훼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굴에 들어갈 때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람객 소지품이 바로 동굴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동굴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동굴학회 명예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니원품(泥洹品) ②

持則動虛則淨 의즉동허즉정
動非近非有樂 동비근비유락
樂無近爲得寂 락무근위득적
寂已寂已往來 적이적이왕래

의지하면 흔들리고 마음 비면 청정하다
흔들림은 가까이 할 것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적멸에 들어
고요하고 고요하여 생사 길에 오고감 없다.

來往絶無生死 래왕절무생사
生死斷無此彼 생사단무차피
此彼斷爲兩滅 차피단위양멸
滅無餘爲苦除 멸무여위고제

오고감 없으면 생사가 없고
생사길 끊어져 이승 저승 없으며
이승 저승 다 없어져
남음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比丘有世生 비구유세생
남이 있고 지음이 있는 자
그는 요체를 얻지 못하리니
만약 이미 나지않는 이치 깨달았으면
존재도 없고 지음도 없다

則生有得要 즉생유득요
從生有已起 종생유이기
作行致死生 작행치사생
爲開爲法果 위개위법과

태어났기에 요체 얻게되지만
그를 좇아 존재한다는 생각 일어나면
행을 지어 생사에 이르나니
이는 제법의 과보를 열어 보인 것

從食因緣有 종식인연유
從食致憂樂 종식치우락
而此要滅者 이차요멸자
無復念行迹 무부념행적
諸苦法已盡 제고법이진
行滅湛然安 행멸담연안

먹어야 사는 존재라서 인연이 있고
먹는 것 따라 근심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어코 없애 버리면

의지하면 흔들리고 마음비면 청정
고요하면 생사길에 오고감 없다

有有有作行 유유유작행
有無生無有 유무생무유
無作無所行 무작무소행

비구가 몸 받아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존재한다 생각하면 짓는게 있으나
태어났다는 생각 없으면 존재도 없는 것
마음에 지음 없으면 행한 바도 없으리라

夫唯無念者 부유무념자
爲能得自致 위능득자치
無生無復有 무생무부유
無作無行處 무작무행처

무릇 마음에 한 생각이 없는 자
능히 스스로 열반에 이르리니
남이 없으면 다시 존재함도 없고
짓는 것 없으면 다시 갈 곳도 없다

生有作行者 생유작행자
是爲不得要 시위부득요
若已解不生 약이해불생
不有不作行 불유불작행
다시는 행한 자취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니
온갖 괴로움의 법 이미 다하고
행도 사라져 맑고 편안하다

比丘吾已知 비구오이지
無復諸入地 무부제입지
無有虛空入 무유허공입
無諸入用入 무제입용입

비구여, 내가 이미 알았거든
다시는 들어 갈 자리가 없을 터
허공에 들어감도 없고
쓰임에 들어감도 없다

無想不想入 무상불상입
無今世後世 무금세후세
亦無日月想 역무일월상
無往無所懸 무왕무소현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생각 없음에도 머물지 않으면
금생도 없고 후생도 없다
하루니 한달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가느니 매달려 있느니도 없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번뇌 근본 제거못하면

도암스님 〈대승종 종정〉



약력
- 1920년 경기 용인 生
- 1935년 법륜사에서 박대륜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38년 양주 봉선사에서 사미계
- 1938년 철원 심원사 화산경원수료
- 1939년 개운사에서 박한영스님에게 구족계
- 1988년 대한불교 대승종 창종, 초대종정에 취임
- 現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 주석

우리집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나와 내 형님, 동생이 모두 출가를 했습니다. 한 집에서 다섯 명이 스님이 되는 것도 과거세부터의 지중한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할아버지께서는 60세에 마곡사로 출가를 하셨는데 늦깎이도 그런 늦깎이가 없지요. 그런데 출가를 한 동기가 참으로 기막혀요.

할아버지는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어느날 둘째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곤드레 만드레 된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야단을 쳤더니 술김에 욱 해서인지 바로 산으로 가 목을 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날로 재산을 다 아들들에게 분배하고는 마곡사로 가 출가해 버렸지요. 어느날 기산스님이 된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와서는 "너희가 6형제를 두었으니 3명은 출세시키고 3명은 출가시켜 도인을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한사람만 출가해도 구족이 천상에 난다는데 아들이 6명이나 있으니 그 반을 부처님에게 바쳐 집안 전체가 불은을 입게 하라는 것이었지요.

하여튼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형제 셋이 중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머리를 깎은 계기가 또 기막혀요. 우리 사촌이 토목과장이었는데 수원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닭과 소도 키우고 잘 살았어요. 동생이 그 사촌 일을 도와주었는데 일이 힘드니 사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꼴인가 하는 비참한 마음이 들었던지 논에서 물꼬를 트다 고꾸라졌어요. 누가 업어왔는데 머리를 다쳤는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용화사에 있었는데 절에 데려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수씨가 가까이 있는 무당을 불러 굿을 크게 했답니다. 그래도 낫지 않고 정신이상이 더 심해지니 장정들 셋이 묶어가지고 내가 있는 절에 데려다 놨어요. 그래 미친 동생을 이끌고 삼칠일 기도를 지성으로 했지요. 그랬더니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 바로 법륜사로 가 출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집 사연이 이렇듯이 사람사는 것은 모두가 고해(苦海)요, 불난 집의 형국이라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우리의 모든 삶이 고통입니다. 〈12인연경〉에서는 "번뇌에서 업이 생기고 업에서 고가 생기고 고에서 번뇌가 생긴다. 이 세가지는 끊임없이 상생(相生)하여 머물러 있음이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들 인생사에 있어서 과거세로부터 이미 어어져온 무명의 번뇌를 제거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고는 영영 없어지지 않고 내세, 그 내후세까지도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고의 근본, 번뇌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은 생활 곧 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출가하여 부처님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의 실상을 바로 보아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무상한 것은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 괴로움은 곧 무아(無我)라는 진리를 받아들여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겠다는 의미이지요.

내 속명이 성품 '성(性)'자 길 '도(道)'자 '성도'입니다. 성품을 닦아 도인이 되라는 뜻에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인데 나는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16세에 사간동 법륜사에서 출가했습니다. 공양주 별좌를 3년 하며 절생활을 익혔어요. 그때 5원씩 봉급을 탔는데 공부하기 위해 모아두었다가 양주 봉선사 불교전문강원에 가서 운허스님에게서 경학을 배웠지요. 금강산 유점사에 선지식들이 많이 있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점사는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80여명의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를 지내며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지요. 유점사에서 같이 공부한 스님들이 덕암스님(현 태고총림 방장) 법흥스님(현 원효종 종정) 능인스님 등이예요. 거기서 지내다 유점사 말사인 철원 심원사 화산경원(華山經院)에서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를 모두 수료했습니다. 심원사에서는 노전 볼 사람이 없어 노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김장같은 것을 하면 무채를 아주 많이 썰어야 했는데 썰기가 지루하니까 누가 잘 써느냐 내기를 했어요. 채를 썰어 도마를 탁 쳐서 그 채가 천정에 가 가장 많이 붙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런 것인데 내가 2등 한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일반사회에서는 물론 절에서조차 말을 함부로 하고 헛소리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강원에서는 아무리 나이어린 사람에게도 '하게'나 '해라'를 하지 않고 존대말을 했지요. 말부터 남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예절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지요. 내쪽에서 공손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예절을 갖추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회 전체가 예절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절바르고 자비심 많은 사회가 되어야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고 인류가 화평합니다.

사람은 본래 청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명에 휩싸여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정한 마음이 연기의 이치에 의해 밖으로 발산되어 나타나는 힘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자(慈)'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悲)'는 남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지요. 요새, 사랑 사랑 하고 어디서나 사랑타령을 하는데 불교의 자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저변에는 다분히 이기적인 일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각박할수록 자비 필요
동체대비 · 사홍서원 뜻 잘 새겨
연화정토 일구어 갑시다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주머니속 대장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장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삼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5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설법',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큰스님 수행한담

행복 기대할 수 없어요"



◇도암스님(맨 오른쪽)이 19살이던 1939년, 은사인 박대륜스님을 모시고 선암사를 다녀오는 모습.

"내가 먼저 남을 공손히 대하면 상대방도 예절을 갖춥니다 예의바른 사회가 잘사는 것이죠"

"자비는 순수한 정에서 나오는 생명체 발심하고 서원하고 실천하면 곧 보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 증오로 돌변할 지 모릅니다. 또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럴수 없다고 하는 차별심이 들어있는 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떤 인연에 좇아 생겨났을 때 또는 자기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서 설정되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무한의 힘으로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한 차원 높은 형태의 것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자비는 바로 이와같은 모습의 사랑입니다. 자비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른 바 불염오애(不染汚愛)라 표현되는 순수한 정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만 자비의 세계에서는 사랑하고 말고 할 원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을 세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다짐이고 실천이지요.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발심하고 발원하더라도 그 마음에 반드시 자비의 실천이 따르지 않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을 세워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신심을 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심을 내느냐. 원효스님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곧은 마음(直心)을 일으킴입니다. 그것은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이고 모든 사물의 근본을 비뚤게 생각하지 않는 바른 마음입니다. 둘째는 깊은 마음(深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의 근본이 참되고 한결같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마음이지요. 셋째는 크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大悲心), 즉 한 사람의 중생도 버림이 없이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나는 신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현대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하려면 남을 위하는 이타심과 자비를 가져야 한다. 이사무애 사사무애 원융무애의 도리로 동사섭을 해야 하고 차별을 두지 말아라. 불자들이 남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성내고 자기만 알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부처님제자라며 절에 아무리 다녀도 헛 거예요. 책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전에 벌써 민주주의를 주창하신 분이에요. 평등한 성품은 귀천이 없어 거지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이 성불할 수 있는 부처씨앗을 가지고 있어 열심히 수행한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발원했으면 실천해야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근본은 참되고 한결같다는 사실을 믿고 즐겨 그와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원효스님은 "신심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신심은 성숙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원하고 발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발심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佛法)이라는 진리에 젖어들어 마침내 자기자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원을 세워 행한다는 것은 또 남을 도와 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원(願)'은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가령 농사가 잘 되도록 마을제를 열어 빈다거나 또는 자식을 위해 비는 어머니의 기원 등은 그것이 비록 성취된다 하더라도 극히 유한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칠 따름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나 돈벌이가 잘 되도록 소원하는 데 그친다면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 80이 가까워 몸은 거동이 힘들지만 조석으로 〈교왕경〉을 독송하고 〈능엄경〉도 독송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사이신 대륜스님은 기도에 아주 철저하셨던 분이예요.

신심에 있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어요. 새벽여 일어나 예불모시고 기도에 들어가면 6시가 넘어서야 끝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서원을 세워 지성으로 하세요. 법회때 늘 불자들은 사홍서원을 하지요. 사홍서원을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 뜻을 잘 새겨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원입니다. 마치 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우듯, 즉 각성하지 못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 가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저 가이없는 중생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큰 뜻이지요. 두번째인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번뇌망상을 남김없이 끊어서 저 무량한 법의 바다로 들겠다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번뇌 아닌 것이 없다 할만큼 온갖 번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저변에는 귀중한 불성이 잠겨있어서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보리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불성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첫 단계는 바로 번뇌를 끊는데서 얻어집니다. 그 많은 번뇌를 남김없이 끊어버림은 무량한 법의 바다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문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안에 갇무리되어 있는 온갖 보배도 이 입구를 통하지 않으면 볼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불교의 세계에 들 수 있는 문은 바로 부처님 법문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위없는 대도라 할 지라고 힘써 배우고 닦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여 이룰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이지요.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무변하여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그 깨닫고 행하는 바가 완전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각행원만이라고 하는데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와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는 서원은 부처님의 교법에 들어 힘써 배운 바른 도리 이루어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하자는 것이지요.

요즘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일수록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동체대비의 마음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가 이땅에 전래된지 1600년 동안 민족과 더불어 키워온 자비의 나무가 지금은 비실비실 시들어 가지나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비는 어떠한 한계도 없이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불교의 진리, 대승의 수레가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세상이 각박할 수록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사회를 아름답고 원만하게 만들어 갑시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욕심 또한 무한정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대승의 보살이 되고 수레가 되어 연화정토로 일구어 나가는데 온 불자들이 앞장 서야 합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나와 경전 62

지장십륜경



운곡
태고종 중앙포교원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집하여 이루어진 것이 경전이라면 거기에는 교리적으로 천심(淺沈)이나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 이해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이해한 것을 기준 삼아서 교리적 우열이나 심천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석존께서는 45년 동안 팔만사천 법문을 설하심에 있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수기설법을 하셨으며, 여래의 교학승들이 교상판석을 했던 것이다.

필자가 〈지장십륜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근본불교에서 중생들의 윤회전생이나 인과응보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업사상의 대승적 전개를 살펴보기 위해 여러 경전을 찾아 보던 과정에서다.

10선업 · 10무의행의 인과 설명 오탁의 세상 바로 사는 길 제시

이 경의 갖추어진 이름은 〈대승대집지장십륜경〉인데 줄여서 〈지장십륜경〉 또는 〈십륜경〉이라고 부른다. 대정신수대장경에서는 권13에 등재되어 있으며, 당나라때 현장법사가 한역한 것으로 서품, 십륜품, 무의행품, 유의행품, 참회품, 선업도품, 복전상품, 획익츽류품 등 8품 10권으로 되어 있다.

'서품'의 내용은 이렇다. 부처님께서 가라제야산에서 〈대방등대집월장경〉 설법을 마쳤을 때, 모여있던 대중들의 양쪽 손바닥에 여의주가 들려져 있으며, 그 여의주에서는 광명을 나투어 항하사와 같이 수많은 불국토를 모두 비추어주고 있었다.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왜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무량아승지겁동안 오탁악세에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고 제도해 온 지장이라는 보살마하살이 지금 수많은 보살들과 더불어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공양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지장보살이 신통력을 나투어 변화시킨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륜품'에서는 혼란에 빠진 나라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회악이 만연하게 된 것을 무불시대(無佛時代)인 오탁악세에 비유했으며, 난행고행을 하면서 6바라밀을 닦아 왕업의 10가지 덕상을 갖춘 왕자가 왕위에 올라 그 나라 백성들을 모두 편안하고 이익되게 한 것을 10선업도와 6바라밀의 실천을 통하여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켜 그들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

'무의행품'에서는 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범천이 어떻게 삼매를 닦으면 되는냐는 물음에 대하여 10가지의 악행을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따르게 되면 선정을 이룰 수 없으며, 출가한 구도자에 대해서는 10가지의 수승한 생각을 지녀야 되고, 오탁악세에는 10가지 악륜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의행품'에서는 10가지 무의행을 행하게 되면 6도윤회함에 있어서 인도(人道)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10악업을 지으면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종자가 끊어지니 •10종의 유의행법을 행해서 불퇴전의 종자를 심을 것을 권하고 있다.

'참회품'에서는 악업에 의한 과보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생들이 무의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참괴심을 내어서 업장을 발로참회(發露懺悔) 하도록 하고 정로법인(正路法忍)을 획득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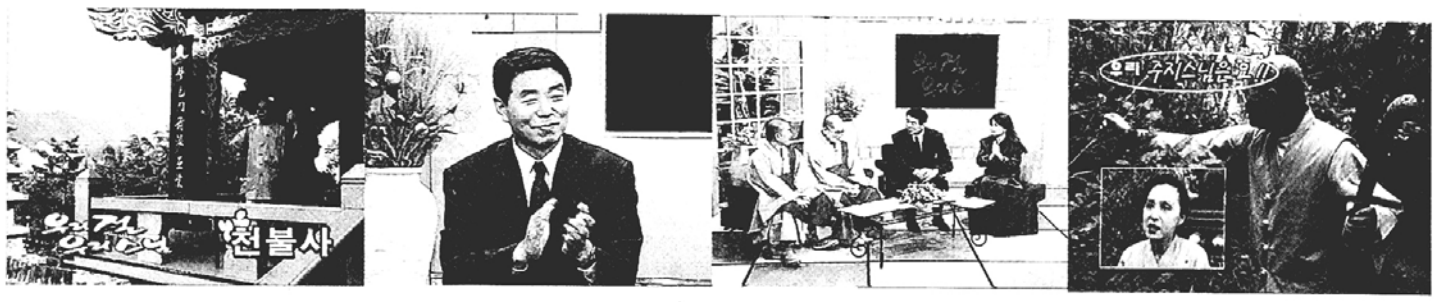
'선업도품'에서는 10선업도를 가리켜 보살의 10륜이라 했으며, 10선업도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익과 인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복전상품'에서는 6바라밀과 선교방편, 그리고 대자대비를 무주상 무주심으로 행하면 이것이 대갑주륜(大甲冑輪)이 되어 삼악도에 나아가는 것을 방호(防護)하여 대복전을 이룬다고 설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은 전도된 가치관에 따른 사회혼란이 일고 있는 등 가히 오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경전의 일독을 권하는 이우도 새로운 마음으로 불국토를 건설해 보자는 생각에서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죄 씻고 복 지어 성불의 길 닦으리"

"과거무량겁으로부터 중생들은 밝음을 모르고 행하여 그것이 무명의 씨앗이 되어 일체 중생들의 고(苦)의 원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으로 행한 업으로 인하여 생전에 그 업을 소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했다.

윤달에 불자들은 3사 순례를 한다. 윤달에 세곳의 절을 참배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이 무량하다는 말이 전해진다. 불교문화체험기행단 2백7명은 12일 강원도 등명낙가사, 삼화사, 정암사를 순례하고 삼화사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재 회향식에 동참해 업장소멸과 무량공덕을 기원했다.



◇정암사 수마노탑 전경.

불교문화 체험기행 7월

등명낙가사 · 삼화사 · 정암사 3사 순례

유모차에 갓난아이를 태운 가족,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 다정한 연인들과 손을 맞잡은 노부부 등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11일 밤 10시 정동쪽을 향해 출발했다.

어둠을 가르며 안개비가 내리는 대관령을 넘어 기행단이 처음 도착한 곳은 강릉시 정동진리에 위치한 등명낙가사(주지 청우). 태백산의 동쪽 정동(正東)에 위치한 등명낙가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처음은 수다사라고 하였으며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에 왜침을 막고자 수중보궁을 세웠다고 전한다.

일출 2시간 전, 등명낙가사에 도착한 기행단은 옷깃을 여미고 영산전을 찾았다. 청자로 만든 5백나한상이 맞아주는 가운데 먼저 삼배를 올린 일행들은 계속해 절을 하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참선정진에 들었다. 법당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일행들은 푸른 동해바다를 등진 채 처마밑에 삼삼오오 모여 부처님을 향해 합장례를 올리며 예불시간을 기다렸다. 3사순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등명낙가사 청자 오백나한 친견 통일 발원

삼화사 예수재 동참 "번뇌집착 훌훌 벗자"

정암사 보궁·수마노탑 참배 국난극복 다짐

똑또르르 똑또르르… 도량석으로 아침 예불이 시작됐다. 범종타종에 이어 기행단들이 한 목소리로 올린 새벽예불은 쾌방산 골짜기를 따라 울려퍼졌다. 새벽예불이 끝날 즈음 어둠의 베일속에 묻혀 있던 경내의 웅장한 풍광이 하나 둘씩 드러난다.

이어 기행단이 찾아간 곳은 '모래시계'로 널리 알려진 정동진역. 경복궁에서 정동쪽에 위치한 정동진역(해돋이역)은 동해의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영동선의 한 간이역으로 일명 '고현정 소나무'라 불리는 소나무와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잔뜩 낀 비구름으로 일출은 볼 수 없었으나 푸른 파도에 그동안 지은 삼독이 씻겨 내리는 듯 했다.

"절에 자주 다닌다고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라면 참선 염불 간경 주력중 한가지라도 열심히 익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질문할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자의 참된 도리이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불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진하십시오."

낙가사 주지 청우스님의 법문을 뒤새기며 일행은 두타산 신흥사로 발길을 옮겼다.

'세 나라를 하나로 화합시킨 절'이라는 뜻을 지닌 삼화사(주지 원행). 불교화합, 지역화합, 남북화합 이렇게 세 화합을 기원하며 넓은 암반위를 힘차게 흐르는 푸른계곡을 거슬러 약 20분 올라가 삼화사에 다다랐다. 불상조성기가 새로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철불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에서 생전예수재 및 영가천도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가 엄숙하게 열리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삼화사 철불은 지난해 5월 약사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백50여자의 명문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통일신라시대 노사나불로 제작시기가 확인된 철불의 상호에서는 지혜로움과 인자함이 느껴지는데 현재 국보심의중이다.

인심이 후덕하다는 강원불자들과 시련 과불이운 소정 등 예수재를 함께한 기행단은 유주무주 고혼천도 및 업장소멸을 발원했다. 다라니경을 머리에 이고 삼층석탑(보물 제1227호)을 도는 일행들의 모습은 한정의 업장까지도 소멸케 하려는 듯 간절하다. 또 법회장에 마련된 경제난 극복과 실직자들을 위한 모금행사에도 참여해 국난극복의 열의도 살핌케 했다.

이날 법회에서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은 "바른 믿음 없이는 바른 공덕을 쌓을 수 없다"며 "온갖 집착과 망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뉘우치고 선행을 다짐하는 참회를 해 우리 모두 무량공덕을 쌓자"고 설법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정골사리가 봉안돼 있어 5대 적멸보궁중 하나인 정암사(주지 화광). 대웅전에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팔단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기념물 열목어가 사는 곳으로 그 맑고 깨끗함을 짐작할 수 있는 정암사는 수마노탑이란 특이한 석재로 된 탑이 있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마노석으로 만든 탑으로 높이가 9m에 이르는 칠층모전석탑으로 탑전체가 같이 30~40cm, 두께 5~7cm 크기의 회색 마노석으로 정교하게 쌓아졌다.

전란이 없고 나라와 백성이 복되게 살기를 기원해 세워졌다는 수마노탑 앞에서 일행들은 연신 절을 올린다.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된 불심으로 경제난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발원했다.

3사순례를 마치고 귀경하는 기행단의 얼굴들에는 환희심과 뿌듯함이 가득차 있었다.

글=김중근 기자(gs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삼화사 생전예수재 회향식에 동참한 불교문화체험기행단. 삼화사 신도들과 함께 다라니경을 이고 탑돌이를 하며 새 삶을 발원했다.



◇지난해 5월 1백50여기의 명문이 발견된 삼화사 철불. 통일신라시대의 노사나불임이 확인돼 현재 국보심의중이다.



◇등명낙가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친 후 주지 청우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있는 불교문화 체험기행단.



◇국태민안을 위해 건립됐다는 정암사 수마노탑 앞에서 체험기행단은 국난극복을 기원했다.

■ 윤달 불교풍속 '예수재'

내생과보 미리 닦는 의식 참회 통해 재발심

불교계의 대표적 윤달 풍습으로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지내는 사찰이 많다.

생전예수재는 글자 그대로 생전에 다음생에 받을 과보를 미리 닦는 의식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청정하게 불법을 배워 모든 중생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겠다는 자기다짐의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예수재를 지낸 공덕은 봄에 뿌린 한알의 씨앗이 가을에 천만개의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설했다. 예수재를 지냄으로써 10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전해진다. 가난을 덜하고 해고를 면하며 조상이 극락왕생하고 수행이 늘어나며 몸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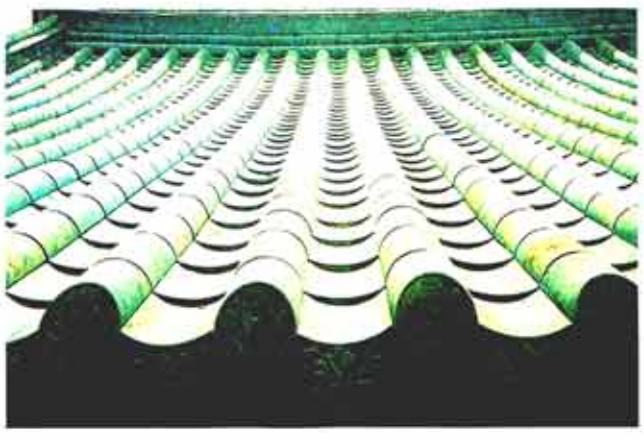
4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윤달에 예수재를 지내는 근본적 이유에는 '원래 없었던 시간을 덤으로 받았으니 헛되이 쓰지 말고 선업을 쌓는 기회로 삼으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다.

예수재를 지냈으니 죄업이 다 씻겼다고 자신 만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수재는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를 통해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겠다고 재발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장한장에 혼을 넣어 장인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 기와불사는 청동주물기와로 시작하십시오.

청동주물기와 600여년만에 복원성공!





특 허 출 원 제 15145호
실용실안등록 제 119053호
의장등록출원 제 15785호

KBS 1TV「체험 삶의 현장」
96년 9월 9日 방영

10개 공사 한정 특별시공합니다.
평당 ₩640,000

● 특장점 ●

■ 내구성 및 경제성
재래식기와의 무거운하중(평당 600~700kg)과 잦은 동파 및 부식으로 건축주님이 단축된을 청동주물로 주조하여(평당 200~300kg)으로 중량을 대폭감소 하였으며 천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리 주석 아연을 합금하여 만들었습니다

■ 방수성
정토, 탁토, 강회를 혼합하여 견고히 시공하여 기와 시공시 1m/m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따맞춤 가구처장 시공되므로 100%방수를 자신합니다.

■ 미관성
청동제품의 친가는 수천년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증후감을 풍기어 왔으며 청동주물기와도 세월과 함께 고풍스런 디테기와 변치않는 멋진한 멋을 자랑하며 우리의 시청 및 건축물을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서게 할 것입니다

■ 영구성
청동제품의 수명은 수천년전의 사용하던 유물들이 땅속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토질의 염구학이며 건축물노화로 인한 재시공시에도 100% 재사용됩니다

주요시공내역

1986년 88아세안게임 이동성화로 제작
1988년 88올림픽, 동일대종조각, 주조
1986~1996년 광주, 전주, 청주, 여수, 전국체전 성화대조각 청동주물 제조
1992~1996년 일본타이니치 갤러리 청동주물 공예품, 납품
1995년 3월 경남 함안 안씨문중 제작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10월 서울 삼각산 삼각사,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5년 5월 천안 각원사에 경주 황룡사 윤십층 치미 국내최초로 복원 시공
1996년 3월 부산 범어사 (청련암) 대웅전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6년 5월 LG그룹 구씨문중제작 청동주물기와 시공
1997년 정릉 영각사 대웅전 시공. (그외 다수 시공중)

⊙ 함께 일할분을 모십니다. ⊙
· 전국대리점 모집(각도별)
· 수출 및 무역, 사업에 동참하실 분
· 사업설명회 : 1998년 7월 25일 (오후 2시)
· 장 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번지

우영기업
본 사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5
주 물 사 업 부 : 02)473-1958
인테리어사업부 : 02)482-3587
F A X : 02)474-1550
http : //www.wooyong.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번뇌 재료삼아 공부…그맛 알면 참나 밝혀"

여러분께 내가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항상 말씀드려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에 얼마나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진화됨에 다라 몸도 바뀌며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누히 하는 말이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금방 다른 말을 할 떠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구에만 매달리고 글자풀이에만 매달린다면 이 공부와는 천부당 만부당하게 멀어져 버리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중(中)세계의 쫓고 쫓기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억겁을 통하고 또는 끝간데 없이 그 차원에서 끼리끼리 모이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며 인과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나 그렇게 되어선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없다면 바깥 경계의 보고 듣는 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볼 뿐이지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생활하는 데도 하나 이익이 없습니다.

바른쪽 두뇌는 물질세계로서의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왼쪽 두뇌는 깊은 속의 거기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 중에 의학적인 전문인들도 계시겠지만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서 점검을 해서 들이고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대로 물질에 끄달리고, 정신에 끄달리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은 짓는 중에도 금이 가고 무너지는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아니 육신 속에 인과로 인해 악업, 선업이 뭉쳐 있으면서 좋고 나쁜 것이 수없이 나오는데 좋은 것은 잠시 잠깐이고 언짢은 것, 화내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강도질 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 술 먹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 등 일체를 일으키는 그놈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그러한 의식들이 인연으로 뭉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만 개가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하나가 뽑히는 것이 부모에게 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살던 악업, 선업을 짊어진 채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뭉쳐진 악업, 선업이 과거의 것은 현실로 모이고 미래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기에 없으니 현재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요하고 강요당해서 악업 선업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쁘다 좋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마음으로 중심을 지키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들이는 것을 다스려서 들이고, 내는 것을 다스려서 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통해서 두뇌에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게 우리 마음 속에서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사대로 통신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오기도 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어서 홀연히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중용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풀 한 포기 불교 아닌게 하나도 없다고 항상 말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고도 들은 사이가 없으면서, 들은 건 분명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2등은 없고 1등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공부하는 데도 2등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1등이 되면 일체제불, 일체중생, 하다 못해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섭류해서 한마음으로써 돌이 아닌 도리를 알면 그때에 비로소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중생은 중생이요, 풀은 풀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거기 놓지 않는다면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얻을 것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일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악업, 선업이 과보가 되어 가지고 인과,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이 모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바로 그런 데서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서 녹여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부터 알아야 바깥세계를 알지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야 어찌 바깥 세계를 바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인연 지어온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 하나 위장, 척추, 콩팥, 심장, 위, 간장, 식도, 소장, 대장 등에 모두 집을 짓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악은 악으로만 나가는 반면, 선은 돈을 주고, 악하게 하라 해도 안합니다. 그러니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여러분 마음속, 몸 속에서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는 일을 안되게 하고, 남을 증오하게 하고 남을 싫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행의 원인입니다. 남을 때려 죽이는 것만이 악이 아니죠, 상대를 둘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둘로 보고 항상 남을 원망하며 남의 탓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찌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이 공부하는 데는 여간 지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마음의 눈과 또 육안을 겸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자재로 들이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들일 때, 점검을 해서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야만이 모두 통신이 되고 또 안으로 들이는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전부 보살로 화한다 이 말입니다.

악업, 선업이 들이 아니라 하나로서 모든게 하나로 돌아가니 끝간 데 없는 진리이자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천백억 화신이 되고 천백억 화신 속에서, 즉 말하자면 중생들이 응해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만 가지 만만 가지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한 찰나에 응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천백억 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서부터 제도를 해야지 바깥에 끄달리면서 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항상 이 마음이 그렇게 충족되고 내가 이 이치를 완전히 알아야만 의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지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며,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체가 다 그 한마음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또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며 마음이 중심에서 양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마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경계, 팔죽솥이라면 끓을 때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도 분수, 저것도 분수 했듯이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의 어느 한 기능에서 만약에 과올를 일으킨 대도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도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서 부자 부럽지않게 마음부자가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여서 조금도 가난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당당한 것이며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묘한 도리를 모른다면 늘 가난하기에 바쁘지요. 가난 뿐만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렁이 같은 미물들을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진드기도 있으며, 거위도 있고, 촌충이도 있고, 벼룩 같은 것 등 헤아릴 수가 없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만 잘 참작해서 들으세요.

왜 이렇게 우리들의 몸 속에 여러 모습들이 들어 있는가? 그것이 곧바로 모두 자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역사를 볼 때에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는 수많은 공룡시대도 있었죠. 우리 사람이 나기 이전에 미리미리들 그렇게 진화되어서 올라오기 위한 수련으로 수많은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바로 정신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 걸로 인해서 잡아 먹고, 잡아 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이 되어 가지고 또다시 짐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을 살펴볼 때 더 잘 알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속에 그러한 모든 것이 악업, 선업으로 뭉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며, 들이는 것도 말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말겨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

☞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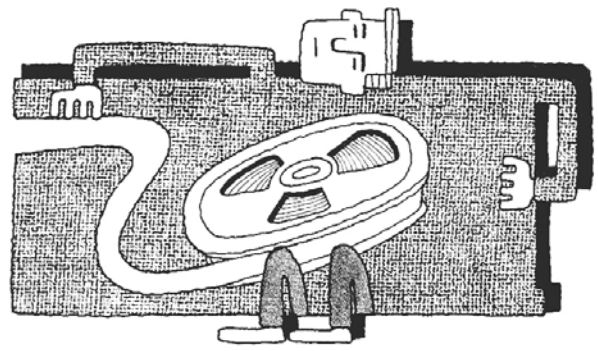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상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원망 하지 말고 항상 내 탓으로 돌리세요"

전쟁터에 2등 없듯 마음공부도 2등 없어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7)

갖고 가지 못할 것을 평생동안 뒤좇느라…

"나의 소유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통 속에 가두고 있다. 중생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싸워 나갈 수 있는 무기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갈수록 더욱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몸 떨어질 때 가져가지도 못한다. 그런 것들은 나를 보호하는 방벽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다.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모든 이익을 다 싸잡을 단 하나의 이익,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줄 단 하나의 욕구, 그러한 참된 이익 참된 욕구를 추구하라. 재화니 권력이니 명예니 하는 것들이 빛을 잃고 말 그런 이익을 좇으라."

평생을 기울여 아무리 많은 재화를 모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단 한 톨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다.

명예가 아무리 드높았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 천하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지녔다고 해도 몸 떨어질 즈음엔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평생 재화를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데 한 톨 쥐고 갈 수 없다니 말이다. 또 몸 아픈 줄도 모르고 혹은 병든 중에도 열심히 추구하고 지키고자 애썼던 권력이나 명예가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니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몸 떨어질 때에 이르러 되돌아 보면 마음 졸이며 살았던 그 많은 나날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허망하기도 할 것이다. 진작에 그럴 줄을 자각했더라면 마음 편히나 살 것을.

아무리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 아니, 가지고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생동안 도둑맞을 염려없고 빼앗길 염려없고 잃어버릴 걱정 없는 게 있다.

평생을 두고 물 쓰듯 펑펑 퍼내써도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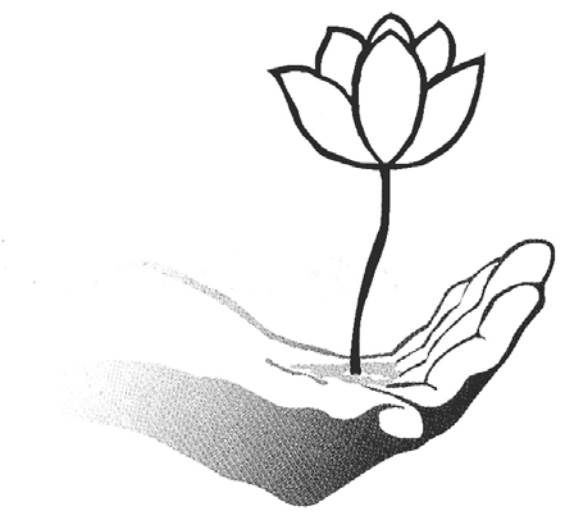
몸 떨어질 때 가지고 갔다가 되 나올 때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 졸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더욱 편해지고 자유스러워 지는 게 있다.

재화 · 권력 · 명예를 다 합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재화하고도, 아무리 많은 재화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위대한 것, 어떤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

지혜의 보석이다. 이 지혜의 보석만큼은 갖고 있어도 잃거나 빼앗길 염려가 없으며 몸이 떨어진다해도 가져갈 수 있다.



결국은 다 놓고 가야할 것을 위해, 아무리 애절하게 원한다해도 속절없이 버려야만 할 것을 위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왕이면 가져갈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게 바른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놓고 가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시 바삐 챙겨야 할 것이다. 그게 현명한 일이다.

놓고 갈 때 놓고 가더라도 사는 날까지는 지니고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한다. 그렇다. 삶이란 곧 소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소유하고 쓰는 것과 얽매이는 것은 다르다. 소유와 소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데 수단이 목적이 됨으로해서 우리는 어느새 거기에 얽매여 주체적인 삶을 엮어내지 못하고 거꾸로 거기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수단을 쓰는 관리자가 아니라 수단에 발목이 잡힌 노예가 되는 셈이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로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관리자로 사는 지혜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들고 남을 탓하지 않는 관리자로 살아야 한다.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지만 버릴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고 비우라는 것이다. 거기에 얽매인 마음의 사슬을 풀어 버리라는 것이다.

버리면 버린만큼 그 자리는 지혜의 보석으로 채워진다. 어떤 것보다도 값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지혜의 보석을 얻게 된다.

협찬 : 이 승 진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전체가 한도량인데 어디가서 또 찾나

☞ 15면에서 계속

져 있습니다. 항상 말했지만 공력이나 전력·자력·통신력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물질세계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가 되며, 그것은 끝간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참다운 열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육신이 죽은 것은 그냥 그대로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 없이 끝없는 길을 괴롭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난다고 남이야 어찌됐건 상관없이 생각 일어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안의 의식들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내는 대로 그냥 따라옵니다. 그럴 때 사람에 따라서 악한 마음이 더 강하냐 선한 마음이 더 강하냐는 차이가 있겠지마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좋은 시대에서 살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데도 악행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만약에 독 있는 독사가 먹는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이 될 것이며, 약초가 먹는다면 그건 더불어 약초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똑같은 칼이라 해도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알고 본다면 한마디도 한 게 없고 한 마디도 한 게 없는가 하면 한 생각 한 것이 없고 행동 하나 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해야 합니다. 실생활속에 도가 있는 것이지 실생활 버리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참나를 발견했을 때 안에서 나오는 대로 행을 한다면 그건 정신계에 끄달리는 것이며 처음 공부할 때에 참자기를 믿고 중심을 세우지 않고 물질세계에 흔들려서 산다면 그것은 물질세계에 끄달리게 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지요. 저 언덕을 넘어서야만이 우리들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고해의 강을 건너가자는 말입니다. 끝없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컴컴하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물질세계에 끄달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만약에 거위, 지렁이들이 그냥 널비하게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벌써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귀신들이 있다면 무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모두 징그럽게만 보이고 무섭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대가 흩어져서 원정으로 돌아간다면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이 남는데 도리를 모르는 영혼이라면 거길 못 건너가는 거죠. 살아있는 때의 의식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둘째는, 기독교·가톨릭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고 우리는 강을 건너고 저 언덕을 넘어서 같이 한자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도리를 모르면 자기가 죽어서도 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니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배가 옵니까? 의식적으로 강에 들어가면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오지 않으니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생각 끄덕하면 참나에 갈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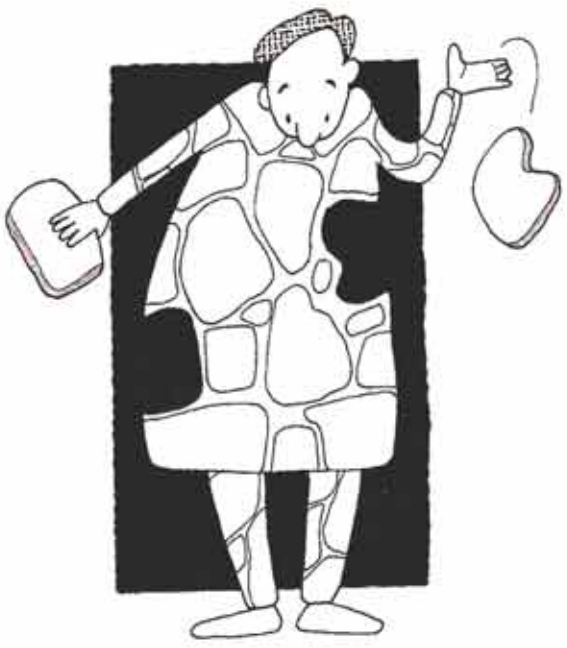
셋째는, 지금 과학적으로 본다면 블랙홀이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바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바퀴가 세번째 단계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어갈 때 타 죽을까봐 못 들어가고 뜨겁다고 못 들어갑니다. 물질세계의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몸이 있는 줄 알고 못 들어갑니다. 나 아닌 나는 없습니다. 뜨거워서 죽을 필요도 없고 간다 온다 할 필요도 없고 어디 들어간다 하여도 들어간 사이가 없고 나온다 하여도 나오는 사이가 없어서 그대로 뚫리고 그대로 여여하건만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길을 못 가고, 또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모습을 그와 같이 해 가지고 보이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가 사대로 흩어지니 내 몸 속의 그 의식들이 앞을 가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하고 한 생각을 넘기면 그냥 보살로 화할텐데 그 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재차 말하지만 빠져 죽을까봐 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타 죽을가봐 불바퀴 속을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빼놓고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내 마음 빼놓고는 도저히 앞뒤 풀린 용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열려 있는데 자기 소견으로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보기 싫어하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잘못하는 걸 보면 탓을 합니다. 속이야 어떻든지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다고 하고 진실로 너는 이렇고 이렇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를 내며 너 두고 보자고 한다면 이러는 마음이 결국 자기를 깎아 먹게 되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있기에 일어나는 것이니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 반면에 바로 내가 공해서 없다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본래 자성불은 누구에게나 있는데도 자기 불성은 믿지 않고,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나고 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나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공덕이 됩니다. 내가 아님이 없기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내 아픔이 아닌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게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일체제불과 일체보살, 역대 조사, 수많은 중생들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그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을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며, 만약에 백정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부처님께 귀의해서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 일을 할 적에나 똥을 쌀 적에나 잘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그것이 바로 내 부처, 즉 한마음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고 뭐든지 거기다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 생각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법이 된단 말입니다. 이 묘한 도리의 무심도법을 어떻게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기만 하면 또 뭘합니까. 아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백 가지 천 가지를 알고 있지만 한 가지도 행을 못하면 하나를 알고 하나를 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이 세상에 모두 살고 있는 자체가 괄만대장경의 증거입니다. 그때 시절에는 그때 시절대로의 용어가 달랐고, 지금 시대에는 현실에 맞는 용어로 바꿔써야 해요. 뜻도 같고 사는 도리도 같습니다만 시대가 자꾸 변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를 가지고 인용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알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말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져버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뜻, 골수를 알아서 한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지닌다면 구태여 염주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백팔염주를 걸고 다니는데 백팔염주가 바로 표현입니다. 백팔번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번뇌 망상이 아니라면 어찌 공부하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백팔이라는건 뭐냐하면 백은 무(無)입니다. 무! 팔은 사무, 사유가 한데 합쳐져서 무의 세계 유의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생각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번뇌망상이라고 하지요. 그 일어나는 마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범신을 이룰 수 있는 수련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온다 해도 허허 웃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하고 믿고 놓으면 되지 끄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붙이 아닌 도리를 알고 나를 동글제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 것이며, 상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고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억겁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며 돌아가면서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다른 구름과 또 모이며 반복되는 세월을 걸어왔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건만도 부처님께서는 한번 행해 본 예가 없고, 한번도 말씀해 본 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수없는 나날을 가르치셨습니다. 꽃을 한 송이 들어서 가르치셨고, 또는 다자탑에서 자리의 반을 내 주시어 가르치셨고, 또 관 밖에 두 발을 내놓으셔서 경발을 가르치셨다 이말입니다. 그 경발의 도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발이 남작해서요? 발이 뭉툭하게 평지 같아서 큰발이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 멸례로서 아니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두가 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드기 발 하나도 이 땅에 딛지 않는 게 없어요. 풀 포기 하나, 지렁이 하나도 이 땅을 딛지 않음이 없으니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은게 경발이다 이 소리입니다. 뜻으로 알아야지 말귀만 듣고서 그대로 그걸 반복해서 외운다면 소용없는 앚이죠.

이 공부는 지식이 많고, 학식이 좋고, 위대하고 부자이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자가 없이 그대로 평등한 것입니다. 늙고 젊고도 없고, 여자·남자도 없으며, 여자 빼놓고 남자만 제일이라고 또 비구만 제일이라고 해서 비구니를 우습게 안다면 자기 나온 곳을 모르는 것이며 나온 곳을 한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알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산하대지는 어머니의 젖줄과 같고 저 태양계는 아버지와 같아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원기를 주고 공기를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우리들은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됩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도 안될 것이며, 불이 없어도 안되고, 물이 없어도 안되고, 흙이 없어도 안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되며, 불·물·바람·흙·사람·우주 개공을 바로 이 한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벌레 하나라도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지 자격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끝간데 없이 지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되면서 옷을 벗어 새옷을 입고, 상대성 원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상대성 원리를 하나로 해서 그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가르친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차 말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두서없이 나옵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밉게 보이든지 두서없이 나오게 하는데 나쁘고 좋고를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서 그 중생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했습니다.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이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죠. 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 화신이 화하지 못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중생을 제도 못하니 그건 보살이 아니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보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큰스님이라 할지라도 이건 이름일 뿐입니다.

> 어떠한 것이
> 나온다 해도
> '거기서 나온거니
> 거기서 해결하라'
> 믿고 놓으면
> 끄달릴 필요
> 있겠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놓지 않으면 얻을 바 없어요"

"기초 튼튼하지 못하면 집 금가고 무너집니다"

괴로움, 병고 또는 가난,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등 모든 재료를 언뜻게만 알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삼아서 모든 걸 거기 놓고 하나 하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해 보세요.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 맛을 알면 흔연히 참자기가 밝아집니다. 보는 대로 느껴지면 알아지고 보는 대로 생각내면 그냥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조상이 따로 있고 또는 부처님의 조상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모두가 한 뿌리이며, 알고보면 부처님께서 해골바가지에 큰 절을 하신 이유도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윤회해서 돌아가는데 모두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며 내 남편 아님이 없고 내 아내 아님이 없으며 내 원수 아님이 없고 내 은인 아님이 없으며 내 적 아님이 없고 내 친구 아님이 없으며 내 주인 아님이 없고 내 손님 아님이 없으며 내 스승 아님이 없고 내 제자 아님이 없으며 내 부자 아님이 없고 내 가난뱅이 아님이 없으며 내 병자 아님이 없고 내 건강한 사람 아님이 없으며 내 죽은 사람 아님이 없고 내 산 사람 아님이 없으며 내 동물 아님이 없고 내 식물 아님이 없으며 내 광물 아님이 없고 내 공기 아님이 없으며 내 물 아님이 없고 내 불 아님이 없으며 내 흙 아님이 없고 내 바람 아님이 없으며 내 우주 아님이 없고 내 삼천대천세계 아님이 없으며 내 법계 아님이 없고 내 허공계 아님이 없으며 내 시방세계 아님이 없고 내 일체제불 아님이 없으며 내 일체보살 아님이 없고 내 역대조사 아님이 없으며 내 수많은 중생들 아님이 없고 내 한마음 아님이 없으며 내 한마음마저 없다는 사실을 한마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내실 때에 보살로서 화해서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며, 만약에 백정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부처님께 귀의해서 마음 가운데 항상 넣고 끊어지지 않는 그 마음, 일을 할 적에나 똥을 쌀 적에나 잘 때나 일어설 때나 앉을 때나 그것이 바로 내 부처, 즉 한마음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고 뭐든지 거기다 놓고 아주 잔잔하게 한 생각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법이 된단 말입니다. 이 묘한 도리의 무심도법을 어떻게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기만 하면 또 뭘합니까. 아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백 가지 천 가지를 알고 있지만 한 가지도 행을 못하면 하나를 알고 하나를 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어떤 신도들은 개가 아프고, 소가 아프고, 젖소가 아프다는 등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들이 다 죽는다면 살림을 망쳐버리게 되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살로 화해서 돼지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독사를 건지기 위해 독사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하나 진드기 하나 안되어 보시는 게 없는 그 마음의 무한량, 광대무변한 이 법을 어찌 말로 다하리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를 떠나서 여러분은 기복으로 믿지 마시고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고기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과 내 뼈다귀만 알지,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시고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진수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형상은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며 부처님은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알고 난 뒤에 저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때까지 형상으로 보이는 저 부처님이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그것까지 증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공부가 익을 때가지는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일체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심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해놓은 것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먹는 반면에 바로 또 자기가 해서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여러분은 내 스승이자 바로 부처이며 법신이며 화신입니다. 재산중이 컴컴할 때나 또는 밝았을 때나,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끝없는 길을 한번 걸어보자고 걸을 때, 돌부리를 차서 발톱이 빠졌어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돌부리를 차게 한 것도 바로 내 스승이로구나 한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인 것을 모르고 어딜 그렇게 다니느냐는 것이죠. 돌이 발톱을 빼놓고 한다는 소리가요, "네 발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발이라면 한 발은 못돼, 그러니 발톱이 빠져도 싸지! 아니 전체가 한 도량이건만 도량을 어디 가서 또 찾아"하고 그 돌이 나한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허 이 돌이 바로 돌부처구나! 요만한 돌 하나도 돌부처 아닌 게 없으니 그 돌부처 속에서 희한한 밝음이 나오고 돌부처 속에서 감로수가 수없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니 그것들을 먹고 악하면 악한대로 독이 되고, 선하면 선한 대로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 되니 그거 참 희한하구나 그랬다구요. 그러니 어디 따로 정해 놓은 데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그냥 그냥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아니면 제가 질문할까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문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답 깨닫게 해달라구요? 좋지요. 깨닫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두가 스승 아닌게 없으니 여러분 스승 찾아서 물어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 밥을 먹어 여러분 배도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 먹으면 여러분은 굶어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밥을 해다가 상을 차려서 여러분한테 드리기는 하나 먹는 건 여러분이 먹어야 배가 부를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도를 깨우쳐줍니까? 허허허. 여러분에게 내 질문 하나 할까요? "쥐가 고양이를 물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뭅는 겁니까?" 한마디 대답해 보시렵니까? 걸리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 보세요. 모두 도인들이 되고 부처들이 다 되었군요. 사실은 알고보면 한마디도 할 게 없죠.

세번 왔지만 처음 뵙습니다

문 전 이곳에 세번 왔으나 못 만나 뵙고 오늘 처음으로 뵙는군요.

답 실컷 보세요. 실컷 봐도요 거죽만 보시지 마세요. 이 고깃덩이는 아무리 봐도 흩어지면 송장이니 보실려면 아주 진짜로 잘 보세요. 그래 기껏 그 대답이예요. "쥐가 고양이를 뭅느냐, 고양이가 쥐를 뭅느냐?"하고 물었더니 여러분이 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모시고 젊은 분들이 살아나가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몸만 흩어졌다뿐이지 다시 태어나니 잘못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은 한 생각을 잘하면 위로는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 빚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종지라면 나도 종지입니다. 사람이 손을 펐다가 오그릴 줄 알고 오그렸다가 펼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그게 한쪽만 끊어져도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콧구멍은 내려 뚫리고, 소 콧구멍은 치켜 뚫려서는 바람·비·흙·먼지가 전부 날려서 꽉 막혀 버렸대요. 사람은 비·바람으로 인해서 먼지가 끼면 그냥 막힐테니까 아래로 뚫어 놨거든요. 왜 그렇게 소 콧구멍은 치켜 뚫렸고, 사람의 콧구멍은 내려 뚫렸는지 그 이치를 여러분이 잘 알아 보세요. 은통 거기에 매달려서 붙잡고 걸리지는 마시고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걸릴 것도 없고 걸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앞뒤 없는 피리소리, 이 온 우주 삼천대천세계 두루 하면서 요리를 한답니다.

찬 주인공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산 삼!

(심마니 모임)

017)232-600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한달분(60첩)

평생무료진료

1백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호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요양기관)원장 한의학박사 최택원(前경제한방병원장)-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만다라 개운법 (九 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 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정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 · 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사주(명리) · 주역(육효) 작 명 · 택 일

※ 3개월 책임지도 ※
노력 여하에 따라서
3~5개월 개업가능
철학인 명인 고운처사
051)442-3108
012)1582-0437

동양비전특강

혼자서는 백년을 공부해도 인연이 없으면 알기 어려웠던 신선(神仙)이나 선도인(仙道人)들이 알고 있던 간단하고도 알기쉽고 명확한 비급을 함께 연구할 회원을 약간명 모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의문점을 풀어도 알고 묻지 않아도 알고 일년 당월 당일 당시의 용건도 알고 마음속까지도 알고 비전되어온 도액비방과 의술단방도 알 수 있는 것이 동양비전입니다.
※ 상대앞에서 사주를 풀어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지도상담)
※ 동양비전연구학회 ※
02-597-6211, 017-332-1633

심기선법, 육신통, 천안통법 전수및 백중기포입제

음윤오월 12일 일요일부터 정시에 태양을 보아 마음에 터를 닦은 기운이 33초안에 천문이 열리며 99초안에 천안통이 열려 본인이 직접 태양의 氣을 받아 부처와 내가 둘이아닌 경지에 들면 안과 밖의 고통이 찰나에 여위는 기도에 수시로 동참하여 전수받으시여 도통, 도인, 선인 경지의 지도자가 되시기 바라오며 특히 윤달드는 백중제는 9대선망과 5대조상들을 본인의 기도입제 선덕으로 심왕철생경과 수생경 공덕으로 왕생극락제에 동참하시여 무량공덕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 일위당 1만원 (집안동참제 33만원)
02)821-6622 /923-3110 016)239-3110
대한불교 약사선원

• 구인구직 •

동양 역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 모집기간 : 98년 7월 20일~8월 19일
◆ 연 령 : 제한없음
◆ 수업기간 : 3개월(매주 목 · 금요일)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 강 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 교수)
(철학관 및 포교당 개원시 적극 지원배려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백화점 1339호/수서역 3번출구하차)
T. 3413-3185~6 F. 3413-3186
대길사 대길승가대학 학장 석 혜 광 합장

경력 간부 관리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오며,
함께 일할 도반을 모십니다.
■ 연 령 : 40세이상
■ 대 상 : 남 · 여
※ 주부 재택근무자 모심.
전화 02)738-4224
(法淨) 나 찬 귀 합장

구 직

◇사찰종무원,
어린이 법회가능
◇ 자격증 ;
청소년지도자 2급
※ 지방도 가능 ※
012)1865-1865

산중턱 바위밑 암자에서 지내실 스님

연락바랍니다.
019)
571-7430

구인광고

◆ 반려자 구함
· 나이: 32세 · 학력: 중퇴
· 신장: 170cm
· 지능: 정상인보다 약간부족
· 성격: 순하고 착한편
◆ 여성조건
· 나이:25~32세 · 학력:무관
· 불심으로 자비와 보살도를 행할수 있는 불자여성 원함
※ 어렵고 고독한 분 환영!
064)58-9991

구 직

◆ 50대 독신 남자
◆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 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 지방도 좋습니다.
※주간에 전화 않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0351)826-1152

• 수 련 원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0523)
82-5074
0523)
388-0921

• 불교용품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보 리 수◆

취 급 품 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한국불교태고종 귀하
위 치 : 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 2리 **천성사**
주지 : 이화성(법명 : 직도)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7.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3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기 타 •

토굴 시공합니다 토 굴 양 도 (황토돌집)

0595)82-7945
0595)82-9214
011)859-0846
토굴전문 시공자
김종경

불자님들께

달마작품을 나눠 드립니다.
(선화가 해월당)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옥류 2동 154번지
회 향 암
0564)33-2037
017)531-2929

• 사찰안내 •

<사찰적지급매>

⊙ 충북 · 오창 · 서울 1시간 15분, 중평 I.C 5분거리
사찰부지 : 600평(주차 150평)
건물 : 적벽돌스라브 60평(방29실)
원장실 3평 (방1실)
조립식식당및 주방 18평
목욕 시워실
※ 발전 : 오창국제공항 · 오창과학단지 · 오성의료단지
1. 원주:인구 50만, 15분거리
2. 중평:인구 3만, 8분거리
3. 진천:인구 3만, 10분거리
가 발전요충지 경관수려한 정남향 7부능선위치(옛고시원)
나 신업도로에서 도보로 5분거리
다 4.5ton 집입로 양호
라 전력 360KW 및 220KW
마 급수시설(정수) 양호
바 기존전화시설 완비
● 매가: 1억 3천
· 분납질충 · 전세가능
(0431)213-4682
011-466-8107

◆ 사찰양도 안내

◇ 위 치 : 수원근교/ 부지 : 1300평
◇ 법 당 : 12평 /요사 : 30평
◇ 가 액 : 2억
◇ 위 치 : 진주근교/ 부지 : 3천평
◇ 법 당 : 18평 /요사 : 30평
◇ 가 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십시요.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주)광진불사

◆ 포교당 양도(급매)

◇시장통 증심가(입주즉시 법회능)
◇ 18년 역사 간직
◇ 건강상 내놓음
◇ 삼존불, 방3칸, 취사시설, 화장실
◇가격 : 층 4,000만원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함.
02)482-4550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제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급매

◆ 평 수: 대지 50평
◆ 건 물: 45평
◆ 가 격: 1억 6천
은행융자 2천 5백 포함.
◆ 2층 법당, 1층 요사채 방 3개, 지하층-식당
◆ 삼전불, 동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법당 기물 완전구비
※ 전세도 가능. (전세가 6천만원)
053)656-6609 / 4048

사 찰 안 내

◆ 위 치: 경북 영천시 신령면 매양리 팔공산
◆ 대 지: 1,050평
◆ 법 당: 10평
◆ 요 사: 18평
◆ 양도매가: 7,500만원
※ 조용한 산속, 기도도량으로 대작 분사가능.
0563)32-3290

포교당 안내

◆ 위 치 : 부산시 사하구 당의동
◆ 건 물 : 4층 40평, 옥상 사용가능
◆ 방 3개, 주방, 욕실, 법당
◆ 가 격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204-6868

백운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함양(안의)→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현재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등기 필 평수 465평
◆급매가격: 3000만원
053)767-5635

포교원 운영하실 분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욕탕,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모든 시설비용은 최저가격으로 드림.
02)461-6091
011)493-8936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체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 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 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無), 시설비 -1천 3백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011)667-0212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 인 중 개 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절충가능)
02)936-4785

◆ 포교당 양도

◇ 위치 : 인덕원 사거리 부근
◇ 실평수 : 40평, 상가주택 4층
◇ 법당 25평, 방 3, 기름보일러,
◇ 최고시설 (1억이상 투자했음)
◇ 가격 : 전세 보증금 3,800만원
권리금 5천만원
0343)24-5850
017)281-1231

경남지역 전통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남지역 市 교통중심지 ◆부 지 : 500평이상 주차장 有
◆법 당 : 31평 내 11포 외7포 고급목재 및 고급 단청 필
◆요사채 : 100평 이상 ◆주지실 : 10평 / 명부전 : 15평 단청필
◆주지실 : 10평 ◆명부전 : 15평 단청필
◆시 설 : 9억 8천만원 ◆주차장 : 차량무한대 주차가능
◆특 징 : 경남지역에서 개인사찰로서 가장 규모가 큰도량으로 스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발전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합니다. 기타 유료양로원이나 유치원 불교 사회복지 기관으로 경남지역 市 중심지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무속인이나 일반인께는 절대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상담 : 080)512-4447 / 012)1648-6334 담당 : 조법사 합장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외 일반인, 보살, 무속인 및대리상담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체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 (황토흙방 3)
◇ 가액 : 4천 3백만원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사찰부지 구하실분께 (최고의 명당)

◇ 위치 전북 진안 부귀면 (전주역에서 15분)
◇ 평수 약 500,000평(370,000/130,000)
◇ 용도 사찰, 실비타운, 연수원, 골프장(18홀), 전원주택, 기타
◇ 교통 서울에서 2시간 30분 거리 전주역에서 15분/광주에서 1시간
◇ 진입로 양호
◇ 주변시세 평당 10,000~15,000 정도
◇ 급매가 평당 5,000원(분할지불가능)
02-449-0507~9
017-206-6688(주인직)

◆사찰, 연수원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1065번지
◇ 평수 : 2075평(실평수 약 3,000평)
◇ 가격 : 1억
※계곡 사이에 두고 있슴
※고지대 경관수려 교통편리
0597)62-8565
019)533-7349

◇ 사찰터, 토굴터, 불교연수원,, 복지시설터 공부할만한 외딴 가옥
◇ 임야 35,000평, 평당 1,200원 암자터로 적합
◇ 99칸 한옥 양식 고가 대지 2,000평, 뒷산 4000평, 건평 350평
02)514-8785
015)8335-0553
강처사 합장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pia shopping mall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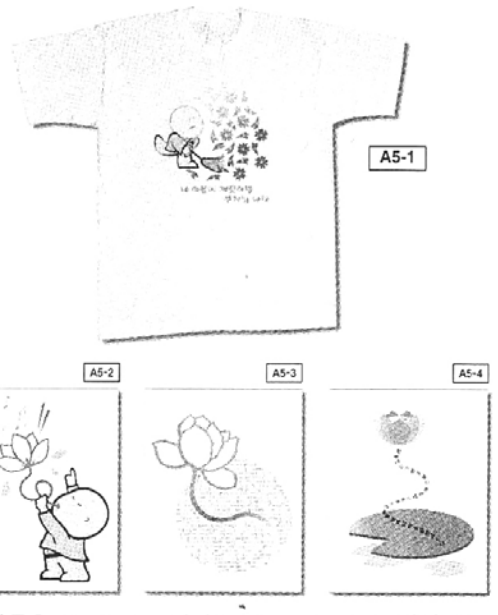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의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불교디자인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쓸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 성인용 ₩ 6,500 / 9도 칼라 인쇄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촘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 참고사항 : 수공에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A8-1



법성계 걸망

A12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 15,000



A13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A14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감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꼭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및수퍼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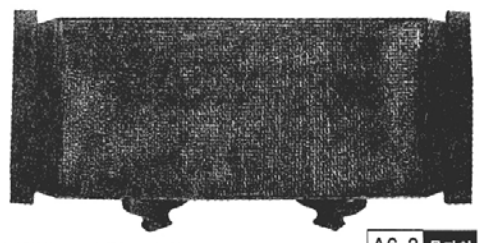


A4-1 A4-2 A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 580,000 (개금)



A6-3 목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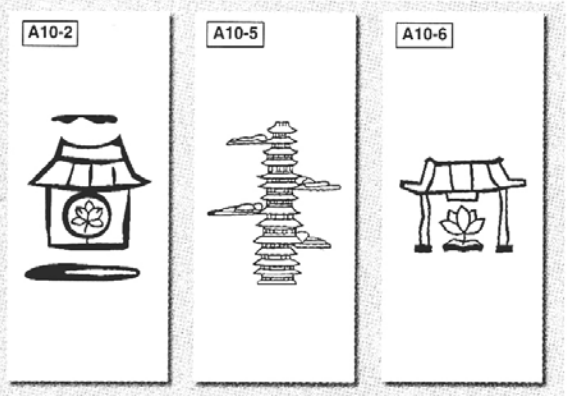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경판받침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11-1



A11-2

다포

가격 ₩ 800 / 기장 50㎝ 폭 39㎝ / 재질 : 면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 질 : 면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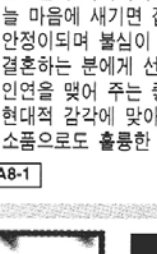




A3-3

사각링 벽걸이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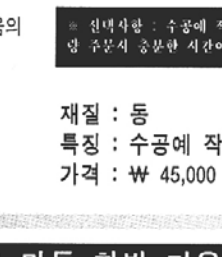
화엄경 약찬게 , 보왕삼매론 경전 문구 디자인 1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경전 및 문구를 넣어 드립니다.
가격 : ₩ 13,000



A3-1

사각 그림 벽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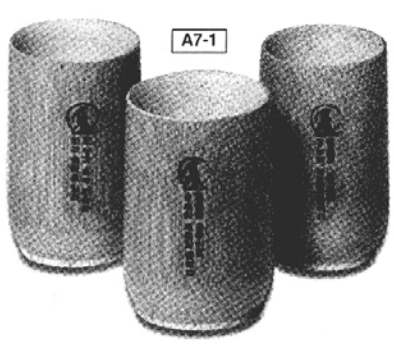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가로) 320(세로) 45(두께)㎜
특성 : 하단부분 화엄일승법계도 및 법성게 경전문구 디자인
가격 : ₩ 11,000



A3-2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벽걸이겸용)

색상 : 군청, 노랑, 빨강
크기 : 160(가로) 160(세로) 45(두께)㎜
특성 : 심플한 모양의 다양한 칼라와 탑 모양의 반야심경 한글 및 한자 내부디자인
가격 : ₩ 10,000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9-1

단주 열쇠고리

A9-2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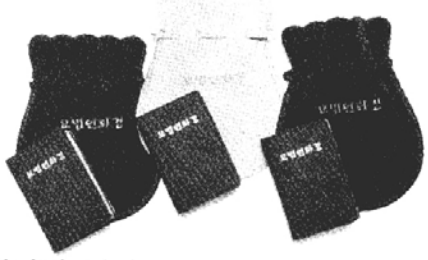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

단 신

불교스카우트 하계수련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제12회 하계수련회를 8월6일부터 8일까지 모악산 금산사에서 갖는다. 수련회는 생활불교,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와 사경, 참선 등의 정진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292-8502

제1회 효(孝)·도(道)캠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교장 김원식)는 집단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생활과 자아발견, 호연지기를 기를 제1회 효(孝)·도(道) 캠프를 8월14일~15일 강화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다.

강화유적박물관 견학, 마니산행, 효도특강, 전등사 견학, 물놀이, 자연보호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자연체험' 여름캠프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청광스님)은 '98한솔여름캠프-자연과 나를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캠프장에서 개최한다.

초등학생 1백20여명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캠프는 자연체험이라는 주제로 관찰하이킹, 물고기잡기, 진흙만들기, 추적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실직가정 아동은 무료, 그외 아동은 4만원이다. (0342)716-4215

천진암 어린이수련회

백양사 천진암(주지 지훈스님)은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제11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108참회, 사경, 사불, 물놀이, 산행, 〈부모은중경〉, 부처님일대기 강연, 연등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캠프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동참금은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1만5천원이다. (0685)92-0533

불국사 여름불교학교

불국사(주지 성타스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우리들이 만든 부처님 세상'을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여름불교학교는 첫날 부처님을 느껴요, 둘째날 부처님 나라! 우리들 세상!, 셋째날 우리들이 만든 부처님 세상으로 진행되는데 탑돌이, 운력을 비롯해 노래, 춤, 공포체험, 토함산행, 수계식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0561)746-1472

절에 갈땐 자녀동반 '나들이 가듯'

자녀 '불자만들기' 이렇게 하세요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하며 아이들을 불교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불자가정들이 늘고 있다. 내 아이 불자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정들을 찾아 실천방법을 알아본다. 또 김종서박사로부터 어린이 불교교육에 대한 조언도 듣는다.



◇지훈이네 식구들은 합창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

박보리행 태아 때부터 매일 경전 읽어줘
권선희씨 아침 예불문·공양게 안빠뜨려
사찰도 놀이터·연극·동화프로 필요

"재윤아, 넓디넓은 화엄의 바다에서 부처님의 큰 뜻을 배우고 익히거라. 우리 재윤이가 출가할 수 있는 재목이 되어 주기를 엄마 아빠는 간절히 기원하거든. 훌륭한 스님이 되어다오."

남양주에 사는 박보리행보살의 기도문이다. 18개월 된 딸 재윤이가 화엄학을 공부하는 스님이 되기를 기원하면 매일 경전을 읽는다. 재윤이가 어려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엄마의 뜻이 전해지리라는 생각이다. 박보살은 임신 4개월께부터 9개월 때까지 108배를 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등 불교적인 태교를 실시했다.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화엄경 약찬게〉 〈법성게〉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반야심경〉까지 읽어 주고 나면 30여분 남짓 걸린다. 요즘은 재윤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해 경전읽기보다는 놀이터와 가까운 봉선사 나들이로 불연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재윤이지만 절에 가면 빼놓지 않고 법당에 들어가 엄마를 따라 절도 곧잘하고 스님을 보면 고사리손을 모으며 곱게 합장을 한다.

선재놀이방을 운영하는 박보리행보살은 "주변 아이들에게 부처님 이야기, 우화 등도 수시로 얘기해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아이들에게는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재윤이가 책에 관심을 가질 때는 불교동화를 읽혀야지요"라고 말한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권선희씨는 포교란 우선 내 주변사람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을 불교로 이끄는 것도 불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할 포교라는 생각이다. 5살된 지훈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언제나 종소리와 예불소리가 들린다. 아침마다 예불문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지훈이도 요즘은 곧잘 따라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틀리기 일쑤지만 그것도 엄마 아빠에게는 마냥 귀엽기만 하다.

"우리집에서는요, 아침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밥먹기 전에 공양게도 올리구요."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가고 있는 지훈이의 우리집 자랑은 끝이 없다.

불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종서박사는 "어린이 불교교육은 교리교육차원보다는 우선 불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절에 가는 것에 대해 아이가 지겹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겨져야 해요. 사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한다든지, 불교동화, 그림연극 등을 보여주는 등의 방편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천4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98 청소년보호 전국대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1주년 평가세미나 등을 가졌다.

"청소년 맑고 푸른환경서 자라게"

파라미타 '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활동개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추진하는 '9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13일 지정을 받았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전국 6백51개 초·중·고 교사 9천3백여명과 1백68개 시민단체 회원 9천4백여명 등 1만8천여명이 동참해 활동하게 된다. 파라미타는 2백66명의 단원을 구성 전국 15개 시도를 중심으로 유해환경감시활동을 펼친다.

감시단은 신문·잡지·방송 등 각종 매체의 청소년 유해물을 감시하게 되며 교사들의 경우 유해업소 업주들로부터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날 지정식에 이은 '9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대회에는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이미경 사무국장이 인천 청소년환경감시단 운영방안과 활동내용 수범사례 등을 발표했다.

참선…트레킹…별빛축제 자연 벗하며 봉사활동

인천 청교련 특색있는 '여름캠프' 화제

주제와 개성이 넘치는 캠프로 더위를 이기며 봉사활동 점수도 딴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선일스님)는 '트레킹' '사랑나눔캠프' '국제문화참선캠프' '비행청소년대상 특별캠프' 등의 특색있는 여름캠프를 마련한다. 각 캠프마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선체조 명상 등을 포함시켜 은연 중에 불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인천! 아름다움과 기쁨과 편리함을 찾는 트레킹=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트레킹은 행정민원처리, 모의법정, 시설물 분포도 조사, 등 지역내 행정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 4박5일간 실시.

△함께하는 세상 사랑나눔 캠프=장애인 40명과 청소년 40명이 함께 나누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나눔캠프.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8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이다. 캠프는 장애인을 목욕시켜주는 사랑나눔의 장, 마음으로 느끼기, 의복 바꿔입기 등의 사랑체험의 장, 별빛축제, 시설장애인의 도우미 역할수행 등의 사랑느낌의 장으로 진행된다.

△외국스님들과 함께하는 국제문화 참선캠프=외국스님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참선, 발우공양, 단소배우기, 사경, 운력, 선체조, 다도, 묵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침착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화 선원에서 열린다.

△서로 믿고 사는 사회 마음과 마음의 벽을 넘어=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등사 순례, 성안나의 집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명상, 운력, 선체조, 장기자랑, 캠프화이어 등으로 진행된다. 8월16일부터 18일까지 강화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 (032)577-0266

건강 365일 〈27〉 금모구척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금모구척(金毛狗脊)은 약초의 모양이 개의 척추뼈와 비슷하고 황금색의 털이 달려있다 하여 이름붙여진 것으로 뼈관절 질환에 효과가 크다.

경추디스크라 하여 목과 어깨와 팔이 쑤시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있다. 한방에서는 풍기와 습기로 인해서 발병한다고 본다. 현대 의학으로는 바이러스균, 감기균의 일종이 목관절로 침입하여 일으키는 병이다. 목관절 디스크라고도 한다.

두 번째로 흔하지는 않지만 흉추디스크가 있다. 췌장염이 오래되면 발병하기 쉬운 병으로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목관절·옆구리·허리 디스크에 효과
값싸고 구하기 쉬워…하루 2번 장복

세 번째로 허리디스크라 하여 허리뼈관절 4, 5번 요추의 추간판이 삐져 나오는 병이 있다. 허리와 다리의 옆 측면으로 내려가면서 저리고 당기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난다.

허리디스크는 그 원인이 소장 또는 방광에 있다. 소장염, 십이지장염을 오래 앓으면 척추관절에 염증이 생겨 디스크란 추간판이 탈출한다. 또 방광에 염증이 오래 되면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이 온다. 남자들은 전립선에 이상이 오며 오래 되면 좌골신경통 허리디스크가 필연적으로 온다.

뼈관절 질환하면 뼈관절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 병이 생기는 것인양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오장육부라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후유증으로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장육부의 병리현상이 관절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단순한 소염제나 홀몬제로 치료가 되겠는가. 원인치료를 해야할 것이다.

퇴행성 무릎관절은 일단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 어렵다. 60세 이상은 50% 이상 발병이 된다. 체중이 무거워서 오기도 하고 쭈그리고 앉는 우리네 습관에서도 온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으면 무릎안쪽으로 힘을 받아 형경성을 잃어 퇴행성 관절이 온다.

금모구척은 값도 싸고 건재약방 등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복용법 금모구척 20g을 달여 하루 두 번씩 장복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02)762-5510

자연파괴등 산업사회 병폐 진단

여불련 21일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자연파괴, 인간성 상실'을 주제로 현대산업사회의 위기에 관한 세미나를 21일 오후2시30분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연다.

21세기를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 고양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고도 산업발달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서 조봉연교수(동국대 토목환경공학과)가 '생활오수가 음용수에 미치는 제영향'을, 지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조경과)가 '환경친화정책'과 '자연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 두 분야로 나눠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은 윤영자교수(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종찬논설위원(불교신문) 등이 함께 진행한다.

세미나는 서울시 여성복지과에서 후원한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1998년판 발행



주요내용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 신행 · 포교(사암연합회,신행단체)
- 청년 · 학생(전국단위 청년단체 및 학생연합회)
- 교육 · 연수(학교,유치원,재가교육기관,승가교육기관,연수기관)
- 언론 · 출판(방송,신문,잡지,출판사,학술지)
- 학술 · 문화(학술, 연구,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 사회 ·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보급문의 : 02-719-2607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 한국불교총람 편찬위원회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TEL 02-719-2606 FAX 02-719-5052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 명 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 차 차 석(동국대교수) · 김 영 태(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자 세상보기

생수도 불안한 세상

방사성 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암 발생 · 기형아 출산 등 위험

수돗물을 믿지 못해 돈을 주고 사서 다시는 생수(먹는 샘물)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

환경부는 9일 그동안 인체의 유해 여부로 논란을 빚어왔던 대전지역 생수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생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미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분석방법 등 신뢰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22개 생수업체 가운데 두개 제품에서 각각 22.68과 25.26PPB의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이는 미국 권고치인 20PPB보다 조금 읏도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먹는 물 가운데 우라늄의 양과 인체 유해여부의 관계가 아직 구명되지 않은데다 현재 20PPB로 되어있는 권고치마저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인체에 커다란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생수의 조사분석 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하수를 뽑아올린 시기나 분석방법, 환경부의 늑장 대처방안 등 신뢰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아 시민 ·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29일 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한 연구보고서를 입수, 대전지역 일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우라늄)이 기준치의 50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95년 사이 대전지역 일대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우라늄의 경우 조사 대상 39곳 가운데 18곳에서 국제보건기구와 미국 환경청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식수에 녹아있는 방사성 물질을 마실 경우 폐암이나 골수암 등 암이 발생되고, 태아 세포에서 DNA가 파괴될 경우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는 먹는 물에서 이런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48시간 이내에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샘물업체는 60여개, 수입업체도 30여개사며 무허가업체는 60여개가 넘는다. 이들 1백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판매한 먹는 샘물은 97년 한 해 동안 89만 3천t에 달했다. 현재 먹는 샘물 소비자의 추정치는 전체 인구의 5% 선. 방사능 생수도 문제지만 가짜 생수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세균 생수도 문제다.

같은 '먹는 샘물'인 약수도 주의해서 마셔야 한다.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 1천7백5개소 가운데 부적합한 곳이 1백10개소(6.6%)로 나타났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뒷짐 행정'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사후 미봉책 보다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책을 마련해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수(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의 눈

"오염된 물은 독약"

물은 네가지의 위대한 존재 즉, 땅 물 불 바람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의 흐름을 연기에서의 인과관계의 연쇄에 자주 비유하셨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도 오염되면 독약과 같다. "이 물그릇에는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를 갖추고 맛이 있는 물이 담겨있으나 독약이 섞여 있다. 원하면 마셔라. 네가 마시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와 맛 때문에 입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마시면 그로 인해 죽음이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다."〈아함경〉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은 "천연수에는 적어도 5백만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있으며, 그 가운데는 땅의 성분인 각종 미네랄이나 광물질을 위시해서 바람의 성분인 산소나 탄산가스, 생명의 성분인 유기물질, 불의 성분인 적절한 온도가 안정상태를 이루고 있다"면서 "방사능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물은 인체에 이로운 천연수를 독약으로 전환시키므로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들었다

국회가 원구성도 하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기능이 멈춰버려 '식물국회'란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국회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묻는 시민들의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되는가 하면 연일 국회앞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백60여개 법안이 계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폐업국회'로 인해 하루 평균 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민생현안 처리는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세비나 축내는 국회의원들부터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헌절 50주년을 맞아 더크다. 경전과 조사어록을 통해 부지런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식물국회 "일 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이카나라 촌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이른 아침 마을로 걸식을 나가다가 밭갈이 하는 바라문을 만났다. 그 때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했다.

"고타마여, 나는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사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나도 밭 갈고 종자를 뿌려 그것으로 살아가느니라."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밭 갈고 씨앗 뿌리는 것을 보지 못했소이다."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믿는 마음은 씨앗이요, 애써 수행하는 것은 쏟아지는 비며, 지혜는 쟁기 끄는 멍에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끌채이니 올바른 생각을 스스로 지켜 훌륭한 소몰이 되노라. 몸과 입과 마음 잘 지키기를 곡식 창고 지키듯 하며, 진실을 타고 기꺼이 게으르지 않아 정진으로 황폐한 밭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밭을 갈고 있으니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 근심 없는 열반에 이르느니라."
〈잡아함경〉

▨백장스님께서 경행동안 고상하고 절도있게 수행한 일은 형용기 어렵거니와 날마다 운력에는 반드시 남보다 먼저 나섰다. 일꾼은 이가 민망하게 여겨 몰래 연장을 숨기고 쉬기를 청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스님께서 두루 연장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공양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백장록〉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백성이 나라의 보배임을 알고 소중히 대해야 한다.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을 염려해 잠시도 쉬지 않고 어렵게 사는 백성을 번영케 할 일을 계획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마음 읽는 '감성컴퓨터' 나온다

MIT공대 실험작동…수년내 대량 생산
"인공지능 가능해도 '의식'은 불가능"

인간의 마음을 읽는 감성 컴퓨터가 개발됐다.

美 MIT공대의 미디어 실험실은 인간의 행동을 모니터로 관찰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 실험작동을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은 현재 실험중인 감성 컴퓨터가 수년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개발자 로살린드 피카드 박사팀은 사용자의 몸에 바이오리듬 센서를 부착하고 극소형 카메라를 이용,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등을 읽어 개인의 감정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성 컴퓨터가 사용자의 현재 감정이나 마음변화를 읽어 적절히 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카드 박사팀은 감성 컴퓨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에 맞는 가정교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학생의 반응여하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까지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계속적인 진화와 관련, 전문가들은 컴퓨터가 '인간의 문제해결 능력(지능)'과 같은 기능을 가질 정도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의식'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 방위산업체에서 10여년 이상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의 주임을 맡았던 김사철 박사(前 창원대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해 가면 '의식'이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초월적인) 의식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는 "인공지능과 물리학의 양자론에서 문제되는 '의식'의 문제는 이미 부처님이 2500년전에 과학적으로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내년 6월16일 세계인구 60억명

세계 인구는 내년 60억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 인구기금이 9일 밝혔다. 인구기금은 지금의 총인구가 60억명선을 돌과하는 정확한 날짜를 현재 확정할 수는 없으나 내년 중반으로 예상된다면서 6월16일을 '60억명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은 현 세계인구를 59억명으로 집계하고, 신생아는 초당 3명, 하루 약 22만2천명, 연간 8천1백만명 꼴로 태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유엔은 또 출산율과 가족 구성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00년 세계 인구는 10억명이었으며 130년 뒤인 1930년에 20억명, 그리고 1960년에 30억명이 됐다. 그러나 60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는 29억명이나 급증, 10년마다 거의 10억명이 늘어난 셈이다. 현 인구 59억명 가운데 11억명은 15~24세이며 60세 이상은 약 5억명이다.

김재경 기자

'사랑의 집짓기' 행사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 운동)은 기금 모금을 위해 서울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4일간의 자전거 대행진(20~23일)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해비타트의 밤' 개최(25일), 태백 · 진주 집 짓기 사업 등을 전개한다(참가신청 02-261-3701).

80대 할머니 장학재단 설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던 새댁이 88세 할머니가 되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꿈을 실현해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다. 지난 97년 5천만원으로 유진원 장학회를 설립, 매년 1백여명의 중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온 박할머니는 최근 집 근처 땅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2억여원의 보상금이 나오자 1억원을 장학회에 추가로 내놓았다.

청소년 77% 음란정보 경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77%가 음란정보 및 포르노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과학연구소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중3~고3 1,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77.1%(710명)가 음란정보나 포르노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47.0%는 이로 인해 성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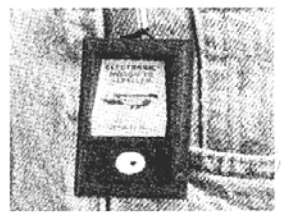
'철거폭력' 시비 건설사 수사

철거현장에서 철거민에 대한 폭력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국내 최대 규모의 철거업체인 다원건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13개 인권 · 시민단체는 14일 다원건설이 경비용역업 허가없이 철거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경비업을 해왔다며 대표이사 이금열(27)씨 등 임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식품체인점 불량식품 적발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에 식품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일부체인점 본사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식품재료 공급체인점 본사 1백28곳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상품 "모스키토 호크"



모기의 천적인 잠자리의 날개 소리를 모방해 모기를 쫓는 '모스키토 호크'.

전자장치로 잠자리의 날개짓 소리를 발생시켜 모기를 도망가게 하는 이 제품은 삐삐만한 크기로 허리에 차고 다니면 12m 이내에 모기가 접근하지 않는다. 9V 건전지로 5천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는 물론 캠핑이나 낚시갈 때 특히 유용하다. K2 상사. 가격은 3만8천원. (02)264-6683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 · 연령 제한없음)
1.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2. 저렴한 학비
·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3. 교수진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 ·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싸이즈 39×39cm
색 상 빨강, 검정
가 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 · 보 · 기 · 업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정보결혼연구원」의
이영숙원장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항상 새로운 각도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윤달수의
어디서 구입할까?
한 번 팔고 사라지는 상인
몇 년을 불교장의사로 일해온 연합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어떻게 구입할까?
직접 확인(만져보고, 태워보고) 하시고
비교하신 후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시론

우주의 춤사위



한승원
〈소설가〉

한 스님이 나에게 말했다.

"내가 만난 작가들은 모두가 이중적이었습니다. 그가 작품 속에서 내세우는 이상과 현실적인 삶의 모양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저는 작가라는 사람들을 별로 미더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너도 결국은 그렇고 그러한 작가가 아니겠느냐'는 뜻이 들어 있었다.

작가의 이중적인 생각

거기에 대하여 내가 변호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닌 어찌할 수 없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니까요. 사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일 터인데, 그래도 작가란 사람들은,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기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또 절망했으면 주인공들을 통해서나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겠어요? 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으로부터 싹터나는 것이니까요. 제가 수도하는 스님들을 좋아하는 것도 스님들이 도를 닦으면서 거듭 절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나서 덧붙였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제가 만나곤 하는 어둠(迷妄)의 꺼풀은 양파 껍질하고 비슷할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소식을 하고나서는 다시 한소식을 하고 또 한소식을 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고… 한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소뜯기기'하고 같다고 어느 스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풀을 뜯어먹던 소들은 대개 더 쉽게 뜯어먹을 수 있는, 훨씬 달고 고소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두르고 나아가려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소뜯기는 사람은 얼른 고삐를 잡아당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특히 저같은 속인, 또 속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소식을 하고는 원효스님이 그랬듯이 걸림없이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원효스님의 걸림없음 하고 같은 것입니까? 오만방자한 막행막식이지요. 그 오만방자함으로 말미암은 죄를 지옥에 가서 어떻게 다 받을 것인지…, 저는 소름이 끼쳐지곤 합니다."

오만이라는 죄

괴이한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고, 어부들은 그것을 모래밭으로 끌어올렸다. 백 개의 머리를 가진 물고기였다. 원숭이 뱀 말 여우 돼지 토끼 사자 호랑이 말소 기린 독수리 잉어 고라니 노루 사슴 낙지 따위의 머리를 한 개씩 달고 있었고 몸통과 꼬리는 고래의 몸통 꼬리 그것이었다. 그 괴이한 물고기는 모래밭으로 나오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어부들이 지나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 괴이한 물고기에 대해 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물고기 옆으로 다가가서

"너는 카필라가 아니냐?"고 묻자

괴이한 물고기의 모든 머리들이 숨을 거두면서 일제히 입을 맞추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어부들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이 카필라는 전생에 브라만 출신의 스님이었다. 카필라는 영리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여러 고전들과 경전에 나오는 지혜를 일찍이 습득했는데, 자기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주위 사람에게늘 '이 미련스러운 닭대가리야, 이 개대가리야, 호랑이보다 못한 대가리야, 아이고 원숭이대가리야…' 하고 빈정거리면서 비웃었지. 그러다가 죽어갔는데, 그 오만한 업이 쌓이고 쌓여 다음 생에서 이러한 흉칙한 수중괴물이 된 것이니라."

윤회의 모양새

화장실이나 욕조에 담겨 있던 물이 빠져나갈 때는 소용돌이 친다. 소용돌이의 날개의 방향은 달리기 선수들이 트랙을 도는 방향하고 같고, 바람개비의 날개와 같고, 태풍의 눈과 같고, 불교의 만(卍)자 하고 같고, 태극무늬하고 같고, 만다라의 힘의 흐름하고 같다.

업보의 흐름이나 윤회의 방향도 그와 같을 터이다.

열린마당

남방불교 법회의식

반야심경과 사홍서원이 없는 법회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남방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몇몇 스님들이 황색가사를 입고, 신도들이 위빠사나 수행법을 배운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법회 및 예불의식까지 남방불교의 예법을 따르고 있는 사찰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속된 종단의 전통적인 법회의식을 외면해 신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부처님 당시의 의식을 찾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방불교 법회의식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남방불교 예불의식으로 새벽예불을 올리는 부산 태종사 스님들.

"부처님가르침 생활실천 유도"

마성 〈가야사 주지〉



지금까지 남방불교를 학문적으로만 연구해 왔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 차원을 넘어 수행과 신앙의 형태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남방불교국에서 직접 구족계를 받았거나 혹은 수학하고 돌아온 스님들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남방불교의 전통에 따라 법회를 봉행하고 팔리어 경전을 암송하며, 위빠싸나 수행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스님들의 활동과 함께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남방불교의 의례와 수행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점차 늘어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방불교의 신앙형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북방불교의 법회 및 예불의식은 예배·찬탄·발원·참회·회향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 부처님께 쌀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양으로 여긴다. 한국불교가 기복적인 불공과 제사 중심의 의례로 되어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남방불교에서는 신앙형태도 단순할 뿐만 아니라 기복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공양'의 경우 불단에 쌀을 올리기 보다는 탁발승들이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남방불교의 법회의식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재가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짜여져 있다. 재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란 믿음·지혜·베품·계율(오계와 팔재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불공이며 제사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방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대불교학생회와 경남대교직원불자회에서 1년 남짓 남방불교 법회의식을 지도해 오면서 처음에는 언어적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점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면 중년을 넘어선 여성 신도들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청년불자와 지성인 불자들이 남방불교 예불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방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스님들은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수승한 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남방불교는 초기교단의 율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수행법과 의례는 이미 2500여년간 검증을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의례와 상충 신도들 혼란"

송묵 〈동원정사 주지〉



어느 종교든 고유의 의식은 그 종교의 특징인 동시에 궁극의 지향점을 반영하는 절대적 의미를 포괄한다.

남방불교 의식을 그대로 법회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전통의례와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는 것이어서 조심스러운 검증이 필요하다. 종교의식은 오랜 시간을 지내오며 전승의 과정을 거쳐 이룩된다. 한국불교의 법회의식도 불교가 전래된 이후 1천6백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의 그물을 통해 걸러지고 쌓인 결정체이다. 지금의 법회의식은 〈석문의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반야심경 등은 선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여러 의식에서 독송되었으며, 중국 일본도 법회에서 독송하고 있다.

남방불교 수행법과 의식이 한국불교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고, 한국불교와의 상이점이 보완되는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소속 종단의 의례에 어긋난 의식을 봉행한다는 것은 종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의 사찰에서 남방불교 의식으로 법회를 봉행한다는 것은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불교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선과 교의 융합적 수행 풍토를 유지해 온 우리 불교의 역사에서 남방불교 법회의식이 장려되는 것은 상당한 혼돈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조계종 사찰에 다니는 어느 불자가 남방불교 법회의식을 봉행하는 사찰을 찾았다고 해보자. 그 신도는 그 사찰을 보고 불교를 표방했지만 사이비 불교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매우 혼동스러워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불교가 전해져 내려온 풍토와 역사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불자의 정서가 남방불교의 의례를 받아들일 만큼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 보는 일도 중요하다. 아직 우리의 불교는 전통적 의례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갖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예불과 법회 등 의례의 전통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종단 차원에서도 의례의 통일을 위해 〈통일법요집〉을 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불교 고유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 의례를 여법하게 이어가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일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남방불교 법회의식은 이같은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남방불교 예불의 특징

삼귀의대신 삼귀삼창 반야·천수경 독송 안해 위빠사나 수행법 실천

남방불교의 예불의식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역 삼귀의가 아닌 빨리어로 된 '삼귀삼창'을 봉독한다는 것이다. 이 게송은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셨으며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 그 존귀하신 분 앞에 머리 숙여 예배올립니다./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선포된 위없는 진리, 그 담마(불법)에 머리 숙여 예배올립니다./존귀하신 분을 따라서 범행이 잘 수행된 제자들인 상가, 그 상가 앞에 머리 숙여 예배올립니다'는 뜻이다.

부산 태종사 등 남방계 예불의식을 봉행하는 사찰들은 빨리어 예불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하루, 보름법회 등과 같이 많은 수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법회에서는 주로 한글로 음역·번역된 빨리어 예불문을 사용한다.

남방불교의 예불의식은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독송하지 않으며 불구 사용도 않는다. 예불의식은 삼귀의 삼창을 시작으로 삼보에 대한 찬탄, 믿음·지혜·베품·계율 등 4가지 의지할 것에 대한 회상, 반야심경 독송대신 자비경, 길상경, 삼보보배경등이 때에 맞게 독송된다.

자비경, 길상경 등은 "와서 보라" "증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자신을 극복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커다란 행복" 등과 같이 실제적인 어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또 예불의식에서 절을 할 때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만을 구부린다. 이것은 몸의 움직임을 줄여 마음의 고요를 지키고 예불의식 자체에 대한 집중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이외에도 스님들은 새벽 5시 예불을 시작으로 경선, 명상, 울력 등의 수행이 빈틈없이 짜여진 일과에 맞추어 생활하며 오후 불식을 지키고 있다. 또 일주일에 1번씩, 1달에 1번씩 신도들과 함께 '자자(自恣)'을 통해 행실, 계율, 재정문제 등에 대한 반성과 계획을 세운다.

오종욱·천미희 기자
(gobac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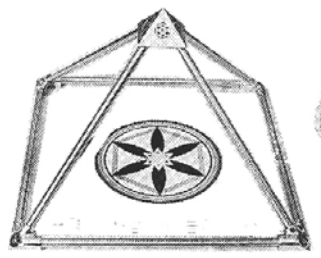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鎭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 목판·등판·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히란야!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등허 등록 NO.204454〉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종단소식

조계종

대둔사 10일 산중총회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차기 주지선거와 관련 8월 10일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대둔사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주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금산사 국난극복 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15일 익산 미륵사지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제17교구 본·말사 사찰주지스님을 비롯 올주 조계종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전예수재 및 수륙대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건봉사 염불 만일 대회

고성 건봉사(주지 해장)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성지대회'를 봉행한다. 이번 성지대회는 2박3일동안 염불(아미타불)정진 위주로 진행된다.

태고종

수계산림 행자소양시험

총무원(원장 인곡)은 제 22회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신청한 행자들을 대상으로 28일 서울 종무처에서 소양시험을 실시한다.

소양시험은 불교기초교리와 초발심자경문 습득정도를 알아보는 필기시험과 반야심경·천수경 등 기본 습의정도, 승가의 화합관, 종단관, 불교관 등을 알아보는 면접시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강원종무원 예수재 봉행



강원종무원(원장 백운)은 10일 치악산 관음사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예수재 및 선망부모고혼 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구인사서 어린이 수련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24~27일 구인사에서 전국어린이회 수련법회를 연다.

이번 수련법회는 전국 1천5백여명의 어린이회 새싹불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심성개발하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02)233-6210

진각종

서울교구 청소년수련

통리원은 27~29일 충북 괴산 보람원에서 서울교구(교구장 도흔) 청소년수련회를 연다. 2백50여명의 청소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강연, 대동놀이, 패러글라이딩, 캠프파이어 등으로 진행된다.

보문종

등록신도 신도증 발급

총무원(원장 혜일)은 15일부터 종단 산하 사찰 등록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증을 발급하고 있다.

종도들에게 소속 사찰에 대한 소속감과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체계적인 신도관리를 위해 보급을 시작한 총무원은 모든 불자들이 신도증 보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02)928-3797

총화종

승려 법계고시 실시

총무원(원장 남정)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진사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8월11~12일 1박2일에 걸쳐 승려의식 교육 및 법계고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여름청소년수련법회를 8월 3~5일 봉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난극복 참회기원 법회를 통해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타종

봉암사서 창종 55돌행사

총무원(원장 권성우)은 20일 단양 봉암사에서 창종 5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1부 기념법회, 2부 진신사리 친견, 3부 만등불사 점등식 등으로 진행됐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종단 복지법인 설립 잇달아

태고종 복지시설 수탁·장학·구호사업
총지종 청소년복지 역점 수련관등 건립
미타종 매머드 실버타운 2002년 완공

조계·진각종 실업자돕기등 활발

21세기 불교계 복지사업을 주도할 복지법인 설립이 각 종단별로 속속 추진되고 있다.

95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이어 진각종이 올 3월 진각복지회를 창립해 교계 복지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총지종, 미타종 등 각 종단들이 연이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은 이미 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기본재산을 확보, 빠르면 8월 중에 관련 서류가 구비되는대로 보건복지부에 복지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총지종은 복지법인 설립 후 청소년복지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 밖에도 총지종은 '종교적 이념의 사회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복지관운영 및 구호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도 복지법인 설립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지난 6월 15일 제7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복지법인 설립을 의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연구, 출판, 교육, 상담, 후원사업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태고종은 총무원 사회부를 실무팀으로 인적·물적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02년 매머드급 실버타운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미타종(총무원장 권성우)은 2000년내로 복지법인을 설립해 복지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타종은 복지법인이 설립되는대로 1차적으로 경기도 일대 5만평의 부지에 2천여 세대의 실버타운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99년 5월 허가를 받아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설계가 끝나는대로 착공할 방침이다. 실버타운은 13평 15평 18평형 2천세대와 병원1동, 종교관, 기념관, 체육관, 공중목욕탕, 식당, 실내수영장 등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이같은 각 종단의 활발한 복지법인 설립 움직임은 '국가적 경제위기을 맞아 어려운 때일수록 종교인이 나서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불교계의 '사회화'를 위한 몸짓으로 풀이되며, 교계 복지사업 활성화와 함께 각 종단적으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진각종은 올 3월 조계종에 이어 교계에서는 두번째로 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시설 수탁 및 실직자구호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방송 홈페이지 개설 불교정보센터 9월 개통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3일 방송프로그램과 제작진 소개, 불교행사 게시판, 인터넷 관련 광고안내, 불교방송 후원회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이번에 개설된 불교방송 홈페이지 시스템은 윈도우 NT(웹서버)와 유닉스(DNS서버)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전송라인의 속도는 T1(1.54MBPS)급이다. 불교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sfm.co.kr이며 대소문자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다.

한편 9월 개설예정인 불교정보센터는 불교인물, 사찰, 불교상식, 불교역사와 불교계 전화번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운문사서 청소년 캠프 21~23일 대구복지회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스님)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도 운문사 야영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환경보존 및 문화재애호활동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1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정받게 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옥룡사지 도선국사 유골 훼손

보존처리않고 방치 1년6개월간 부식 연대·DNA검사 불능

지난해 3월 전남 광양 옥룡사지에서 거의 원형을 유지한 채 발견돼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선국사 추정유골이 발굴 1년6개월여만에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순천대박물관(관장 조원래)은 지난해 도선국사가 35년간 머물며 제자를 양성했던 옥룡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도선국사 부도지 중심부 밑에서 석곽과 유골이 든 석관을 발굴했었다. 물이 가득한 석관속에 들어있던 유골은 두개골을 제외하고는 척추·골반·팔다리뼈 등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도선국사의 유골로 추정된 이 유골은 발굴직후 적절한 보존처리없이 창고에 방치돼 현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식돼 있다. 유골의 경화처리도 단 1번만 실시해 지금도 계속 삭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골보존처리전문가 박선주교수(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는 "발굴 즉시 보존처리했다면 지금처럼 삭지않고 유골의 과학적인 분석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교수는 유골의 시료를 채취, 미국의 전문연구소에 연대측정과 디옥시리 보핵산(DNA)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으나 뼈에서 단백질 등 유기물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여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번 경화되면 더 이상의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선국사 추정유골의 과학적인 분석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 것.

고고학계는 "이번 사건은 발굴과 이에 대한 성과 발표에만 급급할뿐 출토유물의 사후처리에는 무관심한 우리 학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진해 해장사에 불

경남 진해 해장사(주지 진덕)에 13일 화재가 발생 1백여평의 법당과 30여평 요사채가 전소됐다. 주지 진덕스님은 "오후4시30분경 법당에서 불길이 솟아 올라 삽시간에 법당과 요사채를 태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나 오후1시30분경 사찰에 수상쩍은 사람이 들어와 신도들에 의해 쫓겨 났음이 드러나 방화일 가능성도 높다.

"아낌없이 다주고 갑니다"

지현스님 동대병원에 시신·각막기증

태고종 지현스님(본명 안승조)이 지난 11일 0시17분 입적(향년 70세). 유족들이 생명나눔실천회의 주선으로 동국대 경주병원(주임교수 고복현)에 시신을 기증했다. 이에앞서 스님의 각막은 실로암안과병원에서 김학동(68)·문종석(51)씨에게 각각 이식됐다.

지현스님은 중학교를 졸업후 출가, 20여년간 남원 청룡사 등에서 수행했다. 말년에는 파킨슨씨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되어 유족과 함께 생활했으나 '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는 등 수행을 늦추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지낼 때는 하루도 새벽예불을 빠지는 일이 없었다. 마지막 서원으로 "내 육신이 동국대 학생들에게 좋은 의학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신이 숨을 거둔 후 "절대 울지 말고 아미타불을 염송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소쩍새마을 후원금 줄고있다

승가원 올 상반기 결산 작년 동기비해 8% 감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 소쩍새마을의 후원자와 후원금이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자들의 관심이 아쉬운 실정이다.

승가원은 최근 98년 상반기 후원현황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해 5월과 올 5월을 비교했을 때 후원금이 37.5%나 격감했다고 발표했다. 또 98년 상반기 전체 후원금은 97년 상반기에 비해 8% 떨어졌으며, 지난 2월부터 신규 후원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26일 현재 7만명에 달하던 후원자 수는 이달을 고비로 격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 신규후원자가 8백22명이던 것이 3월 669명, 4월 367명, 5월 158명순으로 심각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으로 후원을 중단하거나 반송 및 탈퇴건수도 늘어나 실제로 소쩍새마을을 후원하는 손길은 통계보다 더욱 줄었다.

승가원은 전체 후원금 가운데 소쩍새마을 기본생활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산구조속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이들 원생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부원장 지용스님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외계층인 장애인복지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한 발우의 공양도 나누어 먹는 자비문중의 전통을 되살려 선행을 베푸는 일에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골수암 윤상환군 돕기 능인고 1백35만원 전달

대구 능인고등학교(교장 이규곤)는 골수암 투병중인 윤상환군(1년) 돕기 성금모금을 실시, 18일 그동안 모금한 1백35만7천원을 상환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윤호 기자

녹색환경감시단 2돌 기념

대구불교산악회 부설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은 21일 창단 2주년 기념식및 강연회를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장기교수(영남대 사회학과)가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윤호 기자

노인 지압·안마 봉사 대구 대광맹인불자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22일 중복을 맞아 사할린 영구귀국 노인들이 거주하는 고령 대창양로원을 찾아 무료지압 및 안마봉사를 실시한다. 이윤호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괘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한국JTS, 인도 보드가야 성지에서

아기부처님 키운다

유치원 · 학교운영 지원…빈곤퇴치 · 의료봉사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지 보드가야의 최극빈 마을인 인도 비하르주 둥게스와리. 불가촉천민들이 모여사는 이곳에 다시 부처님의 평등·자비사상이 연꽃을 피우고 있다.

한국JTS(이사장 법륜스님)는 지난해 10월부터 둥게스와리 인근 16개 마을을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최근 11개 마을을 어머니회를 조직하고 10곳의 유치원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각 마을마다 공동 우물을 정화하거나 가옥·도로·배수로 보수작업, 가내수공업 진흥 등의 계몽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마을 자치활동의 주체로서 유치원 지원, 마을은행 설립 등을 준비하는 어머니회는 5월초부터 한명당 10루피(한화 4백원)의 회비를 모아 유치원 및 학교의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마을 은행이나 단위 협동조합을 개설, 마을의 자립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도 하다.

유치원 건립 공사는 16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서 지난 3월 초부터 진행 중이다. 아자드비가 마을의 공사는 지난달 마무리되었으며 가울비가, 바가히, 반갈비가 등의 마을은 10월 초에, 그밖의 마을의 공사는 12월말께 각각 완공된다.

한국JTS 이화승 국장은 "학교 건물이 없는 마을에서는 가건물이나 천막 아래서 모두 6백여명의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을 실시중"이라면서 "주민들이 더욱 많은 교육·의료(지와카병원 운영중)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유치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현지 마을을 방문해 마을개발 사업현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귀국한 법륜스님은 "JTS가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으나, 우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개선과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간의 협동심과 자립심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JTS는 인도지역 의료·교육사업을 위해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 6천 6백달러(한화 9백만원 상당)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02)5810-58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산 종교인구조사 "못믿겠다"

통계청 자료대비 불자수 절반으로

부산시 "체계적 조사아니다" 해명

부산시는 통계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관내 종교기관 현황과 종교인 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인구 4백만명 가운데 종교인은 1백40만6천여명이다. 종교인구 가운데 불교신자가 70만6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와 천주교신자는 각각 33만여명, 21만8천여명이었다.

그러나 95년 11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조사결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는 3백80만 부산시민 가운데 종교인구는 2백10만여명이며, 불교신자는 1백45만여명, 개신교는 42만4천여명, 천주교는 17만9천여명이었다.

부산시와 통계청 조사를 대비해 종교인구와 각 종교인구를 비교하면 불교신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조사설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며 "공식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실직자 157명 '귀농삶' 도전

백양사 5차 단기출가수련회…9월에 또 열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리'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직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불교적 가르침안에서 재기의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가 17일 총 5차에 걸친 수련회를 성료했다.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회는 경제위기속에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의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교계 안팎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참선수련, 불교문화 이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는 매회 신청자가 몰려, 총 157명이 수련회를 통해 새 삶의 의지를 다졌다.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를 주도했던 금강스님과 토진스님은 "당초 7월까지만 열 예정이었지만 예상외로 반응이 좋고, 계속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실직자들을 위한 정신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해 9월부터 수련회를 계속 열 계획"이라면서 "실직자 단기출가 수련회를 노동부 재취업 심성개발프로그램으로 인가받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전통사찰 영문이름

인터넷 주소 '사재기'

피해사례 더 늘듯…총무원 "대책없다"

인터넷 상의 사찰 영문이름과 인터넷 주소의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하지 않은 통도사 등 1백여개 사찰의 영문이름과 인터넷 주소가 한 개인에 의해 등록됐다.

이에 따라 사찰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등록할 때,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영문이름과는 다른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야 할 처지다. 또 고유한 영문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가'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영문이름과 인터넷 주소가 등록된 전통사찰에는 통도사를 비롯해 송광사, 해인사, 수덕사, 백양사, 법주사, 월정사, 금산사 등 교구본사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한 통도사의 경우 영문이름 'tongdosa'를 인터넷 주소에 등록하기 위해 미국 NIC(Networtk Information Center)에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사재기의 장본인은 마우스 정(수원시). 이름 밝히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는 "전통사찰 이름이 인터넷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놓았다"며 "해당 사찰에서 꼭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되팔 수도 있다"고 말해 인터넷상의 사찰 이름 사재기를 시인했다. 그는 뒤늦게 연락을 해온 통도사측에 최근 수백만원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INC사에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는 수수료는 70달러(한화 약 9만원)에 불과하다.

우진스님(통도사)은 "지난달 사건의 심각성을 총무원측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2000여명이 14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조계사 문화교육관 앞에서 17일 현재까지 농성을 하고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농성노동자 검거위해 경찰난입

종교편향대책위 "성소침탈" 강력 비난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4일 저녁 7시 현대중기산업 노동자들의 조계사 농성돌입 과정에서 자행된 공권력의 조계사 난입과 봉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국민의 정부, 종교평향 척결을 위한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관련 종단협 인권위원회(위원장 혜공)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 석담),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도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나눔의집

조계종 산하 법인추진

정관개정키로

조계종은 일본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종단 산하 법인화 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1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상임이사(조계종 사회부장)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이사진을 늘려 나눔의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선원총람' 조사착수

조계종교육원 99년 완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은 〈선원총람〉발간을 앞두고 11일 대전 세등선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99년 가을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원총람〉은 구산선문 9개 사찰과 비구(니) 선원 34곳의 연혁, 사적비, 비문, 모연문, 주요 성보 등 현황자료를 담게 된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성역없는 공권력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14일 저녁 7시, 단아한 목탁 소리에 맞춰 스님과 불자들이 저녁예불을 드리고 있는 조계사 경내가 갑자기 둔탁한 군화 소리와 '저 XX 잡아라' 하는 고함소리가 섞여 일순간에 난장판이 됐다. 현대중기산업 2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조계사를 거점으로 농성을 위해 해탈문을 들어 온 순간 종로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10여명의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조계사 대웅전과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까지 뛰어 들어와 소란을 부린 것이다.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불교운동단체 종사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여기가 어딘데 들어왔냐'며 항의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허겁지겁 조계사를 빠져나갔다.

당시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중에는 수배자도, 폭력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던 사람도 없었다. 현 정부는 '국민정부'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현장에 있던 한 불자는 "'재임기간동안 어떠한 종교적 차별이나 편향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공권력마저 통솔하고 있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역대로 공권력은 명동성당 침탈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나 불교계에 대해서만큼은 성소(聖所)라는 것을 망각하고 군화로 짓밟기 일쑤였고, 조계사 경내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무례함을 범해 왔다. 94년 개혁당시를 굳이 떠올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국민정부도 불교 음해와 훼불, 무차별인 공권력의 성소침탈을 자행해 왔던 문민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14일 또다시 빚어진 성역없는 공권력 침탈은 정부를 스스로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현 정부는 직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교권유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교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뉴스 & 뉴스

법주사 승가대 '정식인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5일 제37차 교육원회의에서 법주사, 수덕사, 불국사, 직지사, 화엄사승가대학 등 7인가 승가대학 5곳 가운데 처음으로 법주사승가대학을 정식 인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은 총 32명의 학인과 교직자 스님 4명, 그리고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 등 운영위원 11명 등으로 구성요건을 완비했다.

한편 교육원장 암도스님은 9일 법주사승가대학을 방문해 사미의제법 실시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컴퓨터 5대를 기증했다. 이은자 기자

23일 대북 불교정책 워크숍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는 14일 육화관에서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까지 모금된 성금 3억5천여만원에 대해 결산심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옥수수와 분유 등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 하기로 했다.

또 8·15대축전과 관련, 지선스님을 상임대표로 하고, 각 종단 대표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불교추진본부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이와관련 이날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육화관에서 '8·15 대축전에 즈음한 현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분석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제4차 불교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필선 기자

29일 양심수석방 기원법회

8·15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교계 제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실천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30여개 교계 신행단체와 운동단체가 공동으로 29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원하는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규탄위주의 기존방식을 탈피, 양심수 석방에 대한 사부대중의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아래 마련된 것.

이날 법회는 삼귀의를 시작으로 양심수 현황발표, 석주스님(철보사 조실) 법어, 문화행사, 특별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종각역까지(예정) 촛불행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녹야원에 장애아 공부방

승가원 산하 주간보호센터인 녹야원과 상락원은 20일부터 초등학생과 취학전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각각 공부방을 개설한다.

공부방은 장애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바른 발달을 돕게 된다. 기초 학습능력과 사회성, 운동능력, 신변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균형있는 발달과 조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모집인원은 각 20여명 정도. (02)3413-6063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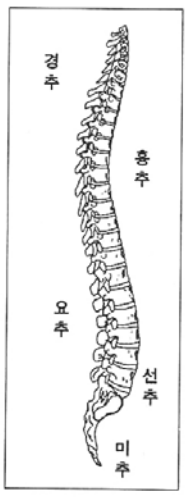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지부장모집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등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범자격증, 스포츠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부여

의료선교사 · 물리치료사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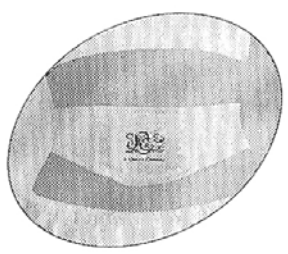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55-6461, 02)859-4156, 011)522-1122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피서특집' 안방 더위 사냥

불교TV '날마다…' 제주불교·섬문화 축제 조명

불교방송 '…작은콘서트' 안치환등 인기가수 라이브 무대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제주불교와 와이드 탐방, 작은 콘서트, 애청자들이 뽑은 음악 등 무더위를 식혀 줄 여름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IMF시대를 맞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피서를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이들 프로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TV의 '날마다 좋은날, 탐라불교를 찾아'와 불교방송의 '한 여름밤의 작은 콘서트'.

31일 오전10시20분부터 12시까지 1백분간 방영되는 '날마다 좋은날…'(담당PD 신동우)은 제주불교총연합회 소속 의 각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들의 활동과 지역 불자들의 신행생활 등 알차게 화합된 제주 불교의 모습을 와이드 형식으로 한 자리에 총 망라한 것.

김용, 한서경씨가 함께 진행을 맡을 이 프로그램은 제주불교의 산실 '관음사 및 제주불교 총 연합회 탐방', 고관사·보우스님 사리탑·존자암·신방굴사·국청사 등의 사찰 순례, 명사들과 함께 퀴즈로 제주불교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제주탐구 123' 등의 코너가 마련돼 안방에서 제주불교의 모든 것을 알수 있게 해준다.

또한 농경신 미륵과 사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오끼나와의 전통무용 '일본의 사자무 미르크'와 4박4년 불교축제의 의식행렬을 경건하고 화려하게 조현하는 '스리랑카의 불교축제' 등 세계의 섬문화들이 7월 18일부터 27일간 소개되는 '98 제주 세계 섬문화 축제'도 보여준다.

27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불교방송에서 전파를 탈 '한 여름밤의 작은 콘서트'(밤11시5분~밤12시, 담당PD 황용관)는 안치환, 김현정, 동물원, 뱅크, 패닉, 소찬휘 등 인기 가수들이 직접 반주하고 부르는 라이브무대로 꾸며져 무더위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소나기 같은 시원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조의 다시듣고 싶은 노래'(밤8시5분~밤9시, 담당PD 문태준)에서도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우리 가요사에서 인기를 누렸던 여름 노래들을 모아 들려주고 구전돼 오는 괴담과 전설 등을 곡화해 방송한다.

또 '차한잔의 선율'(오전9시5분~오전10시, 담당PD 안희경)은 27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예창자가 뽑은 사랑의 선율 베스트 50', '퀴즈대장경'(오후2시10분~오후3시)은 '방학특집, 어린이 퀴즈대장경'을 각각 마련한다.

한편 관주BBS는 18일 여름철 피서지 정보와 결들어 산과 바다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는 '행복한 노래마을'(오후3시20분~오후5시, 담당PD 김형만)을 여름특집으로 준비하며 청주BBS는 8월7~8일 양일간 '시할별 대항 독경대회'를 '우암산 전망대'(오후4시10분~4시50분, 담당PD 장안수) 시간에 내보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호암당 약휴스님(1664~1738) 진영. 순천 선암사 소장.



◇카리반지오作 '로자리오와 성모'(부분). 1600년경. 비인미술관 소장.

번뇌 끊고 정신집중에 사용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12)

염주

기도할 때나 염불, 다라니를 외울 때 집중하거나 그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일정한 수의 염매나 구슬을 꿰어 연결한 기도도구이다. 염주는 108주를 기본수로 하는데 이는 백팔번뇌를 끊는다는 의미이며 그 절반인 54개, 절반인 27개와 그것의 절반인 13개로 된 것도 있으며 1000주, 1080주, 3000주 등도 있다.

가톨릭의 '로자리오'로 불리는 묵주(默珠)는 1단(10주)을 기본으로 5단(50주)까지로 되어 있다.

염주를 한알 한알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하므로 일념으로 염주를 돌림에 따라 부처님 공명이 자신에게 충만해지고 죄업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여러개의 염주알이 한줄에 꿰어져 있듯 인간들도 서로서로 상의상관(相依相關)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가톨릭 신부들이나 신자들도 묵주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도문이나 성모송등을 외울 때, 명상에 잠길 때 이것을 돌린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①

주부신행담

우여곡절 끝에 결혼 남편주사는 심해지고… 관음정진으로 견뎌

일곱살쯤의 사월초파일로 기억된다.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기꺼운 절에 따라간 것이 부처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법당에 계신 황금빛 찬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상호보다도 그 시절의 내겐 일주문이며 울긋불긋 채색된 건물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다. 사천왕이 사람을 밟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그 까닭을 물으니 어머니는 남의 것을 훔쳐서 그 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두손을 합장하고 10원짜리 동전을 사천왕문 문살틈으로 던져 넣으며 굳게 결심을 했다. 절대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훔치지 않겠다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인다던가! 아무런 강요나 권유도 없었는데 은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어들었나 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망설임없이 불교학생회에 가입하여 조금씩 불교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우리 도시에 오셨다. 스님은 법문도중에 "보살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 손들어보라"고 하셨다. 수줍음 많던 내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책에서 본 구절을 대답한 인연으로 집에와서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며 진실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다.

1979년이었다. 큰언니가 살고 있던 부산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자주 절에 갔었고 한번은 3일간 절에 머무르며 관음기도를 했다. 기도도중 어머니는 내가 대학기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합격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3일째 되는 날, 다른 날과는 달리 계속 여러시간을 앉아있으니 다리가 몹시 저린 상태도 지나 구름을 탄 듯 몸이 허공에 두둥실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머리 속은 무념무상의 경지가 그러할까 싶을 정도로 투명하고 텅빈 것같은 상태였다. 순간 그 상태가 무섭고 공포에 질려 '나'라는 인식을 잃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도를 중단하고 말았다. 지금만 같아도 거기서 더 어떤 경계가 닥치나 관찰하면서 놀라기보다는 공부의 차원으로 이해하였을 텐데….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에 공무원시험엔 합격했으나 나의 참된 불교공부는 늦어졌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 초겨울 어린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고 22살 가을에 첫 딸아이를



그림 · 문병성

낳고 3년 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와 우여곡절을 쓰기엔 모자라는 내 필력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어렵기만 하다. 어쩔 수 없던 상황, 죽기보다 어렵고 힘들었으나 번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가까이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상송관으로 염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나갔다. 어리석고 순하고 착하게만 보였던 남편은 뜻밖에도 고집이 세고 주벽또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시멘트찌꺼기가 더덕더덕 묻은 안전화를 산은 채 방에서 자는 것은 보통이고 추운 겨울에도 마당이나 뜨락에서 취해 잠들기도 하였는데 깨우고 방으로 모셔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역겹고 시끄한 술냄새!

김정숙 (구미시 선산읍 생곡동)

출 판

본 지면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출판및 관련업체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입니다.
일정기간 계약된 지면은 해당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사홍보, 출판광고, 신간안내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규격및단가 가로 9cm×세로 7cm
이용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 (02)737-8881(代), (02)732-1522(直) F. (02)737-0697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미추(美醜)의 아름다움 추악(醜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운적, 그리고 운세상의 질흉을 영글히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추리하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751-14 금성B/D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톤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톤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❶ 80권 화엄경(일본승가의 한역판
❷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❸ 중국 오대산판 80권 화엄경 원문 수록
❹ 화엄경의 이해를 알기 쉽게 풀어한 풍●註釋 달린
❺ 장제한 단어 구문과 소제목을 삽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❻ 전 12권 100,000원 상품을 카드로도 구입 가능!상담 주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전 12권 160,000원
민족사 서울 동대문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079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송대 임제종 원오스님 문하의 선사인 심우스님의 송고집에 정과 혜심을 붙여만든 (벽암록)은 종문 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심정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라즈니쉬 강의/류정정옮김 /값 9,000원
성하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寺刹文化研究院
전통사찰총서
① ② 강원도 I·II
③ 경기도 I
④ 서울의 전통사찰
⑤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II
⑥ 전남의 전통사찰 I
⑦ 경주.진남의 전통사찰 II
⑧·⑨ 전북의 전통사찰 I·II
⑩·⑪ 충북의 전통사찰 I·II(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효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6728



염불의 시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불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등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이태원 자.신국판 양장 /768쪽 값25,000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6 TEL 02)720-9372~3 FAX 02)723-0668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II·III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무식해지고 무식해서서 무식이라는 남방소사 용일 수 없을때 지리가 드러나리라. 스스로 해후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용서될 수준도 안된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학풍발 몽이야기전3권
1권 같은 길이 아니고 또는 도가 아니라 2권 갈등했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의 길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성내경 지음/각권15,000원
도서출판 종 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대우빌딩 201호 전화 636-6873 팩스 636-6874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산에서 비롯되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지옥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무형한 방법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지금 모르면 영혼은 무한 수가 있는데 빙의 합체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비롯되는 질병 모르고 치유에 따라 생에 따로 나타나므로 치유에 따라 문제로 비롯되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들이 좋아지면서 보이는 방법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많은 놀이 낫게 됩니다."
김정기 지.산국판 240쪽 /값8,000원
도서출판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보한 할이로다 신국판/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160면/값 3,000원
일상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자상한 법문과 함께 예화 위주로 실어 읽기 쉽게 엮었다
기 도 신국판/248면/값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 제자 신도들의 기도상화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효 림 전화 02)587-6612 팩스 02)586-9078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불교용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usic!
명상음악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법문·경전강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02)745-6015 FAx (02)745-6017
삼보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올바르게 보급하여 신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불교학 개론, 종교사의 강의록!
명실상부한 종교 입문서!
어느 종교든 그 종교 나름대로 기적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종교인식장을 망플케하는 우리나라의 한 종교상황을 상기할 때 종교적 기적관의 혼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입장이도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이 책을 펴내게 된 목적이다
이 책은 지자는 최근의 스님과 일반 대학생이나 불교와 이 책사를 마치고 현재 불학대학 종합과정에 출강하고 있다
이 밖에는 그동안 교단과 법회에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를 강의한 곳을 감추어야 하는 관계로 생략함
도서출판 여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201호 전화 02)730-8976 전송 02)723-6801



장도문고 1 장·수·멸·죄·경
-태아를 천도공양법-
지수의 어머니 지장보살을 공하여 부모의 회임을 알고 어린영혼들을 입호에 대비하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
장도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승용신 재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바르게 배워 삶의 집착대상에 하는 소중한 내용이 적절히며 보지되면 빛나고 있다
죽은자 환생시키기 영혼은 스스로 해오하는 방교와 방도의 해심되는 가르침
천장영음 /값24,000원
불교출판 蓮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 0694)52-1755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공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에 선사는 '뜰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벽면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불교가 있습니다.
달마대사에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방편으로 접해주신 공부법도 선불교입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제품명 화엄큰스님 달마도 재 질 순금 99.9% 크 기 5.2cm × 7cm 가 격 ₩20,000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

부처님 오버거룬
지기의 분해 심품을 보좌
달마도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해탈문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 GOLD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가시불명 700개, 보살불명 720개)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불후 대장하고 자세하게 해설함이 사용이 불교의 여러 가지 심한 구절을 경우이 수록하여 적절 불명인 성명하여 지장하기 위한 대안식의 체계에 대장함을 가지함이
● 수계식에 대한 설명 수록
고성호 법을 선택한 장정(319쪽/값20,000원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신식의 출합 가득한 유명사찰음식 출합각 유서깊은 만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해져 내려오는 법 : 송광사 법인식 : 직지사 · 구사 · 해남대흥사 · 도지 · 인홍사 · 성천사 등의 명소명 전해 등인 유명사찰음식 23여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그 조리법과 상세한 설명수록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2동 1-30 전화 (02)313-5021~5022 팩스 (02)395-9636
김연식 지음 4·6변형 반양장(196쪽/값 13,000원